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저희 공사 전세계 해외무역관을 통하여 수집한 74개국의 경제정보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KOTRA는 현재 발간하고 있는 74개국의 경제정보를 국가별로  
지정된 주기(분기/반기/연1회)에 따라 UP-DATING하는 한편 발간대상국을  
확대하여 귀사의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 차 례

|                                 |    |
|---------------------------------|----|
| 1. 국가개요 .....                   | 1  |
| 2. 경제동향 및 전망/2003년 1/4분기 .....  | 2  |
| 3. 경제동향 및 전망/2003년 2/4분기 .....  | 4  |
| 4. 경제동향 및 전망/2003년 3/4분기 .....  | 5  |
| 5. 경제동향 및 전망/2003년 4/4분기 .....  | 6  |
| 6. 경제동향 및 전망/2004년 1/4분기 .....  | 6  |
| 7. 경제동향 및 전망/2004년 2/4분기 .....  | 7  |
| 8. 경제동향 및 전망/2004년 3/4분기 .....  | 7  |
| 9. 경제동향 및 전망/2004년 4/4분기 .....  | 8  |
| 10. 경제동향 및 전망/2005년 1/4분기 ..... | 9  |
| 11. 경제동향 및 전망/2005년 2/4분기 ..... | 10 |
| 12. 경제동향 및 전망/2005년 3/4분기 ..... | 11 |
| 13. 한국과의 무역관계 .....             | 12 |
| 14. 한국과의 투자관계 .....             | 13 |
| 15. 출입국/비자/출입국, 비자 .....        | 15 |
| 16. 환전 .....                    | 16 |
| 17. 기후 .....                    | 18 |

|     |                        |    |
|-----|------------------------|----|
| 18. | 공휴일 .....              | 18 |
| 19. | 시차/근무시간/시차, 근무시간 ..... | 19 |
| 20. | 호텔 .....               | 19 |
| 21. | 식당 .....               | 21 |
| 22. | 교통/통신/교통,통신 .....      | 23 |
| 23. | 유용한 연락처 .....          | 24 |
| 24. | 여행시 유의사항 .....         | 26 |
| 25. | 관광명소 .....             | 28 |
| 26. | 국토 .....               | 30 |
| 27. | 국민 .....               | 31 |
| 28. | 역사 .....               | 32 |
| 29. | 국가조직 .....             | 39 |
| 30. | 정치제도 .....             | 40 |
| 31. | 정치사회동향/2003년 상반기 ..... | 42 |
| 32. | 정치사회동향/2003년 하반기 ..... | 43 |
| 33. | 정치사회동향/2004 상반기 .....  | 45 |
| 34. | 정치사회동향/2004년 하반기 ..... | 47 |
| 35. | 정치사회동향/2005년 상반기 ..... | 51 |
| 36. | 정치사회동향/2005년 하반기 ..... | 53 |

37. 국가원수 .....54

38. 주요인사 .....55

39. 행정구역 .....58

40. 대외관계 .....62

41. 국가경쟁력/2004년 국가경쟁력 .....63

42. 도량형 .....64

43. 관공서 관행 .....65

44. 국제공항 및 항구 .....65

45. 매스미디어 .....66

46. 주한 주재국기관 .....66

47. 현지화제 유머속담/유머1 : "보스"라고 부르는걸 보니 .....67

48. 현지화제 유머속담/속담1 : 고양이가 없는 집에는 쥐가 춤춘다 .68

49. 현지화제 유머속담/속담2 : 머리카락이 많은 사람은 다리가 고생한다 .68

50. 현지화제 유머속담/속담3 : 남을 향해 돌을 던지면 자기도 손해를 보게된다 ...68

51. 현지화제 유머속담/속담4 : 적은 돈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큰돈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 69

52. 현지화제 유머속담/세무서를 거치지 말고 직접 주세요 .....69

53. 현지화제 유머속담/구동독 사람의 소원 .....69

54. 물가정보/물가정보(프랑크푸르트) .....70

55. 물가정보/물가정보(베를린).....71

56. 물가정보/물가정보(원헨) .....72

57. 물가정보/물가정보(함부르크) .....73

58. 경제발전사 .....74

59. 경제정책/2003년 상반기 .....75

60. 경제정책/2003년 하반기 .....76

61. 경제정책/2004년 하반기 .....77

62. 경제정책/2005년 상반기 .....78

63. 금융통화제도 .....79

64. 주요산업동향/전체 산업 동향 .....80

65. 주요산업동향/건설업 .....83

66. 주요산업동향/광업 .....85

67. 주요산업동향/금융업 .....85

68. 주요산업동향/석유화학산업 .....87

69. 주요산업동향/에너지산업 .....89

70. 주요산업동향/의류,섬유산업 .....92

71. 주요산업동향/제약,의료산업 .....95

72. 주요산업동향/농림수산업 .....98

73. 주요산업동향/환경산업 .....100

74. 지적재산권 .....103

---

|     |                    |     |
|-----|--------------------|-----|
| 75. | 소비자보호 .....        | 104 |
| 76. | 수입관리제도 .....       | 104 |
| 77. | 관세제도 .....         | 107 |
| 78. | 통관절차 .....         | 107 |
| 79. | 유통구조 .....         | 108 |
| 80. | 국제입찰제도 .....       | 110 |
| 81. | 외환관리제도 .....       | 112 |
| 82. | 시장특성 .....         | 112 |
| 83. | 상거래시 유의사항 .....    | 113 |
| 84. | 전반적 투자여건 .....     | 115 |
| 85. | 투자유치정책 .....       | 116 |
| 86. | 외국인투자제한 .....      | 118 |
| 87. | 투자진출절차 .....       | 118 |
| 88. | 지사 및 현지법인 개설 ..... | 120 |
| 89. | 공장설립 .....         | 122 |
| 90. | 산업단지 .....         | 123 |
| 91. | 자유무역지대 .....       | 123 |
| 92. | 조세제도 .....         | 124 |
| 93. | 사회간접자본 .....       | 124 |

94. 노동여건 ..... 125

95. 사회보장제도 ..... 127

96. 현지 생활여건 ..... 127

97. 이주정착가이드/이주.정착가이드 ..... 129

98. 자녀 교육여건 ..... 131

99. 진출기업/삼성 SDI 독일법인 : Samsung SDI Germany GmbH .... 132

100. 진출기업/삼성코닝독일현지법인:SamsungCorning Deutschland GmbH 133

101. 진출기업/금호 타이어(주) : Kumho Europe GmbH ..... 134

102. 진출기업/대우 인터네셔널 (주) : Daewoo Handels GmbH ... 135

103. 진출기업/대우전자독일판매법인: DaewooElectronics Deutschland GmbH 135

104. 진출기업/LG전자독일판매법인:LG Electronics Deutschland GmbH 136

105. 진출기업/대한항공프랑크푸르트지점 : Korean Air Frankfurt Office.. 137

106. 진출기업/(주)삼성물산 독일법인; Samsung Deutschland GmbH ..... 138

107. 진출기업/현대자동차 유럽법인 (주) : Hyundai Motor Europe GmbH .. 138

108. 진출기업/포스코 유럽사무소 : POSCO Europe Office ..... 139

109. 주요경제지표 ..... 140

110. 대외거래지표 ..... 140

111.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 ..... 141

112.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 통계 ..... 142

113.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대독일 주요 수출입 상품 .....143

114.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대독일 연도별 수출입 규모 .....144

115. 대외 투자진출 통계/대외투자진출 .....145

116.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국별투자유치 .....145

117. 우리나라와의투자교류통계/한-독일간투자교류통계(진출및유치). 146

118. 물가금융지표 .....147

119. 노동통계 .....147

## 1. 국가개요

### <일반사항>

|                |  |
|----------------|--|
| 국 명            | 독일연방공화국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br>(현지어명 :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위 치            | 서부유럽   |
| 면 적            | 357,022km <sup>2</sup> (한반도의 1.6배, 대한민국의 3.6배)   |
| 기 후            | 온대성, 연평균 섭씨 7-10도 수준   |
| 수 도            | 베를린 (Berlin)   |
| 인 구            | 8,244만명 (2005년, 인종별 독일인 7,520만명, 외국인 734만명)  |
| 주요도시           | Berlin (339만명), Hamburg (172만명), Muenchen (124만명)  |
| 민족(인종)         | 게르만족   |
| 언 어            | 독일어  |
| 종 교            | 개신교 (49.2%), 카톨릭 (48.7%), 기타 (2.1%)  |
| 건국일<br>(통일기념일) | 1871. 10. 3일 (비스마르크 재상에 의해 독일 제2제국 탄생)   |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 국가원수<br>(실권자)  | 대통령 Koehler (국가원수)<br>- 취임일 : 2004. 7. 1 (임기 : 5년)<br>수상 Schroeder (실권자)<br>- 취임일 : 2002. 10. 22 (임기 : 4년이나, 1년 앞당긴<br>조기총선으로 3년으로 단축) |

<경제지표(2004년/2005년 기준)>

|         |  |
|---------|--|
| GDP     | 십억Euro 2,215.65  |
| 실질경제성장률 | 1.6%   |
| 1인당 GDP | 26,856 Euro  |
| 실업률     | 10.6%  |
| 물가상승률   | 1.6%   |
| 화폐단위    | Euro (EUR)   |
| 환율      | 1EUR = 1,258.54원(2005년 9월 15일자, 고시 기준율)                                    |
| 외채      | 십억Euro 2,688   |
| 외환보유고   | 십억Euro 77  |
| 교역규모    | 2004년 기준 십억US\$893(수출), 십억US\$717(수입)                                      |
| 주요 교역품  | - 수출 : 자동차, 기계, 전자 및 전기, 화학제품, 철도차량<br>- 수입 : 원유, 천연가스, 자동차, 전자 및 전기, 화학원료 |

<한·독 관계>

|      |  |
|------|--|
| 체결협정 | 무역협정('95), 투자보장협정('67)<br>문화협정('72), 행정협정('73), 사증면제협정('74)<br>이중과세방지협정('78), 핵에너지협정('86)<br>사회보장협정('02) 한·독 사회보장 협정('03.01 발효), 입국<br>및 체류에 관한 양해각서 ('05.01 발효) |
| 교역규모 | 162억불 (2004년)  |

\* 자료원: 연방정부 홈페이지 ([www.bundesregierung.de](http://www.bundesregierung.de), 2005. 8)

통계청 홈페이지 ([www.destatis.de](http://www.destatis.de), 2005. 8)

독일 연방은행 홈페이지([www.bundesbank.de](http://www.bundesbank.de) 2005.08)

## 2. 경제동향 및 전망/2003년 1/4분기

<국내 경제동향>

독일 경제가 "더블 덩"에 빠지고 장기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독일경제연구소(DIW)에 따르면, 2002년 4분기 GDP가 전 분기에 비해 0.2% 감소한데 이어 2003년 1분기 역시 매우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연방은행 역시 자세한 통계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2002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였다는 점을 시사했고, 민간 경제연구소들도 0.1%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3년 1분기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다면 연속 2분기 GDP 성장이 감소한 것으로, 이른바 "기술적 침체(technical recession)"으로 정의되며, 이미 독일은 2001년 상반기에 이를 경험한 바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더블 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 더욱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002년 독일 경제는 공식 발표된 것보다도 상황이 좋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DIW는 2002년 GDP 성장률이 0.1% 증가에 그쳤다고 보고 있으며, 연방통계청은 0.2%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같은 부진은 특히 국내 소비위축이 심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작년 4분기 개인 소비지출이 0.6% 감소했을 뿐 아니라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개인 지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진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동부지역 수해복구 작업으로 인해 건설 분야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고, 2년 동안 얼어붙었던 설비투자 역시 소폭 증가추세를 보여 실날 같은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그러나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는 독일 경제 전체를 견인하기에는 너무 미약한 움직임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 <대외거래 동향>

독일 경제의 원동력인 수출 역시 2002년 3분기 2.7% 성장을 기록한 이후 4분기에는 0.3% 증가에 머무른 상태이며,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 악화로 인해 대미수출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점증되고 있다.

특히 2002년 중반부터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유로화가 2003년에도 미 달러 대비 환율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강세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수출 기업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수출마진을 줄여야 하는 압력에 시달릴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시장점유율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독일은 전체 수출의 10%를 미국으로, 약 70%를 유로존으로 수출하고 있다. 따라서 미 달러 대비 유로화 환율이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미국 시장은 물론 아시아, 유럽 시장 내 미 달러 지역 제품과의 가격경쟁은 상황이 다르다. 더구나 수출의존도가 높은 분야는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라고 전해지고 있다.

#### <관련 정보원>

(<http://www.bfai.com>)

KOTRA와 유사기관으로 해외 각국의 시장동향, 투자정보, 개발계획, 상거래 관습 등을 검색할 수 있으나 유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http://www.diht.de>)

독일연방 상공회의소로서 82개의 지방상공회의소의 중앙기관이다. 경기, 유로화, 교역, 회사, 세무 및 재무, 세계각국 박람회, 수출지원제도, 국제적 프로젝트에 관련된 정보를 광범위하게 입수할 수 있다.

(<http://www.wiwo.de>)

주간 시사경제지인 Wirtschaftswoche지의 웹사이트로서 경제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http://www.ifo.de>)

경제연구소인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의 웹사이트로서 경기동향, 주요 경제이슈 등 동경제연구소가 발간하는 주간 및 월간 각종 보고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http://www.diw.de>)

베를린 소재 경제연구소인 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의 웹사이트로서 경기동향, 주요 경제이슈 등 동 경제연구소가 발간하는 주간 및 월간 각종 보고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3. 경제동향 및 전망/2003년 2/4분기

유로화의 강세행진이 거듭되고 있다. 지난 19일 유로화의 미 달러화 대비 환율이 한 때 1.1739 달러까지 치솟아 올해 최고를 갱신했다. 이는 지난 99년 출범 당시(1999.1.4일) 1.1899달러를 기록했던 이후 최고치이다. 19일 유로화의 미 달러 대비 환율은 최고에 오른 후 소폭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으나 독일 경제 전문가들은 유로화의 초강세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부진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독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내 수요 침체 상태에서 유일한 희망은 수출임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태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BANK OF AMERICA의 유럽 경제 전문가 슈미딩 역시 “강한 유로가 독일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수입가격은 낮아지는 대신 수출가격이 높아져 독일 수출제품의 세계 시장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여기에 장기 경기부진의 여파로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 경제연구소들이 독일 경제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상당히 심도있게 제기함으로써 유로화 환율 상승은 여러모로 독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여지가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유로화 환율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19일 독일의 DAX 주가지수는 4.5% 하락, 이 같은 견해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로는 미 달러화의 가치상승이 지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부시 미 대통령은 강한 달러를 표방하며 미 달러화가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으나 미국 기업들의 회계 스캔들을 기점으로 하락한 미 달러화의 가치는 좀처럼 회복세를 타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달러 약세를 이용 미국 기업들이 상당한 이득을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연준위는 약한 달러가 미국의 디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따라서 미 행정부는 겉으로 표방하는 금융정책과는 달리 달러의 약세를 당분간 관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로존과 미국의 금리차이 역시 유로화 가치상승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2.5%로 미 연준위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세계 자본시장의 자본이 유로존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에 독일의 연방은행을 비롯해 유로존 각국은 유럽중앙은행에 추가 금리인하 조치 단행을 촉구하며 유로화 가치가 필요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이젠베르크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유로화 강세로 인해 유로존 내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의 유로화-미 달러화 환율은 적정한 수준” 이라며 이와 같은 요구에 응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한 유로의 영향으로 독일 수출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폭스바겐, 다임러 크라이슬러, BMW 등 대형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미 유로화 환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 긴축재정에 돌입했으며, 특히 폭스바겐의 경우 지난 1분기에 이미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이 4억 유로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수출 품목인 기계 역시 마찬가지로 독일기계산업진흥회(VDMA)는 “한계선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고 유로화 강세/달러화 약세의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메릴린치는 미 정부가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며 강한 달러 정책을 쉽게 밀어붙이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과 더불어 유로존과 미국의 금리차이가 존재하는 한 당분간 유로화 강세기조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 사는 또한 올해 연말 유로화의 미 달러 대비 환율은 1.25달러 수준이 될 것이며, 2004년 6월 경에는 1.33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 4. 경제동향 및 전망/2003년 3/4분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독일 경제가 하반기에 회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독일 6대 경제연구소 중 하나인 Ifo 연구소는 7월 기업경기지수가 상승하고 있다고 전하고 하반기에는 경제회복의 속도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전망이 발표된 후 독일 DAX 주가지수가 상승하는 등 경제계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

아이헬 재무장관은 “독일 경제가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하며, 향후 연방정부의 관련 정책들이 회복기미를 보이는 경제여건에 부합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민간 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업경기지수가 소폭 상승했다고 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적어도 올해는 스테그네이션이 지속되다가 내년에 가서야 본격적인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다만 올 하반기는 상반기의 부진을 상쇄시켜 줄 만한 전환점은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분야별로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회복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제 및 의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내수도 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 점포개점 시간 연장 이후 소매업 매출이 조금씩 늘고 있으며, 유로화 강세로 고전할 것으로 보였던 수출도 아직까지는 큰 타격을 입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해외 주문량 감소에 따른 산업 생산의 위축은 당분간 독일 경제에 가장 무거운 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업 경기는 통독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자동차, 기계, 화학 등 세계 최고에 군림하는 독일의 산업들이 최근 악화된 경제여건과 생산비 상승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독일 경제회복에 열쇠가 되고 있는데,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업부담의 가중, 유로화 강세 등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다.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세계 1위를 수성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로 조화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5. 경제동향 및 전망/2003년 4/4분기

2003년 하반기부터 독일 경제회복의 탄력은 수출에서 비롯되었으며, 2004년에도 수출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독일 내 각 경제연구소들이 경제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독일 경제는 올해 정체상태를 거쳐 내년에는 약 1.75%의 소폭 성장을 이룰 것이며, 올해 말부터 회복의 흐름을 본격적으로 타게 될 것으로 각 기업인들은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2003년 3분기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1% 성장하는 데 그쳤으나 4분기에는 0.2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각 경제기관들은 4분기에 경기 최저점에 도달하여 2004년부터는 본격 회복 가도를 달릴 것으로 전망했으나 2003년 9월과 10월 GDP가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바 있어 연말 경기 역시 회의적인 상태이다. 다만, 2002년에 비해 0.2%의 미약한 성장이나마 보일 전망이어서 위안이 되는 상황이다.

반면, 6월 이후 독일의 수출은 경제에 큰 활력을 제공하고 있다. 수출이 늘어나면서 독일 내 기업의 30% 가량이 작년보다 생산량을 늘리고 있으며, 내년에 생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축될 대로 위축된 내수로 인해 수입시장 규모는 크게 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대독 수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3분기 개인 소비지출이 다시 줄었으며, 실업을 증가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소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시장이 얼어붙었고, 대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저축률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개혁으로 개인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인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업 투자부문은 뚜렷한 개선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04년에는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을 줄일 계획을 가진 기업이 많고, 이윤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기업도 평균 1/4에 이르고 있다.

산업 부문별로는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올해 건설수요가 2.7% 감소한 데 이어 내년에도 2% 가량의 수요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다만, 개인 주택 건설 수요가 늘어 통독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는 건설업 부문에 유일한 희망이 되고 있으나, 개인주택 건축 시에 주어지던 국가보조금이 삭감되기 전에 지어 놓자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건설업의 부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6. 경제동향 및 전망/2004년 1/4분기

독일 6대연구소 중 하나인 뮌헨 Ifo경제연구소는 2004년 1.8%의 성장을 전망하였다. 특히 Ifo는 독일 경기가 녹색신호 앞에 서있으며, 3년 동안 침체에 빠졌던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독일 경기회복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유로화 환율 고공행진으로, Ifo연구소의 1.8% 성장률은 1.20달러-1.30달러 환율 폭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한편 Ifo는 동유럽의 유로현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 환율이 1.30달러 선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12월 19일 여야당 합의에 의해 체결된 2004년 조세개혁실시는 정치인들이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며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여야당의 합의하에 노동시장 및 조세시스템 개혁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동 조세개혁으로 인해 독일 경제는 0.2%포인트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2004년 많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노동일이 2003년보다 많아 0.3%포인트 성장할 것이라며, 몇 년 이래 독일 경기 전망이 이토록 좋은 적이 없었다고 Ifo는 말하고 있다.

반면, 노동시장은 크게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저렴한 임금의 동유럽국가들과의 경제입지 경쟁에서 독일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2004년 평균 실업자수는 43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 7. 경제동향 및 전망/2004년 2/4분기

독일의 주요 민간 경제연구소 가운데 하나인 세계경제연구소(Ifo)는 현재 배럴당 35달러 선인 국제유가가 오는 연말까지 32달러 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Ifo는 또 유로화의 대달러 환율은 유로당 1.2달러 선에 머무는 한편 유럽중앙은행(ECB)이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이자율을 올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독일의 올해 성장률이 강력한 수출 증가세 덕분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Ifo는 전망했다.

Ifo는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수출이 강력한 신장세를 보이면서 전체 경기의 상승 속도가 적절히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 3월 1.6%로 전망했던 올해 성장률을 1.8%로 높였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수출이 독일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역할할 것이지만 세계 경제 신장세가 약화되면서 수출 역시 주춤할 것으로 분석한 Ifo는 국내 수요의 경우 올해와 내년에 되살아날 것이지만 회복세는 미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올해 보다 공휴일이 많아 노동일수가 줄게 될 내년엔 1.3% 성장할 것이라고 Ifo는 예상했다.

이밖에 독일의 재정적자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8%, 내년엔 3.5%를 기록하며 4년 연속 유럽연합(EU) 안정·성장협약을 위반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다른 민간 경제연구소들도 내주에 하게 정례 경기 전망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그간 가장 비관적으로 독일 경제를 평가해왔던 DIW가 당초의 성장 전망치 1.4%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경제지 한델스 블라트 인터넷판은 전했다.

독일의 6개 민간 경제연구소는 올해 초 발표한 공동 경기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1.5%로 잡은 바 있다.

## 8. 경제동향 및 전망/2004년 3/4분기

2004년 7월 현재 독일 기업의 향후 경기 전망은 낙관적이다. 최근 발표된 Ifo 연구소의 사업환경지수가 94.6포인트에서 95.6포인트로 상승하면서, 근간 평균치를 넘어섰다. 5월과 6월 Ifo 지수는 연속 2개월간 하락함에 따라 경기 회복 지체에 대한 우려의견도 있었으나, 이번 달 지수 상승로 인하여 우려는 불식된 상태이다.

연방은행 베버 총재는 “경제가 역동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평했고, 국민경제는 2004년 2분기 0.5% 성장하였다. 이는 1분기 실질 국민총생산 성장률이 0.4%를 기록하면서, 예상보다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이다. 이에 덧붙여 베버 총재는 낙관적인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독일 내수부진의 돌파구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반면, 전문가 위원회의 비가르트 위원장이 지적하듯이 독일 경제가 2004년 5년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은 수출이다. 비가르트 위원장은 2004년 경제 성장률을 1.8%로 잡고, 2005년에는 2%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하였다.

정부 개혁 논의에 대한 기업들의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사업환경지수가 개선되었다. 지멘스와 다임러-크라이슬러의 임금협상과 노동시간 연장에 관한 논의는 독일 개혁 진척에 대한 실례이다. 베버 총재는 노동 시간 연장이 만병통치약은 되지 못하나, 일부 기업들에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Ifo 연구소 설문 대상 7,000개의 기업들은 현재 상황과 향후 추이를 예전보다 더 나은 것으로 평가했으며, 이 점을 분석가들은 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상황 지수는 93.2포인트에서 94.1포인트로 상승했으며, 사업기대지수는 2004년 최초로 96포인트에서 97.1포인트로 다시 올라갔다. 2004년 1월부터 기업들이 낙관적인 미래 전망을 철회해왔음을 고려하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fo 연구소에 따르면, 사업환경은 생산 기업과 소매업계, 그리고 특히 도매업계에서 매장에서 개선되었으며, 건축업계만 다시 악화되었다. 사업환경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수요가 증가하자, Ifo 연구소는 2004년 하반기에 경기 상승세 지속을 예상했다.

경기 회복의 원동력은 역시 수출로, 7월 수출기대치는 연중 최고 상태에 도달했다. Ifo 연구소에 따르면, 세계 경제가 안정세에 접어들더라도 유럽의 경기 회복 과정은 계속될 것이다. Ifo 연구소는 투자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징후를 확인했으며, 베버 총재는 전체 경제의 생산량이 약간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은 내수 경기를 되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9. 경제동향 및 전망/2004년 4/4분기

### <금년도 독일 산업 1.5%-1.7% 성장전망>

독일 산업 연합 (BDI)이 향후 경기추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동 기관의 경기보고에 의하면, “독일 경제는 상향 추세”로, 경기가 전반적으로 상승기류를 타고 있다.

그러나 BDI는 전반적인 기반이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수출은 2004년 1월- 5월 10% 증가하면서 예상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나, 건축 경기는 여전히 부진하다. 소비자와 투자자들은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 수출에서는 호황을 이끌어낼 강한 자극이 없다. 대신 독일 경기의 견인차는 세계 경기 호황으로, 특히 미국과 아시아의 폭발적인 성장이다. 반면, 유럽은 계속해서 뒤쳐져 있다. BDI가 예상하는 2004년 성장률은 1.5%-1.7% 수준이며, 2005년에는 2% 또는 그 이상이 가능하다.

산업계의 성장은 경기 회복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공작기계 산업은 수주량이 늘면서 거의 “최고의 성수기”를 구가하고 있다. 철강시장은 봄을 타고 있으며, 전자 산업의 상황 역시 호황을 누리고 있다. 화학 분야 경기도 상향 추세이며, 자동차 산업은 독일 내에서는 약세를 면치 못하나, 외국에서는 강세를 타고 있다. 그러나, 섬유, 가구 산업, 건축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BDI는 수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의 감소 현상을 지적했다. 반면, 독일에 대한 외국의 부가가치 창출은 1991년 이래 26%에서 40%로 증가하였다.

BDI는 성장에 대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노동시간 연장을 내세웠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시장 정책에서 가장 큰 오류 중 하나라면서, 경영자들 역시 이 오류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BDI에 따르면, 주당 40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삼고 0시간에서 50시간까지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BDI는 고용보호의 완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BDI는 독일의 지방 분권주의가 경쟁을 촉진하는 대신에 이권을 다투는 플랫폼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의사 결정과정을 보다 신속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10. 경제동향 및 전망/2005년 1/4분기

할레 소재 독일 경제 연구소(IWH)는 2005년 1분기 성장률을 당초 발표한 수치인 1.7% 보다 낮은 1.1%로 발표하였다. IWH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2004년 말에 하락세를 기록한 GDP, 올해에 들어 50달러 선을 넘었던 국제 원유가, 500만명을 돌파한 실업자수 등을 들었다. 그러나 많은 경제 연구소들은 향후 경기추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독일뿐만 아니라 일본과 다른 유럽 국가들도 2004년 말 이후 현재까지 경기불황을 겪고 있지만, 미국이나 중국 등 호황을 겪고 있는 국가들의 영향에 힘입어 올해 들어 회복세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주요 핵심인 이들 국가의 높은 수익률과 생산율, 사상 최저 수준의 달러금리로 유로국가들의 이자율은 낮아질 것이며 이를 통해 독일의 투자-소비율의 증가가 예상된다. IWH가 예상하는 소비율을 살펴보면 2004년에는 실제 소비율은 -0.4%를 기록하였고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0.7%와 1.3%를 예상하고 있다. 2004년 -0.9%를 기록한 투자증가율은 2005년에는 1.2%, 2006년에는 1.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호황을 겪고 있는 세계경제가 금년 중 큰 변화를 겪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올해 들어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조정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달러/유로 환율이 적어도 높은 수준이던 1.35보다 낮은 환율을 유지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독일 수출업계는 올해 작년에 비해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전경련에 해당하는 독일 산업협회(BDI)는 철강, 전자, 기계 및 자동차 산업부분의 강세가 올해에도 유지될 전망이며, 섬유-건축 산업부분은 올해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약세를 보였던 내수경기도 올해부터 점차 회복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올해 들어 사회복지 정책을 개선하여 Hartz IV라고 불리는 사회 복지 개혁안을 실시하였다. 이 개혁안은 실업급여와 생활 보조금을 하나로 통일 시키는 법안으로써 생활보조금 수혜자 중 노동력을 지닌 사람들은 실업자로 분류하여 실업급여만 받게 하는

제도이다. 이 Hartz IV를 통해 실업률은 430만에서 520만 명으로 증가 하였고, 올해 상반기에 다시 500만 명 이하로 내려 갈 것으로 예상 된다.

독일 노동시장은 저렴한 임금의 동유럽 국가들과의 경제입지 경쟁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독일 노동시장의 회복은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자료원: 독일 경제연구소(2005. 3), BDI(2005. 3)

## 11. 경제동향 및 전망/2005년 2/4분기

### 獨 내수경기, 아직은 불씨 남아

독일의 1/4분기 GDP 성장률은 4년 만에 상승세를 나타냈다. 목요일(12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4분기 독일 국내 총생산은 지난 분기 대비 1% 성장했으며, 2001년 1/4분기 이후 최고치이다.

실제 나타난 GDP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으나, 2005년 1/4분기는 전년대비 노동일수가 이를 적었다는 월별 요인을 감안하면 독일의 국내 총생산은 전년에 비해 1% 정도 성장했다.

### 獨 경제, 더 이상 세계경제에 영향 받지 않아

히포-페어아인스 은행의 안드레아 레스 연구원은, “올해 독일 경제는 스타트가 좋았다. 그러나 이제 쑥정이와 알짜를 구별해야 할 때다. 지난해 4/4분기 과소평가되었던 성장세는 올해 1/4분기에는 월별 요일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내수 경기, 특히 투자 부문에 생존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민간 소비가 여전히 침체되어 있다는 사실은 실망스럽고 놀라움까지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독일 경제는 이제 더 이상 세계 경제에 의존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고 밝혔다.

### 경기 활성화 요인은 오직 “수출”

2005년 1/4분기에 경기가 활성화된 것은 전적으로 수출 흑자 덕분이다. 수출은 대폭 증가한 반면, 수입은 줄어들었다. 이 결과, 통계에서도 나타나듯이 무역수지 흑자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국내 소비는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증가세를 보인 것은 설비 투자와 기타 시설 투자 뿐이며, 전년 대비 국내 소비는 감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분은 수출흑자의 증가를 통해 완전히 상쇄되었다. 연방 통계청에 의하면, 2005년 1/4분기 국내 총생산은 38.6백만명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작년 보다 2십만 3천명(0.5%) 많은 수치이다.

### 경제학자들, 놀라움을 표시

바덴 뷔르템베르크주 중앙은행의 옌스 올리버 니클라쉬는 1/4분기 독일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니클라쉬는 “거의 할 말을 잃을 정도로 놀랍다. 원래는 독일 경제가

약 0.5%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불안 요인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2/4분기에는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한해동안의 성장 전망치는 1% 정도인데, 이러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인가 속고하던 중에, 1/4분기 수치가 발표되어 기존의 낙관적인 전망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 자료원: FAZ On-line (2005. 6.)

## 12. 경제동향 및 전망/2005년 3/4분기

### 3/4분기중 산업현황과 영업환경지수 낮아져

독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소인 Ifo는 독일의 산업현황이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있으며, 영업환경 역시 좋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총 7000여 독일기업을 대상으로 영업환경, 산업현황, 향후 경기 기대치 등 총 3개 항목의 지표를 종합하는 8월 보고서에서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일시적인 지표 하락이 보여 3/4분기 경제전망치가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산업현황은 전달의 94.9에서 93.8로 낮아졌으며, 경제환경 역시 전달의 95에서 94.6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단지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치는 95에서 95.4로 높아졌다.

###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3/4분기 경제전망치 낮아져

3/4분기 경제전망치가 낮아진 이유로는 미국 허리케인피해로 인한 유가상승에 기인한 바가 크다, 그러나 9월 18일 독일조기총선 결과에 대한 재계 불안감은 이번 지표에서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경제 기대치가 상승한 것은 많은 독일 기업들이 지금과 같은 고유가 행진이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은 것이라는 기대감의 표출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현재의 고유가 행진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유가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70년대, 80년대에 비하여 크게 축소되었다고 많은 독일기업들은 판단하고 있다.

### 물가상승율은 예상치보다 낮아

이를 반증하듯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2005년도 물가상승율은 7월의 2%에 비하여 8월에는 1.9%로 낮아진 상태이다. 이는 즉 기업들이 지금까지의 마진을 줄이며 원자재 가격인상을 대처하는 것으로 보인다.

### 3/4분기 경제전망치는 0.5%, 2005년 전체 전망치는 0.9%로 예상

DIW(독일경제연구소)의 원장인 Zimmermann씨는 3/4분기중 독일의 경제성장율은 0.5%대를 유지하고 2005년 전체 경제성장율은 0.9%를 달성하여 전반적으로 완만한 성장곡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원: Handelsblatt지 8월 말

### 13. 한국과의 무역관계

#### < 한-독 관계 >

통독전 서독정부와 한국과의 국교 교류가 1955년 이루어짐에 따라 양국은 분단으로 인한 동병상련의 관계로 동지적인 결속을 하게 되었으며 한국정부는 1960년대까지 서독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였던 Hallstein 정책을 지지하고 서독정부도 한국정부의 대북한 정책을 적극 지지하였다. 서독정부는 전후 한국의 경제부흥을 위하여 재정, 경제 및 기술원조를 제공하였고, 한국은 서독의 경제재건에 필요한 노동력 지원요청에 따라 한국 간호원 및 광부를 파견, 상호 협조관계를 발전시켰다. 통독 전 서독정부는 한반도가 극동에서 미.중.소.일 4대 강국의 이해가 교차하는 지역으로서 세계 전략적 차원에서 한반도의 안정이 유럽의 안정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통일 후에도 독일정부는 분단 극복을 위해 노력중인 한국의 입장을 이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유엔가입도 적극 지지하였다.

'90.10.3. 통일에 따라 과거 동독의 대북한 관계는 종료되었으며, 독일은 잠정조치로서 북한과 상호이익 대표부를 설치한 바 있다. 또한 독일정부는 최근 북한의 핵 개발사찰은 물론, 남.북한 상호사찰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한국측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2000.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면에서 북한과의 교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2001.3.1. 북한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 < 교역규모 >

한.독 양국간 교역은 '80년 이래 연평균 12%의 꾸준한 성장률을 보였다.'80년대 중반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후 곧 이러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교역규모가 일시적으로 3.9%로 감소세를 보인 '92년을 고비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95년에는 양국간 교역규모가 처음으로 100억불 규모를 넘어섰다. '90년대 들어 한국의 대독수출은 '92년 한때 2억불 감소된 적이 있었으나 '93년부터는 전년 대비 연 20% 증가하였다.'95년에는 약 60억불을 수출하여 전년 대비 38.3%라는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96년 다시 전년대비 21.1% 감소세를 보이다가 '97년에는 1.0%로 포함세를 '98년에는 -15.7% 감소한 40억불 수출에 그쳤다. '99년에는 전년대비 4.4% 증가한 41억 8,400만불을 수출하였으며, 2000년에는 전년 대비 23.2%증가한 50억 1,538만불을 기록하였으나, 2001년에는 전년대비 16.1% 감소한 43억 2,176만불에 그쳤다. 최근 한국의 대독수출은 2003년부터 30% 이상의 수출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중에는 수출 79억 6천만불, 수입 82억불을 기록하며 총 161억불을 기록 최초로 연간 교역규모가 150억불을 초과하였다.

한편 한국의 대독 교역은 '89년 이후 계속적으로 입초현상을 보이고 있었으나 2005년 7월 현재 수출 60억 6천만불, 수입 54억 4천만불로 16년만에 무역 흑자기조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무역기조에 따라 '98년에는 독일은 미국, 일본, 중국, 홍콩, 호주에 이어 한국의 6위 교역대상국으로 하락하였으나 2005년에는 중국, 미국, 일본, (대만)에 이어 한국의 4위 또는 5위 교역대상국(홍콩제외)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독일 총수출 8,930억불 중 대한수출은 82억불로서 독일 총 수출 중 0.95% 비중이며, 한국은 독일의 제20위 수출 대상국, 아시아 국가 중 중국, 일본에 이어 3위 수출 대상국이다. 같은 기간 독일 총수입 7,170억불 중 대한 수입은 79.6억불로서 독일 총 수입

중 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독일의 제19위 수입 대상국이자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 일본에 이은 3위의 수입 대상국이다.

< 교역품목 >

우리나라의 대독 수출품목은 반도체, 선박,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석유류 등 6대 품목이 전체의 68%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품목 편중현상이 두드러진 편이다. 2004년 대독수출 호조 품목으로는 무선통신기기 (전년 대비 증가율 154.1%), 반도체 (22.8%), 액정 모니터(89.9%), 선박 (77.8%), 자동차 (72.4%), 영상기기 (24.7%), 자동차부품 (56.6%),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98.9%), 고무제품 (22.5%) 등이다.

우리나라의 대독 수입품목도 자동차, 자동차부품, 반도체, 기계류, 정밀화학원료 등에 편중되어 있다. '98년 중에는 IMF 한파로 인한 기계류, 전기 및 전자제품 등 투자재의 수입 급감으로 대독 수입도 상당한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99년부터 수입이 회복되었다. 그러나 2001년부터 감소로 반전되었다.

< 한국상품에 대한 EU의 보호주의 압력 >

외환 위기 후 한국상품의 경쟁력이 강화됨에 따라 자동차, 철강 및 조선분야에서의 EU 차원 또는 독일차원에서의 보호주의 내지는 시장개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한국 전체 자동차시장에서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함을 들어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강하게 국내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철강의 경우 한국의 경기회복으로 국내수요가 증가하여 EU 수출물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따라 문제가 해소된 상태이다.

그러나 조선의 경우, 아시아 위기에 따라 세계 조선 경기는 부진하나 한국은 엔화에 대한 원화의 이점 및 국내임금의 상대적 안정세를 배경으로 경쟁력이 강화되어 세계시장에서의 수주량이 급증함에 따라 EU 특히 독일 조선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 자료원: 독일전시협회 홈페이지([www.auma.de](http://www.auma.de), 2005. 9),  
메세프랑크푸르트 홈페이지([www.messefrankfurt.de](http://www.messefrankfurt.de), 2005. 9),  
연방통계청 홈페이지([www.statistik-bund.de](http://www.statistik-bund.de), 2005. 9)

## 14. 한국과의 투자관계

< 투자관계 >

1999년 9.6억불(61건), 2000년 16억불(111건) 등 IMF 이후 증가했던 독일의 대한 투자는 2001년 4.6억불(61건)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2002년에는 총 68건 2억 8천4백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금액 기준 62% 감소했다. 독일은 과거에는 아시아권의 경우 중국 및 인도네시아 등 ASEAN지역 진출이 두드러졌으며,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개혁 및 투자환경 개선에 따라 독일의 대한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2002년에는 다이물러 크라이슬러의 상용차 부문 및 승용차 판매법인 설립, BASF의 군산 비타민 공장, Allianz의 제일생명 투자 등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었다. 2003년 하반기부터는 Hella-Behr 등 자동차 부품사, Thyssen Krupp 엘리베이터의 신규투자 증가로 대한투자가 회복세에 들어섰으며, 2004년에도 지멘스, Deutsche Bank등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독일 대한투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기업의 대한투자는 2004년 95건, 4억 8천 7백만불을 기록, 건실한 투자 증가세를 시현한 바 있다.

독일은 화학, 기계, 자동차, 환경, 의약품이 중심산업인 바, 동 업종의 투자유치가 유망하며, 특히 환경산업분야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진출을 추진중인 기업이 많은 바, 이들에 대하여 한국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별 산업특화가 뚜렷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에서는 환경, 에너지 산업이, 바이에른 주에서는 전자, 자동차 부품이, 바덴 뷁르템베르크 주에서는 기계, 엔지니어링, 자동차 부품설비 산업이 투자유치에 유망하다.

### < 현안사항 >

(사회보장 협정 체결)

2002. 10. 30 한독 양국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 그 중 어느 한 나라의 사회보장제도만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양국간에 상호 파견되는 근로자 및 관련 기업의 사회보장세 납입 부담이 경감된다. 지금까지 독일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와 진출기업은 독일과 우리나라에 이중으로 사회보장료를 납부하여 왔으나, 이 협정의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에만 사회보장료를 납부하게 됨으로써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학교 수용능력 확대)

외국인학교의 수나 수용능력이 제한적이어서 주재원 자녀중 취학아동이 최대 몇 개월씩 기다려서 입학하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투자 비자 획득 애로)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양해각서(발효 2005.01)에 따라 한국에서 별도의 취업비자 취득없이 현지에서 비자를 취득하게되는 등 전반적인 비자발급이 간소화 되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인의 비즈니스 이외 목적(자녀교육 등)을 위한 회사설립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독일의 비자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있다. 비자발급 관청은 투자지역 상공회의소의 심사결과를 중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동 심사는 투자업종의 해당 지역 고용창출, 경제 기여도를 주요 잣대로 삼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회사설립과 관련된 비자발급은 소요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리거나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자료원: 독일 투자청 홈페이지([www.business-in-germany.de](http://www.business-in-germany.de), 2005. 9), Invest Korea (2005. 9)

### < 주한 주요 독일 투자기관 연락처 >

\* 바이에른주(Bayern) 한국 사무소

- 대표: 박종대
- 담당자: 김수진
- 주소 :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6번지 내외빌딩 12층

- 전화 : 775-7436,7437
- 팩스 : 778-1269
- 이메일 : [info@invest-in-bavaria.or.kr](mailto:info@invest-in-bavaria.or.kr)
- 홈페이지 : [www.invest-in-bavaria.or.kr](http://www.invest-in-bavaria.or.kr)

\* 브레멘(Bremen) 한국 사무소

- 대표자 : 최병호
-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1
- 전화 : 527-4480~1
- 팩스 : 527-4482
- 이메일 : [korea@bbi-rep.com](mailto:korea@bbi-rep.com)
- 홈페이지 : [www.big-bremen.de](http://www.big-bremen.de)

\*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 한국 사무소

- 대표자 : 김흥현
- 담당자 : 윤경희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8-21, 한국비즈니스빌딩 1409호
- 전화 : 3473-1805~6
- 팩스 : 3473-1807
- 홈페이지 : [www.nrw.co.kr](http://www.nrw.co.kr)
- 이메일 : [nrw@nrw.co.kr](mailto:nrw@nrw.co.kr)

## 15. 출입국/비자/출입국, 비자

### <비자>

2005년 1월 발효된 상호 비자면제협정에 의하여 3개월 미만 관광목적으로 체류시 비자가 면제된다. 그러나 3개월 이상 혹은 경제활동의 목적으로 체류 시에는 비자가 필요하며, 비자발급 업무는 독일 현지 외국인청에서 전담한다. 별도의 주한 독일대사관을 통하여 비자 취득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비자발급이 3개월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주재원들의 경우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볼 수 있다. 독일 내 취업시는 비자 외에 노동 허가증 (Arbeitserlaubnis)이 필요하며 부임 후 곧바로 관할 노동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비자발급시 구비서류)

국내 신청시 : 비자신청서, 호적등본, 여권, 사진2매  
독일내 신청시 : 거주신고서 사본, 체류허가신청서, 여권, 사진2매  
(성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외국인청에 출두 신청)

(비자발급처 : 독일에서 비자 신청시 각 거주지역의 외국인청)

(비자발급처 : 한국내에서 신청할 시 주한 독일 대사관)

주 소 :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308-5

전 화 : 02-748-4114, 팩스 : 02-748-4161

휴 일 : 토, 일요일, 독일 및 한국 공휴일

업무시간 : 월-목09:00-12:00, 금 08:30-11:30

소요일수 : 6-8주

소요비용 : 30,000원 (환율변동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

### <출입국 절차>

출입국시 특별한 절차는 없다.

입국시 입국심사-세관의 순서로 절차를 밟으며, 입국 심사시 EU와 비EU국을 구분하여 여권을 검사한다. 짐검사는 신고할 물건이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구분하여 검사대를 설치해 놓았으나 보통 검사없이 입국하고 있다. 입국에 따른 예방접종은 필요없다. 최근 전시회 개최시 전시품을 핸드 캐리하는 참가업체가 많아 짐에 따라 일반인들의 검색도 심해지기도 한다. 특히 주의사항은 담배에 대한 통관시 검사가 철저하여, 1보루 이상 소지시 관세 대상임을 주지하기 바람.

\* 자료원: 주한 독일 대사관, 무역관 보유자료(2005. 9)

## 16. 환전

화폐단위는 유로 (Euro)로서 약칭은 EUR이며, 1유로는 100 센트이다. 지폐에는 5, 10, 20, 50, 100, 200, 500 액권이 있으며, 이중에서 10, 20, 50유로 지폐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200유로 및 500 유로 지폐는 대부분 상점에서 잘 받지 않는다. 주화에는 1, 2, 5, 10, 50 센트가 있다. 2002.1.1부터 유로화가 공용화폐로 전면 도입, 사용되고 있으며, 독일 마르크화는 2002. 2. 28까지 지불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기존 마르크화를 소지하고 있는 한인들은 독일 연방은행이나 주정부은행에서 유로화로 환전 가능하니 참조바람.

특히 독일의 경우, 미국달러가 통용되지 않으며 환전시 환전수수료가 매우 많아 큰 손해가 있으니 참조바람.

2005. 9. 14일 현재 1 유로화당 달러환율은 1.2314이다. (원화환율 : 1유로 = 1258.54원, 2005. 9. 14 외환은행 기준율)

**2003년도 유로화 대달러 월별 평균환율**

|            |            |
|------------|------------|
| 1월 1.0589  | 7월 1.1341  |
| 2월 1.0743  | 8월 1.1105  |
| 3월 1.0773  | 9월 1.1192  |
| 4월 1.0814  | 10월 1.1667 |
| 5월 1.1545  | 11월 1.1669 |
| 6월 1.16327 | 12월 1.2241 |

**2004년도 유로화 대달러 월별 평균환율**

|           |            |
|-----------|------------|
| 1월 1.2613 | 7월 1.2039  |
| 2월 1.2646 | 8월 1.2111  |
| 3월 1.2262 | 9월 1.2409  |
| 4월 1.1985 | 10월 1.2737 |
| 5월 1.2007 | 11월 1.3247 |
| 6월 1.2155 | 12월 1.3604 |

**2005년도 유로화의 대달러 월별 평균환율**

|           |           |
|-----------|-----------|
| 1월 1.2613 | 5월 1.2694 |
| 2월 1.3035 | 6월 1.2165 |
| 3 1.3201  | 7월 1.2037 |
| 4 1.2938  | 8월 1.2292 |

환전은 공항, 호텔, 은행 또는 거리의 환전소에서 할 수 있으나 정식 은행을 통해 환전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공항도착 시 공항에서 환전하는 것이 좋다. 일부 은행에서는 100불 이상의 고액권에 대해서는 환전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므로 환전한 현지화가 부족할 경우 크레디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환율에서 유리하다.

\* 자료원: 독일 연방은행([www.bundesbank.de](http://www.bundesbank.de), 2005. 8)  
유럽 중앙은행([www.ecb.int](http://www.ecb.int), 2005.8)

## 17. 기후

### <기후특성>

온대성기후에 속하며 연평균 기온은 섭씨 7-10도 수준이다. 겨울철 평균 기온은 저지대는 섭씨 1.5도, 남쪽의 산악지대는 영하 6도이며, 여름철 평균기온은 섭씨 18-20도 사이이다. 따라서 한국에 비해 겨울에는 덜 춥고 여름에는 덜 덥다.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비와 안개가 많으며 여름철에는 건조하다.

### <출장시 추천복장>

사계절이 한국과 비슷하므로 한국 기준으로 복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겨울에는 우기여서 비가 거의 매일 오므로 외투와 우산을 준비해야 하며, 여름에도 8월 중순이후에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므로 긴팔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2003년 에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흑서가 전독일을 강타, 최고기온이 40도 이상을 상회하기도 하였다.

\*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2005. 9)

## 18. 공휴일

독일 전국적으로 공휴일은 1년에 11일이며, 기타 각주별로 별도의 공휴일이 지정되어 있으나, 같은 주 내에서도 천주교 및 개신교의 우세 정도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별로 공휴일이 다른 경우가 있다. 여름방학은 대체로 6월 하순부터 7월말-8월초까지이며 각주별로 차이가 있다.

### 2005년도 독일 공휴일

| 일시       | 공휴일명  | 대상지역 (주별)   |
|----------|-------|---|
| 1.1      | 신년    | 독일 전역   |
| 1.6      | 주현절   | Baden-Wuerttemberg, Bayern, Sachsen-Anhalt  |
| 3.25-28  | 부활절   | 독일 전역   |
| 5.1      | 노동절   | 독일 전역   |
| 5.5      | 예수승천일 | 독일 전역   |
| 5.16     | 성령강림절 | 독일 전역   |
| 5.26     | 성체축일  | Baden-Wuerttemberg, Bayern, Hessen, Nordrhein Westfalen, Rheinland-Pfalz, Saarland, Sachsen |
| 8.15     | 성모승천일 | Bayern, Saarland  |
| 10.3     | 통일기념일 | 독일 전역   |
| 10.31    | 종교개혁일 |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Sachsen, Sachsen-Anhalt, Thuringen                     |
| 11.1     | 諸聖日   | Baden-Wuerttemberg, Bayern, Nordrhein-Westfalen, Rheinland-Pfalz, Saarland                  |
| 12.25-26 | 성탄절   | 독일 전역   |

상기 휴일이외에 부활절 주간(4월 중순), 여름 휴가철(7월- 8월), 성탄절(12월 중순-하순)에는 대부분의 관공서, 은행, 기업이 휴가를 실시하므로 담당자와 접촉하기가 매우 어려운 기간이다. 따라서 이 기간은 피해 출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2005. 9)

## 19. 시차/근무시간/시차, 근무시간

### <시차>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KST-8시간으로 한국이 24:00시일 때 독일은 16:00이다. 3월 마지막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 토요일까지는 썸머타임을 실시하여 한국과의 시차가 7시간으로 줄어든다. 현재 독일과는 썸머타임기간으로 시차는 7시간이다.

### <근무시간>

일반직장의 근무시간은 일반적으로 평일은 08:00-17:00가 많으나, 직장이나 개인에 따라서 좀더 일찍 시작하고 빨리 끝나는 경우도 많다. 금요일에는 평일보다 1-2시간 빨리 종료하는 것이 보통이다.

관공서는 08:00-12:00까지만 대민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고 요일에 따라 오전, 오후로 나누어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은행 개정시간은 08:30-13:00, 14:30-16:00이나 은행에 따라서는 화요일, 목요일오후 18:00까지 개정하는 곳도 있다.

상점들의 개폐점 시간은 법률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데, 일반상점은 2003.6.1일부터 평일과 토요일 모두 08:00-20:00로 변경되었다.(기존 토요일 개정시간 08:00-16:00) 그러나 작은 상점들은 폐점 시간보다 1-2시간 앞당겨 문을 닫는 경우도 많다. 단, 대도시의 중앙역이나 공항 내의 슈퍼마켓, 상점, 그리고 주유소 간이매장은 개폐점 시간에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보통 23시까지 영업을 하며, 대형 유통점의 경우에도 점점 개정시간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제과점 역시 신선한 빵 제공을 위해 일요일 오전 영업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2005. 9)

## 20. 호텔

호텔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으로는 Deutsche Zentrale fuer Tourismus (Beethovenstr. 69, 60325 Frankfurt)가 있으며 전화번호는 49-(0)69-75720, 팩스번호는 49-(0)69-751056이다. 기타 각 자치단체 단위의 관광청 (Verkehrsamt)에서도 호텔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으로는 [www.hrs.de](http://www.hrs.de) (Hotel Reservation System), 또는 [www.hotel.de](http://www.hotel.de)를 통하여 저렴하게 예약 할 수 있다. 아울러 프랑크푸르트 지역에서는 아래의 리스트중 Inter Continental Hotel이 1일 139유로(조식포함)로 계약을 맺고 있으니, 주요전시회 및 행사기간을 제외하고 이용할 수 있으니 참조바람.(KOTRA를 통하고 있음을 사전에 제시하기 바람)

| 호텔명                     | 주소                      | 전화번호         | 기타   |
|-------------------------|-------------------------|--------------|------|
| (프랑크푸르트지역)              |                         |              |      |
| Frankfurter Hof         | Am Kaiserplatz          | 069-21502    | 별5   |
| Arabella Grand          | Friedberger Str. 32     | 069-29810    | 별5   |
| Intercontinental        | Wilhelm-Leuschner-Str43 | 069-26050    | 별5   |
| Hilton Frankfurt        | Hochstrasse 4           | 069-1338000  | 별5   |
| Sheraton Frankfurt      | Hugo-Eck 15             | 069-69770    | 별5   |
| Maritim                 | Theodor-Heuss-Allee 3   | 069-610631   | 별4   |
| Moevenpick              | Wiesenuettenplatz 28    | 069-227370   | 별4   |
| Excelsior               | Mannheimer Str. 7-9     | 069-2560801  | 별3   |
| Intercity               | Poststrasse 8           | 069-273910   | 별3   |
| Mercator                | Mercator Str. 38        | 069-490691   | 중급   |
| Monopol                 | Mannheimer Str. 11-13   | 069-227370   | 중급   |
| Attache                 | Kolnerstr. 10           | 069-730282   | 중급   |
| Shilla                  | Kennedyallee 61         | 069-6312460  | 중급   |
| (함부르크 지역)               |                         |              |      |
| Vier Jahreszeiten       | Neuer Jungfernstieg 9   | 040-34943181 | 별5   |
| Elysee Hotel Hamburg    | Rothenbaumchaussee 10   | 040-41412-0  | 별5   |
| Dorint Am Alten Wall    | Alter Wall 40           | 040-369500   | 별5   |
| Europaeischer Hof       | Kirchenallee 45         | 040-248248   | 별5   |
| InterContinental        | Fontenay 10             | 040-41420    | 별5   |
| Madison Residenz        | Schaarsteinweg 4        | 040-376660   | 별4   |
| Hotel Residenz Hafen    | Seewartenstr. 9         | 040-31119-0  | 별4   |
| Continental Hotel       | Kirchenallee 37         | 040-284430   | 별3   |
| Ambassador Hotel        | Heidenkampsweg 34       | 040-2388230  | 별3   |
| Hotel Berlin            | Borgfelderstr. 1-9      | 040-251640   | 별3   |
| (원헨 지역)                 |                         |              |      |
| Continental             | Max-Joseph-Str. 5       | 089-551570   | 별5   |
| Bayerischer Hof         | Promenadeplatz          | 089-21200    | 별4   |
| Vier Jahreszeiten       | Maxmilianstr.           | 089-230390   | 별3   |
| Excelsior               | Schuetzenstr. 11        | 089-551370   | 별3   |
| Mercure Muenchen-Orbis  | Karl-Marx-Ring 87       | 089-390550   | 별4   |
| Admiral                 | Kohlstrasse 9           | 089-216350   | 별4   |
| Crowne Plaza            | Leopoldstrasse 194      | 089-381790   | 별4   |
| (베를린 지역)                |                         |              |      |
| Adlon Berlin            | Unter den Linden 77     | 2261-1111    | 별 5+ |
| The Regent Schlosshotel | Brahmsstr. 10           | 030-895840   | 별 5+ |
| Grand Hotel Esplanade   | Loetzuufer 15           | 030-214050   | 별 5+ |
| Grand Hyatt Berlin      | Marlene-Dietrich-Pl.2   | 2553-1234    | 별 5+ |
| Hotel Palace Berlin     | Budapest Str 45         | 030-25020    | 별 5+ |
| Kempinski               | Kurfuestendamm 27       | 030-884340   | 별5   |
| Inter-Continental       | Budapester Str. 2       | 030-26020    | 별5   |
| Ambassador              | Bayreuther Str. 3       | 030-219020   | 별3   |
| Schweizer Hof           | Budapester Str. 21      | 030-26960    | 별4   |
| Alsterhof Berlin        | Fasanenstr. 9           | 030-311030   | 별4   |
|                         | Augsburger Str. 5       | 030-212420   | 별4   |
| (Koeln 지역)              |                         |              |      |
| Altea Hotel Serinhof    | Severinstr. 199         | 0221-20130   | 별5   |
| Arcade Hotel            | Neue Weyerstr. 4        | 0221-20960   | 별5   |
| Domgarten               | Domstr. 26              | 0221-120303  | 별3   |
| Excelsior Hotel Ernst   | Domplatz                | 0221-2701    | 별3   |
| Flandrische Hof         | Flandrischer Str. 3-5   | 0221-252095  | 별3   |
| Novotel Koeln West      | Horweller Str. 1        | 02234-5140   | 별3   |

\*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2005. 9)

## 21. 식당

### <한식>

| 식당명              | 주소                           | 전화번호          |
|------------------|------------------------------|---------------|
| <프랑크푸르트>         |                              |               |
| 신라 (Shilla)      | Kennedyallee 61, Frankfurt   | 069-636520    |
| 서울관(Seoul)       | Toengesgasse 11, Frankfurt   | 069-233631    |
| 만나(Manna)        | Hahnstr. 85, Frankfurt       | 069-6661880   |
| 아리랑(Arirang)     | Muenchenerstr. 46, Frankfurt | 069-24271778  |
| 불고기(Bulgogi)     | Dreikoenigstr. 4, Frankfurt  | 069-66126678  |
| 한일관(Han-Il Kwan) | Marktplatz 1-2, Schwalbach   | 06196-85737   |
|                  |                              |               |
| 서울관(Seoul kwan)  | Kurfuerstendamm 165, Berlin  | 030-8812121   |
| 한일관(Hanil Kwan)  | Schmiljanstr. 25, Berlin     | 030-8526262   |
| 코리아나 (Koreana)   | Hohenzollerndamm 50, Berlin  | 030-823 2975  |
| 호도리 (Hodori)     | Beusselstr. 26, Berlin       | 030-396 2836  |
| 궁전(Gung Jeon)    | Goebenstr. 16-17, Berlin     | 030-2153562   |
| 진생(Gin Seng)     | Kurfuerstendamm 134, Berlin  | 030-8954-1892 |
| 서울(Seoul)        | bamberger Str. 49            | 030-213-4940  |
|                  |                              |               |
| 한국관(Korea)       | Leopoldstr. 120, Muenchen    | 089-348104    |
|                  |                              |               |
| 김치식당             | Emilienstr. 22, Hamburg      | 040-493871    |
| 복식당              | Schulterblatt 3, Hamburg     | 040-4306781   |

### <이태리식>

| 식당명                | 주소                             | 전화번호        |
|--------------------|--------------------------------|-------------|
| <프랑크푸르트>           |                                |             |
| Osteria-Enoteca    | Arnoldshainer Strasse 2,       | 069-7892216 |
| Casa Isoletta      | Bleidenstrasse, 13, Frankfurt  | 069-284487  |
|                    |                                |             |
| Ana e Bruno        | Sophie-Charlotten-Str. 101     | 030-3257110 |
|                    |                                |             |
| Galleria           | Sparkassenstr. 2, Muenchen     | 089-297995  |
|                    |                                |             |
| LA VITE            | Heimhuderstr. 5, Hamburg       | 040-458401  |
| Ristorante Palazzo | Rothenbaumchaussee185, Hamburg | 040-4102277 |

<독일식,양식>

| 식당명                      | 주소                              | 전화번호         |
|--------------------------|---------------------------------|--------------|
| <프랑크푸르트>                 |                                 |              |
| Bistrot 77               | Ziegelhuettenweg 1-3, Frankfurt | 069-614040   |
| Erno's Bistro            | Liebigstrasse 15, Frankfurt     | 069-721997   |
| Gargantua                | Liebigstrasse 47, Frankfurt     | 069-720717   |
| Humperdinck              | Grueneburgweg 95, Frankfurt     | 069-97203154 |
| Maingau                  | Schifferstr. 38, Frankfurt      | 069-609140   |
| Tigerpalast-Restaurant   | Heiligkreuzgasse 16-20, FfM     | 069-92002225 |
| Weinhaus Brueckenkeller  | Schuetzenstrasse 6, Frankfurt   | 069-2980070  |
| Apfelwein Klaus          | Meissengasse 10, Frankfurt      | 069-282864   |
| An'ne Bell               | Kaistrasse 16 a, Duesseldorf    | 0211-3006750 |
| Savini                   | Hafen-Stromstrasse 47, D' dorf  | 0211-393931  |
| VAU                      | Kaistrasse 16 a, Duesseldorf    | 0211-3006750 |
| An'ne Bell               | Hafen-Stromstrasse 47, D' dorf  | 0211-393931  |
| Alt Luxemburg            | Windscheidstrasse 31, Berlin    | 030-3238730  |
| Bamberger Reiter         | Regensburger Strasse 7, Berlin  | 030-2184282  |
| Brandenburger Hof-Die    | Eislebener Str.14,Berlin        | 030-21405650 |
| Quadriga                 | Gottfr. v. Crammweg 47, Berlin  | 030-8253810  |
| Grand Slam               | Koenigstr. 36, Berlin           | 030-8054000  |
| Schloss Glienicke-Remise | Jaegerstrasse 54-55, Berlin     | 030-2029730  |
| Savini                   | Muehlbaurstr. 36, Muenchen      | 089-4704848  |
| Acquarello               | Promenadeplatz 2-6, Muenchen    | 089-2120993  |
| Bayerischer Hof          | Amalienstr. 89, Muenchen        | 089-281780   |
| Bistro Terrine           | Ismaniger Str. 85, Muenchen     | 089-985586   |
| Bogenhauser Hof          | Kapuzinerstr. 29, Muenchen      | 089-534043   |
| Gasthaus Glockenbach     | Schoenfeldstr. 22, Muenchen     | 089-266228   |
| Halali                   | Karlsplatz 25, Muenchen         | 089-551360   |
| Koenigshof               | Rablstr. 10, Muenchen           | 089-4484477  |
| Massimiliano             | Am Tucherpark 7, Muenchen       | 089-38450    |
| Muenchen Park Hilton     | Neureutherstr. 15, Muenchen     | 089-2712406  |
| Anno 1905                | Holstenplatz 17, Hamburg        | 040-4392535  |
| Friesenkeller            | Jungfernstieg 7, Hamburg        | 040-35760620 |

\*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2005. 6)

## 22. 교통/통신/교통,통신

### <우리나라와의 교통>

서울 - 프랑크푸르트간 대한항공이 주 7회, 아시아나 항공이 주 4회, Lufthansa가 주7회 Non-Stop 직항로로 각각 운항되고 있다.

○ Frankfurt --> 서울

| 기 편    | 일 시   | 출발요일       | 도착시간(익일) |
|--------|-------|------------|----------|
| LH 718 | 17:55 | 매일         | 11:05+1  |
| KE 906 | 19:45 | 매일         | 13:15+1  |
| OZ 542 | 19:00 | 월, 수, 금, 일 | 12:30+1  |

○ 서울 --> Frankfurt

| 기 편    | 일 시   | 출발요일       | 출발시간(당일) |
|--------|-------|------------|----------|
| LH 719 | 18:45 | 매일         | 14:35    |
| KE 905 | 17:35 | 매일         | 13:15    |
| OZ 541 | 17:00 | 월, 수, 금, 일 | 12:30    |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하면 동 공항에서 독일 각지로 항공편, 기차편으로 각각 연결되며 대한항공은 Frankfurt 공항 제2청사 착발, 아시아나 항공과 Lufthansa는 Frankfurt 공항 제1청사에서 착발한다.

### <국내교통>

(철도)

독일의 각 도시가 95년 민영화된 연방철도 주식회사 (DB AG)의 철도로 연결된다. ICE, IC 등이 주요도시를 운행하며, 철도요금은 한국의 약 3-4배이다. 만원인 경우가 전무하며 휴가 내지 연휴기간에도 즉시 구입이 가능하다.

주말의 만 48시간 (토요일 0시-일요일 24시)의 철도 여행시 1인은 물론 일행 (5명 이내)도 28유로짜리 주말티켓 (Wochenende-Ticket) 한 장으로 준급행급 이하의 모든 열차 (RE, RB, SE, S)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무제한 탑승할 수 있다.

(자동차)

독일은 전체구간의 약 50%가 속도제한 없는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을 통해 각 지역이 연결되며, 1일 약 150~200유로로 2,000cc급 자동차를 보험료를 포함하여 렌트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은 한국에서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오면 된다. 독일의 고속도로에는 톨게이트비가 없으니 참조바람.

(택시)

택시는 기차역 앞 등에는 항상 대기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콜택시이므로 전화로 주문해야 한다. 프랑크푸르트의 경우, 주문 전화번호는 069-230001 또는 069-250001이다.

기본 요금은 3.80유로이며 거리에 시간을 더한 병산제를 사용하여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공항에서 시내중심지까지 약 30유로가 나온다. 승차정원은 4명이고, 팁을 줄 경우, 약 50센트 정도, 짐을 택시 뒷 트렁크에 실은 경우 약 1유로 정도 지불하면 된다. 영수증은 요구 시 발급해 준다.

<국제통신>

한국으로 국제 전화하려면 국제전화 코드인 00을 돌린 후 국가번호 + 지역번호 + 가입자 번호를 돌리면 된다. (예를 들어 서울의 3460-7141을 걸 경우 00-82-2-3460-7141)

한편 한국으로 수신자 부담 전화도 가능한 바, 이 경우에는 0130 800 082를 돌리면 한국의 교환이 직접 나와 전화를 연결해 준다. 한국으로의 전화요금은 한국보다 비싼 편이므로 한국에서 국제전화 카드를 사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최근 인터넷전화로 1분당 10~15센트로 저렴한 번호(예: 01081,01051)등이 있으니 참조하기 바람(공중전화나 핸드폰으로는 불가능) # 사용법 01081+0082(한국)+2(서울)+3460+7114(KOTRA)

<국내통신>

시내 한 통화에 20센트이며, 전화를 거는 방법은 한국과 동일하다. 호텔에서 전화할 경우 다소 비싼 편이며, 동전 전화기보다는 카드전화기가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전화카드를 구입, 사용하면 편리하다. 전화카드는 우체국 및 가판대, 담배가게에서 구입 가능하며, 20, 30, 50유로짜리 전화카드가 있다. 최근 핸드폰의 대중화로 공중전화 부스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나, 공항, 주요 역, 대형유통점 등에는 대부분 비치되어 있다.

\*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2005. 9)

23. 유용한 연락처

<현지 관공서>

| 기관명           | 전화번호         | 인터넷주소  |
|---------------|--------------|--|
| BfAI (대외무역청)  | 0221-20570   | <a href="http://www.bfai.com">www.bfai.com</a>         |
| BMW (연방경제노동부) | 0228-6150    | <a href="http://www.bmwa.de">www.bmwa.de</a>           |
| 프랑크푸르트 시      | 069-21230600 | <a href="http://www.frankfurt.de">www.frankfurt.de</a> |

<은 행>

| 기관명                                  | 전화번호       | 인터넷주소  |
|--------------------------------------|------------|--|
| Deutsche Bundesbank                  | 069-95661  | <a href="http://www.bundesbank.de">www.bundesbank.de</a>   |
| Hessische Landesbank                 | 069-913201 | <a href="http://www.helabe.de">www.helabe.de</a>           |
| Landesbank Stuttgart                 | 0711-1240  | <a href="http://www.lgbank.de">www.lgbank.de</a>           |
| Norddeutsche Landesbank Girozentrale | 0511-3601  | <a href="http://www.nlb.de">www.nlb.de</a>                 |
| Westdeutsche Landesbank Girozentrale | 0211-82601 | <a href="http://www.wlb.de">www.wlb.de</a>                 |
| Deutsche Genossenschaftsbank         | 069-744701 | <a href="http://www.dgbank.de">www.dgbank.de</a>           |
| Commerzbank AG                       | 069-13621  | <a href="http://www.commerzbank.de">www.commerzbank.de</a> |
| Kreditanstalt fuer Wiederaufbau      | 069-74310  | <a href="http://www.kfw.de">www.kfw.de</a>                 |

<경제단체>

| 기관명                 | 전화번호         | 인터넷주소  |
|---------------------|--------------|--|
| AUMA 박람회 위원회        | 030-240000   | <a href="http://www.auma.de">www.auma.de</a>                 |
| BDI 독일공업협회          | 0221-370800  | <a href="http://www.bdi-online.de">www.bdi-online.de</a>     |
| BGA 도매 및 무역업협회      | 0228-260040  | <a href="http://www.bga-online.de">www.bga-online.de</a>     |
| DGB 독일노조연맹          | 0221-43010   | <a href="http://www.dgb.de">www.dgb.de</a>                   |
| DIHT 독일상공회의소        | 0228-1040    | <a href="http://www.diht.de">www.diht.de</a>                 |
| DIN 독일규격원           | 030-26010    | <a href="http://www.din.de">www.din.de</a>                   |
| Gesamttextil 섬유공업협회 | 06196-9660   | <a href="http://www.gesamttextil.de">www.gesamttextil.de</a> |
| HDE 독일소매업협회         | 0221-9365502 | <a href="http://www.einzelhandel.de">www.einzelhandel.de</a> |
| VDA 독일자동차공업협회       | 089-570070   | <a href="http://www.vda.de">www.vda.de</a>                   |
| VDE 독일전기규격협회        | 069-630330   | <a href="http://www.vde.de">www.vde.de</a>                   |
| VDMA 독일기계공업협회       | 069-66030    | <a href="http://www.vdma.de">www.vdma.de</a>                 |
| ZHD 독일수공업협회         | 0228-5450    | <a href="http://www.zhd.de">www.zhd.de</a>                   |
| ZVEI 독일전기전자공업협회     | 069-63020    | <a href="http://www.zvei.de">www.zvei.de</a>                 |

<한국기관>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대사관                | Schoeneberger Ufer 89-91, 10785 Berlin | 030-260650   |
| 프랑크푸르트<br>총영사관     | Eschersheimer Landstr. 327, 60329 Ffm  | 069-9567520  |
| 재독한인연합회<br>(서성빈)   | Christian Lassen Str. 10a, 53117 Bonn  | 0228-9676680 |
| 재독한인간호협회<br>(백성자)  | Hauptstr. 392, 65760 Eschborn          | 0234-496066  |
| 재독과학기술자협회<br>(김재금) | Heidhauserstr. 197, 45239 Essen        | 0201-1832644 |
| 재독 대한체육회<br>(이유환)  | An der Maarbruecke 49, 44793 Bochum    | 0234-684420  |

<독일 주재 KOTRA 무역관>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프랑크푸르트  | Mainzer Landstr. 27-31, 60329 Ffm        | 069-2429920  |
| 베를린무역관  | Friedrichstr.95 P.O.Box 11, 10117 Berlin | 030-20962637 |
| 뮌헨무역관   | Tal 12, 80331 Muenchen                   | 089-24242630 |
| 함부르크무역관 | Heidenkampsweg 66, 20097 Hamburg         | 040-232235   |

\*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2005. 9)

## 24. 여행시 유의사항

사회 전반적인 제도와 시설 등의 발달로 특별한 준비는 필요하지 않으나, 의복의 경우, 쌀쌀한 날씨를 참조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한국관 같은 장마는 없으나 자주 비가 내리는 편으로 작은 우산을 소지하고 방독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여름에도 짧은 옷과 동시에 저녁 시간을 대비한 긴 옷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가전제품의 경우, 230V, 50Hz 기준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국산 제품은 60Hz를 기준으로 생산되었기에 독일에서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이 곳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한국에 돌아가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한국산 전열기 등은 독일에서 사용할 때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여행을 위한 기본 여건은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독일 전국 각지에 위치한 여행 안내소와 안내 지도 등의 주변시설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특히 대도시를 여행할 때는 중앙역(Hauptbahnhof)의 안내소(Information)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응급>

여행 출발시 비상 구급약을 지참하는 것이 좋으며 보통 호텔 등에 요청하면 간단한 의약품  
을 구할 수 있으나, 대부분 일반 약국에서는 의사 처방이 없이는 약품을 구입할 수 없다.

응급전화 : 112

<한국산 선물>

이국적인 선물에 관심이 많으므로 고가의 선물보다는 한국적인 맛을 풍기는 전통제품이 바  
람직하다. 예를들면 태극무늬의 부채, 전통도자기, 문갑 등은 좋은 한국선물이 될 수 있다.

<외국인 금기사항>

냄새가 많이나는 생마늘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하루 중 정숙을 지키는 시간 (오전 8시 이전,  
오후 1-3시, 오후 9시 이후)에는 소음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이 시간  
중에는 세탁도 금하는 것이 좋다.

<종교생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던 독일은 현재 구교와 신교가 거의 반반으로 남쪽 지방은  
구교가 우세하고 북부지방에서는 신교가 널리 퍼져 있다.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교회와 국가가 분리된 이후 교회는 사적단체가 아닌 국가와  
협력하는 독립적이며 공적인 법인성격을 띠고 있다. 교회는 각 신자들로부터 종교세를 부과  
할 수 있으며 실제 징수는 주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다. 교회 구성원에서 탈퇴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히틀러 시대 신.구교 공히 국가사회주의에 대항해 싸운 경력을 갖고 있으며, 최근에도 평화  
와 군축, 외국인 및 고용문제 등에 대한 활발한 의견개진을 하고 있고, 최빈국을 위한 개발  
원조를 위해서도 교회가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식주>

독일인은 특히 ㅊ를 중요히 여겨 오래된 건물인데도 외관을 고집스럽게 보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내부 실내장식은 매우 현대적이며 기능적으로 개축해 놓는다.

음식은 검은 빵과 감자, 치즈 등 검소하게 먹는데 저녁 식사도 불을 쓰지 않는 찬 음식  
(kalte Speise)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청결을 좋아하여 집 안팎을 열심히  
쓸고 닦는 등 근면과 성실의 미덕을 갖고 있다.

<기질>

19세기 후반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300여 제후와 자치도시로 분열되어 있어서 다소  
지역성이 강하고 보수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 다소 고집스럽고 자기의 전통을 지키는  
성향이 많으나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는 장인정신이 생활에 배어 있다.

<가족생활>

핵가족 제도가 정착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인 독일은 출생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

독일인들은 대부분 매우 가정적이며, 공/사의 구분이 뚜렷하여 주말에 독일기업인을 행사에 초청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가까운 독일인들을 친교의 차원에서 식당이나 자택으로 초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좋아하는 운동.문화>

독일내에는 75,000개 이상의 스포츠 연맹이 구성되어 있으며 2천 1백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독일 국민들의 최대 인기 스포츠는 축구로 많은 아마추어 클럽들이 있을 뿐 아니라 프로 축구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에는 매우 많은 관람객이 몰리곤 한다. 80년대말에서 90년대 중반까지는 테니스도 슈테피 그라프, 보리스 베커 등의 국제적 스타탄생으로 국민적 스포츠로 각광 받았으나 최근에는 그리 인기있는 종목은 아니다. 대중화는 되지 않았으나 최근 골프를 치는 독일인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독일은 프랑스의 파리나 영국의 런던처럼 문화중심지로서의 대도시는 없으나 다양한 형태의 문화가 각 지역에 분산되어 발전하여 왔다. (철저한 지방 분권주의) 가령, 프랑크푸르트는 서적, 함부르크는 신문발행, 베를린은 연극공연 등으로 유명하다.

\*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2005. 9)

## 25. 관광명소

<개황>

보리수의 노래, 라인강의 옛성, 로렐라이 언덕, 그리고 괴테와 헤르만 헷세의 시가 있는 나라, 슈베르트의 가곡과 베토벤의 심포니가 흐르고 칸트와 헤겔의 철학이 싹튼 나라, 신성 로마제국을 비롯한 종교개혁과 히틀러의 야망이 명멸한 나라, 전후의 눈부신 부흥으로 라인강의 기적을 창조한 나라, 40여년간의 동서독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한 독일은 아름다운 자연과 오랜 역사, 그리고 풍요로운 정신적 문화적 유산을 가진 나라이다.

<베를린>

독일 제1의 도시이며 수도이다. 1894년 건축된 네오 로마네스크양식의 카이저 빌헬름 교회는 2차 대전시 파괴되어 폐허만 남아 있으나 보존되고 있으며, 도시 내 제국의회회사당 (Reichstag), 전승기념탑, 6월17일 거리, 샤를텐부르크성 등 이 구경할 만하다. 그 외 브란덴부르크문, 쿠담거리가 관광명소이며, 인근 포츠담 지역에는 체칠리엔호프 궁전과 쌍수시 궁전이 유명하다.

<프랑크푸르트>

독일의 맨하튼이라 할 수 있으며 금융과 경제의 중심지이다. 1749년 괴테가 태어난 생가와 박물관이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세기 초 완성된 교회로 1948년 독일의 1회 의회를 개최한 파울교회가 역시 시내에 있다. 뢰머광장에 자리잡은 구 시청건물과 13세기 건축되어 신성로마제국 대관식이 거행되던 카이저 돔 등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시내 중심 한가운데 자리잡은 중앙위병초소는 현재 식당으로 사용 중이다. 하이델베르크 성이 프랑크푸르트에서 1시간 거리, 로렐라이가 1시간 20분 정도 거리로 하루 여행코스가 가능하다.

<함부르크>

베를린(347만명)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인구(171만명)를 보유한 독일 제2의 도시로서 독일 최대 무역항이다. 주요 관광지로는 시청청사, 성미하엘 교회, 알스터 호수로서 시청청사는 탑 높이가 112미터나 되는 네오 르네상스식 대건축물이며, 성 미하엘교회는 18세기 중반 건축된 바로크풍의 교회로서 132미터 전망대가 있다. 알스터 호수는 450에이커의 인공호수로 Jungfernstieg는 쇼핑, 비즈니스 중심지이다.

<하이델베르크>

관광도시이자 교육도시이다. 독일 낭만파 시인들이 사랑하던 도시로서 고딕양식부터 바로크 양식까지 다양한 건물이 있는 하이델베르크성에는 성 지하에 큰 포도주통과 약사박물관(Apotheken-museum)이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독일에서 가장 역사가 긴 대학으로 3만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으며 학생감옥으로도 유명하다. 그 외 구시가지의 Hauptstrasse를 중심으로 한 성령교회, 기사들의 집, 시청 등이 명소이다.

<원헨>

독일 제3의 도시로서 맥주와 예술의 도시이다. 1488년 완공된 프라우엔 교회는 높이 99m의 탑 2개가 있으며 원헨의 상징적 교회이다. 마리엔 광장과 신시청은 금빛 성모상과 오전 11시, 12시에 움직이는 인형이 있는 Glockenspiel 시계로 유명하다. 베르사이유 궁전을 모방한 님펜부르크성은 시내 서북쪽 5km에 위치하며 바이에른가의 여름 궁전으로 사용되었던 시청부근 Hofbraeuhaus는 궁중맥주주조창의 의미로 1,000명 이상이 들어가 술 있다.

또한 이곳은 히틀러가 회동장소로 사용했던 술집으로도 유명하다. 매년 9월 셋째 토요일 정오에서 16일간 개최되는 10월 축제(Oktoberfest)에는 전세계 약 600만명 이상 인파가 몰려드는 유명한 축제이다.

<라인강>

영어로는 Rhine, 독일어로는 Rhein으로 표기되며, 본류의 길이 약 1,320km, 유역 면적 15만 9,610km<sup>2</sup>, 하구 삼각주 부분을 합친 면적 22만 4,400km<sup>2</sup>에 달하는 독일의 동맥과도 같은 강이다.

알프스 산지에서 발원하여 유럽에서 공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을 관류하여, 북해로 흘러든다. 본류는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여러 나라를 거치며, 운하에 의해서 지중해, 흑해, 발트해 등과 연결된다. 그 중 독일을 흐르는 부분이 가장 길어, 독일의 상징이라고 한다.

독일 빙겐 지방의 북서쪽 협곡 부분을 중부라인이라고 하며, 특히 빙겐과 코블렌츠와의 사이는 풍경이 아름다운 곳으로, 잇달아 나타나는 고성(古城)과 포도원을 비롯하여 하이네의 시로 유명한 로렐라이 바위 등 세계적으로 알려진 관광코스이다. 라인강은 이른바 국제하천으로서 항행의 자유가 선언되었고(1868), 본류, 지류 연안의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스위스의 선박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되어 교통량이 증대되고 있다.

\*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2005. 6)

## 26. 국토

### <위치>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발틱해 및 북해와 연해있고, 아울러 9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덴마크, 네델란드와 벨기에, 서쪽으로는 룩셈부르크와 프랑스, 남쪽으로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동쪽으로는 체코 및 폴란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 <면적>

국토 총면적은 357,021km<sup>2</sup>이며, 남북 최장길이는 876km, 동서 최장길이는 640km이다. (영해: 7,798km<sup>2</sup>, 영토: 349,223km<sup>2</sup>)

### <지형 및 자연경관>

독일의 지형은 특성에 따라 통상 5개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북쪽의 평야지대, 중부의 고지, 서남부의 계단식 지형, 남부의 알핀 구릉지대, 바바리아 지대의 알프스 산악지대로 대별한다.

북쪽은 건조하고 낮은 지대로 많은 호수, 황야로 되어 있으며 남쪽으로 길게 비옥한 토지가 뻗어 있다. 북쪽해안은 북해 및 발틱해와 접하고 있으며, 주로 낮은 언덕으로 되어 있어 Holstein Switzerland라고도 불리운다.

중부의 고지는 라인강 및 헤센산, 라인네산등이 있으며 독일의 심장부이다. 서남부의 계단식 지형은 라인강의 상류로 남쪽으로는 검은숲(Black Forest)으로 되어 있다. 남부의 알핀 구릉지대는 언덕과 많은 호수가 있는 것이 특징으로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바바리안지대의 알프스는 큰 호수와 알프스산으로 역시 여행객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 <지하자원>

철광, 석탄, 목재, 갈탄, 우라늄, 동, 천연가스, 소금, 니켈 등

\* 자료원: 독일연방 통계청, 독일 소개 자료(2005.09.)

## 27. 국민

### <인구>

2003년 12월1일 기준 총인구 82,531천명으로 이중 외국인 7,341천명이 포함되어 있다. 총 인구중 외국인은 8.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 40,356천명, 여성은 42,175천명이며, 인구 밀도는 231/km<sup>2</sup>명이다.

2003.12.31일 기준 인구로 본 도시 순위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천명)

| 순위 | 도시명    | 인구    | 순위 | 도시명    | 인구  |
|----|--------|-------|----|--------|-----|
| 1  | 베를린    | 3,388 | 10 | 브레멘    | 544 |
| 2  | 함부르크   | 1,734 | 11 | 하노버    | 516 |
| 3  | 뮌헨     | 1,247 | 12 | 두이스부르크 | 506 |
| 4  | 퀸른     | 965   | 13 | 라이프치히  | 497 |
| 5  | 프랑크푸르트 | 643   | 14 | 뉘렌베르크  | 493 |
| 6  | 도르트문트  | 589   | 15 | 드레스덴   | 483 |
| 7  | 에센     | 589   | 16 | 보쿰     | 387 |
| 8  | 슈투트가르트 | 589   | 17 | 부퍼탈    | 362 |
| 9  | 뒤셀도르프  | 572   | 18 | 빌레펠트   | 328 |

(자료원: 독일연방 통계청)

### <종족>

게르만족으로서 동 범주내에는 10세기까지 Franken, Sachsen, Schwaben, Bayern 등으로 세분되어 있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지역적 풍습이나 방언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 <언어>

공용어는 독일어이며, 상용어도 독일어나 비즈니스에서는 영어가 통용된다.

### <종교>

카톨릭 26,201천명, 개신교 27,273천명, 회교 330만명, 유대교 18.9만명, 기타 종교 및 무종교인은 25,568천명이다.

- 서독지역 종교분포 비율: 카톨릭 41%, 개신교 42%, 기타 15%

- 구동독지역 종교분포 비율: 카톨릭 3%, 개신교 22%, 기타 73%

### <국민성>

19세기 후반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300여 제후와 자치 도시로 분열되어 있어 다소 지방색이 강하고 보수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 고집스럽고 자기의 전통을 지키려는 성향이 많으나, 자기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는 장인정신이 생활가운데 배어 있다.

독일인과는 한번 인간관계를 맺게 되면 매우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전제 조건으로는 성실하며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신뢰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하고 있다.

이민족, 이교도에 대한 배타성은 없으나 최근 들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극우파들이 늘면서 외국인 배척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외국인에 대해 친절하며 상냥하다.

<문화수준>

독일에는 프랑스의 파리나 영국의 런던 같은 문화 중심지는 없으나 다양한 형태의 문화가 각 지역에 분산되어 발전하여 왔다(철저한 지방분권에 기인). 각 소도시마다 박물관 및 공연장들이 갖추어져 있으며, 아무리 작은 도시라 할지라도 대부분 축구장, 스포츠센터, 수영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어 스포츠활동을 하기에 좋다. 주말에 가까운 숲이나 공원에서 산책, 피크닉, 자전거타기 등을 할 수 있으며 캠핑장소가 많아 캠핑하기도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다.

<보건수준>

세계최고의 보건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보건관련 정책 및 운영 또한 독일에서는 지방분권화 되어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3년 기준 독일에는 약 304천명의 의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전체 의사중 절반이하가 개인 영업을 하고 있다. 2001년 기준 전국적으로 2,242개의 병원이 있는데 이중 831개가 지자체 운영 병원, 835개처는 독립 비영리단체 운영, 376개가 민간병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료의 사회성 내지 공공성이 뚜렷하다.

독일에서는 특정 근로자들이 의무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보험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과 법적 의무 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선택 가입할 수 있는 사보험(private Krankenversicherung)의 두 가지 의료보험 종류가 존재한다.

독일 국민의 90% 가량이 공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진료는 원칙적으로 모두 무료였으나, 연방정부는 2004년 공보험기금의 적자 등 노령화 되는 인구구조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범위한 사회복지개혁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무료 체제였던 공보험의 개인 부담율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 자료원: 독일연방 통계청(2005.09) 및 국정홍보처 발간자료(2005.09)

## 28. 역사

<고대>

고대 로마제국의 역사학자 타치투스(Tacitus AD55-115년)는 자신의 저서에서 기원전부터 북부 독일지역과 스칸디나비아반도 일대, 지금의 러시아연방 서남부 지방에 정착하여 살던 고대 게르만 민족인 프랑켄족과 작센족, 동부 고텐족들은 북해도 일대의 악천후와 빈한한

고향땅을 버리고 약 2-3세기 동안이나 정착없는 유목민이 되어 남쪽지방으로 차츰 이동해 왔다고 기술했다.

통상 고대 유목민들이 대부분 그러했듯이 고대 게르만 민족들도 한곳에 정착하여 단일사회를 형성하지 못하고 항상 절기와 기후의 변천에 따라 이곳 저곳을 떠돌아 다녔으며 이 집단들은 한사람의 왕이나 장군 밑에서 임시 움막을 짓고 생활하였다.

또 집단 무리 가운데 가장 강한 자가 전쟁이 나면 이들을 통솔하며 새로 달이 뜨는 날이나 만월이 될 때마다 정기적으로 군중 대회(Thing)를 열어 집단내의 벌칙자나 범죄자를 다스리므로 유목민들의 질서를 세우는 한편, 독수리를 숭상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로도 고대 게르만 민족들은 거의 2-4세기 이후까지 유목민 생활을 계속하였다.

기원전 58년경부터 로마제국의 세력은 라인강 연안 일대까지 미쳤으며, 그후 AD 458년에 로마의 요새와 같은 쾰른지방이 프랑켄족의 손에 넘어가기까지 라인강변 일대는 근 5세기동안 로마제국의 지배를 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남부 독일 지방에는 정치, 경제, 문화의 기본적인 역사 전개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오늘날에도 서남부 지방에서는 로마색채가 매우 짙게 남아 있다.

아시아 지방에서 중국을 점령한 후 그 여세를 몰아 유럽 지방까지 원정은 몽고 훈족들은 AD 375년 경에 게르만 민족의 일부인 동부고텐족과 발칸족을 제일 먼저 섬멸시킨 다음 계속 각 지역에서 게르만족을 괴롭혔다.

훈족에게 패한 동부 고텐족들은 이때 쫓겨서 지금의 유고지방에서부터 이태리 지방을 거쳐 멀리 스페인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AD451-455까지 훈제국과 약 5년간에 걸친 전쟁 끝에 프랑켄족이 득세, 이 부족은 처음으로 게르만민족의 강력한 지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시작하였다.

이 부족은 '자유' 또는 '용감한 종족'이란 칭호를 받던 서부 게르만족의 하나로 로마제국의 세력이 약해진 틈타 지금의 쾰른지방인 리푸아리어 일대에다 작은 국가를 세우고 지금의 헤센주 일대를 국토로 삼았다.

프랑켄족으로부터 패한 로마제국은 약 AD476년경 독일땅에서 세력을 완전히 잃었다. 로마군이 철수하자 그들이 차지했던 영토들에 대해 당시 큰 부족들인 서부 고텐족이나 부르군트족, 동부 고텐족들은 이땅을 서로 차지하려는 다툼 때문에 오히려 그 세력이 차츰 약화되었다. 특히 동부 고텐족의 테오더리히(Theoderich)가 게르만 종족을 하나로 묶으려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라인과 갈리엔 지방을 먼저 통합시킨 클로드빅(Clodwig)1세는 로마 교회를 흡수하는 한편 498년에는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 메로빙거(Merowinger) 왕조는 이때부터 약 2백년이 지나도록 게르만민족을 하나로 통일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이의 직접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독일 각 지방의 성주들을 대신하여 로마 교황청은 쾰른, 마인츠, 트리어의 대주교들을 일방적으로 선제후로 임명하는 한편 당시 소국들의 국왕을 "뽑는 선거에도 직접 간섭, 봉건 왕국 정치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이다.

프랑켄족을 이끌고 있던 장군 칼 마르텔(Karl Martell)은 국력을 키운 732-737년 사이에 오늘의 아랍 지방에서부터 서부 고텐족이 왕국을 이루고 있었던 스페인까지 통합하고 남쪽으로는 부르군트 왕조도 흡수시키는 등 종전 고대 로마제국보다 더 넓은 영토를 확보하였다. 이때 칼의 아들 피핀(Pippin)이 로마 교황인 짜카리아스(Zacharias)로부터 황제 칭호와 국왕의 상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히를 받아내어 황제로 등극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통일제국을 건국하였다.

통치 중심지를 오늘날의 아헨(Aachen)에 두었던 프랑켄의 지배적 3대 종족(Sachsen, Salier, Hohenstaufen)은 종교세력, 정치 세력을 통합함으로써 평화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교황과 황제간의 맹약은 오래가지 못하고 814년 칼대제가 운명한 후 두 아들 루드빅(Ludwig) 1세와 로타르(Lothar)간의 상속 문제에 따른 견해 차이로 서로 갈라지면서 일으킨 전쟁은 통일 프랑켄제국을 다시 분리시키게 되었다.

이때부터 시작한 전쟁은 843년에 로타르가 이끄는 로타링 왕국(로마에서 아헨까지, 또 옛프랑켄족의 영지 모젤강 일대와 부르군트 지방)과 루드빅 1세가 이끌던 동프랑켄(현 독일지방) 칼 1세가 이끌던 서프랑켄(지금의 프랑스 일대)으로 분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같은 국토 분리는 후일 독일계통의 독립투쟁과 점증되는 귀족들의 통치 욕망으로 더욱 세분화하는 난립시대를 가져오게 되었다.

### <중세>

프랑켄 제국이 여러 백작들로 하여금 공작령을 세우도록 유히한 때는 약 900년경이후로 이때 분할된 6개의 공국은 작센공국(Sachsen)을 위시해서 튀링엔(Thuringen), 바이에른(Bayern), 로트링엔(Lothringen), 슈바벤(Schwaben) 그리고 프랑켄(Franken)국이었으며 작센공국을 다스리던 하인리히 1세는 곧이어 왕으로 책봉되어 작센족에서는 처음으로 왕이 탄생하였다. 한편 슈타우펜 왕조가 하인리히 IV세에서부터 대가 끊어지자 이 왕가의 재산을 상속하기 위한 국왕선거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이때 국왕을 선출할 수 있는 특수권한은 당시의 7명의 실력자들 앞으로 돌아갔다. 이 중 3명은 종교 지도자인 마인츠와 쾰른, 트리어의 주교겸 선제, 4명은 팔츠, 작센, 브란덴부르크의 백작들이며 얼마정도 늦게 베멘(Boehmen)백작이 참여하였다. 이들의 첫 회합은 1257년으로 당시 회의자리에서 공교롭게도 외국인 백작(Richard von Cornwall과 Alfons X von Kastilien)이 참여한 사건 때문에 이 제도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며 국왕선출은 무효가 되었다. 이처럼 국왕을 선출하지 못한 정치 공백기(Interregnum: 1251-1273)가 발생하자 독일은 정치적인 불안과 사회적인 혼란에 빠졌다.

이후 국정을 재정비하기 위한 국왕 선거에서는 합스부르크의 루돌프(Rudolf) 1세가 선임되었고 뒤를 이어서 룩셈부르크 왕가들이 득세하였다. 이후로도 국왕 선거는 합스부르크 왕가와 룩셈부르크 왕가 출신들 사이를 여러 차례 오가는 변동기속에서 룩셈부르크 왕가의 칼 IV세는 프라하(Prag)를 동.서간을 연결하는 화해의 중심지로 결정되었다.

국왕이 선출되지 못한 사이에 독일내의 수 많은 대도시들은 자유도시로서 경제, 문화적인 지배권을 확보하며 자치적인 발전을 꾀하기 시작했는데 이들 자유시들은 지역적인 환경에 따라 북독의 한자 동맹에 결속되거나 제국의 직속 도시들은 따로 남독의 도시 동맹을 결성, 점진적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이때의 여러 자립도시들은 인도주의

사상에 젖어들며 외국으로부터 받아들인 새로운 문화를 심는 등 다른 사조에 대한 진취적인 개방정책을 펴므로써 후일 루터의 종교개혁운동을 싹트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 도시들은 새로운 권리와 자유를 기초해서 올바른 제국으로 개혁하려던 농민 계급을 지지하는데는 매우 소홀하였다.

1525년에 끝난 농민 전쟁은 봉건 영주들의 결속을 도모케하는 결과를 낳았고, 농민출신자 스스로는 더욱 비참한 대우를 받는 계급으로 전락하였다. (19세기까지 정치 참여 불인정)

<근대>

독일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해외로 진출하여 한창 식민지를 개척하는데 혈안이 되어있을 때 마르틴 루터는 뷔텐베르크에서 자기의 논제를 발표함과 아울러 로마교회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시간이 감에 따라 독일 각지에서 논쟁이 벌어지면서 종교, 정치, 경제 각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데, 이 무렵 스페인에서 자라난 합스부르크가의 칼 5세는 영주들에게 통고만 하고 독일의 지배자로 등장하였다.

이 같은 사유로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은 각 지방의 영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마침내 그들은 지방 분권적인 통치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운동에 가담하였다.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약했던 칼 5세는 서쪽에서는 프랑스, 동쪽에서는 터키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서는 새로운 타협점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 결과는 오히려 종교개혁 운동을 더욱 심화시켰다.

결국 보헤미아 지방에서 시작된 신교 귀족들의 봉기는 내란으로 번져 그 후 독일은 30년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화되던채 외국군대의 완전한 노리개감이 되고 말았다

30년 전쟁으로 독일은 5백만명의 희생자를 낸 후, 베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이 맺어졌다. 이 화평으로 독일제국은 여러 군주국가들의 동맹체가 되었고, 이들 군주국가들의 상호이해와 협력은 항구적으로 존속하는 제국의회(Regensburg 소재)를 통해서 조정되도록 하였다. 처음 이 제국의회의 최고 관심사는 종교적 평화유지 문제와 제국의 중앙집권적인 통제 기능이었다. 이무렵 대터키전에서 승리를 거둔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 최대 강대국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11개의 다른 민족이 통합된 다민족국가로 성장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강인한 프로테스탄트국으로 등장한 프로이센도 새로운 중심세력을 형성하며 제국내에서 서로 세력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전체 군주주의 제도는 독일안에 예술의 개화기를 안겨주었는데, 새로운 자아 의식이 싹튼 서민들은 계몽사상과 자유주의 신봉자가 되었다.

러시아의 황제 요셉 11세나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11세의 개혁 천명은 일반 대중 서민층이 정신적, 예술적인 지도자를 찾는 움직임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해빙무드는 독일과 프랑스 혁명국과의 분쟁으로 모두 좌절되었다. 나폴레옹에 승리한 독일 영주들은 빈(Wien)에서 가진 회합에서 독일내의 39개 군주국을 결속시키는 신성동맹(Heilige Allianz)을 체결함으로써 그들의 체제를 다시 확립하였다. 그 이후 39개 군주국내에서는 일체의 민주주의적이고 자치적인 활동이금지되었다.

그 반면에 독일내 전국 어디서나 통관때마다 지불해야만 했던 통관세제를 없앤것은 1816년으로, 39개 군주국은 일반 정치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분야에까지 공존의지로 돌아서며 재통일의 싹을 받아시켰다. 역사적으로 오랜기간 동안 봉건제도에 시달려 온 국민들 가운데

에 급진적인 사상을 가진 일부단체와 그 추종 인물들은 시대적인 변천기를 주도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모색. 급진주의자들이 가장 좋은 기회로 삼은 것은 1848년 2월에 프랑스 급진파들이 주도한 혁명이다.

이들이 루이스 필립왕국을 무너뜨리고 공화국을 건국하는데까지 성공하자, 이 조짐은 급기야 독일 각 군주국으로 크게 파급. 이 같은 급진주의 운동은 헝가리의 혁명(3월 13일)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서 빈, 베를린, 이태리 등지로 퍼져 나갔다. 1848년의 혁명운동을 통해서 국민적인 감정이 정치적인 성숙을 가져다 주어 프랑크푸르트시에서 열린 국민의회(10.31일)에서 민주주의 국민헌법까지 채택하는 진일보를 했으나 외세가 전혀 끼이지 않은 조국 통일은 불가하였다.

1866년 전쟁으로 오스트리아를 제국의 정치권내에서 탈퇴시킨 Bismarck는 독일 각 지방의 군주들을 묶는 군주 동맹을 형성, 그동안 민주주의자들이 열망해 왔던 소위 소독일(Norddeutscher Bund)이 탄생하였다. 그 후 1870년 프랑스의 선전포고는 독일 여러 제국들의 단결을 가져다 주며 프로이센의 빌헬름 1세를 독일 황제로 추대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이후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는 대륙의 선도적 공업국으로 급성장한 독일제국을 동서간의 중재자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각국간의 세력 균형을 유지시키려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노력은 일단 성공했으나 명예욕에 불탄 빌헬름 1세의 국력 신장정책 때문에 좌초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은 독일 및 오스트리아간의 연방적인 통치구조의 붕괴를 가져다 주었고, 대전이후 패전이라는 어려운 정치 상황속에서 독일제국은 극심한 내부투쟁을 겪었으나 그대로 통일을 유지하면서 민주주의적 질서를 다짐하였다.

#### <현대>

1차대전이 끝나던 해인 1918.11.9일을 기해서 빌헬름2세가 발표한 황제하야 성명과 오스트리아의 칼1세의 통치권 포기 (11.11일), 헝가리의 독립선언(10.17일)등 국내외 정세 변동은 독일에도 의회 정치가 중심이 되는 바이마르공화국이 1919년 8월 11일자로 새로 출범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1차 대전으로 독일은 180만명의 전사자와 420만명의 부상자가 발생, 국토는 황폐화 되고 국민생활은 피폐해졌다. 또한 영토의 할양, 공장철거, 과도한 전쟁 배상금 등 14개항의 종전 협정을 지켜야하는 신생 바이마르 공화국은 막중한 정치,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

그러나 화폐가치의 폭락과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베를린에서는 예술의 개화기가 도래되었으며 또 독일 과학사상 특기할 만한 발명도 많았다. 한편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가내공업 구조에서 기계 공업체제로 전환하던 시기인 1929-30년의 세계 경제공황은 패전국인 독일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에 발생한 집단적인 실업자 사태는 독재정치가 다시 살아나는 온상을 만들게 되었다.

1933년에 수상에 오른 아돌프 히틀러는 국가적 비상사태를 이용, 반년이내에 독재적인 국가통수권을 모두 장악한 후 즉시 제국회의를 해산하고, 정당활동을 금지시켰으며, 이에 반발하는 지식인들과 당원들을 구속하였다. 또 잇따라 자신의 독재체제에 맞지 않는 장애물은 가차없이 제거하였는데 그 첫 작업은 지식인 탄압과 유대인 처우 문제였다.

독일 민족의 통일과 독일어를 통용하는 이주 지역을 독일 제 3제국에 통합시키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히틀러의 대담한 세력확장 정책은 가혹한 인종차별 정책으로 표면화되었고, 더불어 유럽 전지역을 제2차 세계대전으로 몰아 넣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 전쟁은 국력을 모두 쏟은 만큼 철저한 파멸로 끝났으며, 또다시 독일민족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일대 혼란과 쓰라린 굴욕을 동시에 체험하였다.

이후 제 3제국의 영토는 승전 연합국에 의해서 4개 지구로 크게 분할되었고, 옛 프로이센 제국은 오늘날의 세계 지도 속에서 그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종전 당시 독일 대도시들은 대부분 70-80% 이상 완전히 파괴되었고, 집을 잃거나 동부 실지에서 추방된 실향민의 숫자는 1천 2백만을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인들은 잿더미 속에서 다시 재건하는 놀라운 의지를 보여주었다.

마셜플랜과 함께 화폐개혁을 통해 전후 경제회복정책을 폈던 독일은 이미 1949년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직전의 경제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안정과 사회복지를 위한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입안되고, 부지런한국민으로 세계의 이목이 다시집중되었는데, 1950-53년의 한국전쟁이 독일경제를 급진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비록 동서독으로 분단된 상태로나마 1949년 5월부터 정치활동이 해금된후 자유선거를 통한 정부수립과 초대 수상 콘라드 아데나워를 맞은 서독정부는 정치적인 안정과 유명한 기적적인 경제부흥을 앞당기면서 세계속의 부국으로 다시 등장하였다.

또한 유럽 공동 협력기구의 주선과 가입, 복지제도의 확립, 독일 연방 군대 창설(1956년) 등으로 공산체제를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구소련의 붕괴와 때를 맞추어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10월 3일 정식 통일 정부가 들어섰다.

### <통일독일>

독일의 통일과 동구권 사회주의 공산국가들의 몰락으로 형성된 새로운 국제질서하에서 독일은 신연방주의(구동독지역)의 재건과 독일의 내적인 통일완성, 유럽연합의 심화확대, 신국제질서하의 평화 및 안보체제 수립에 몰두하였다

또한 주변국가들의 독일 통일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유럽속의 독일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유럽경제권의 1/3을 차지하는 독일경제의 상징인 독일Mark화를 포기하고 유럽경제 및 화폐통합(EMU)을 적극 추진하여 2002년도부터 Euro화가 공식화폐로 통용이 되었으며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1999년5월 사민당의 Johannes Rau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며 1999.9.1을 기해 연방의회와 정부를 베를린으로 이전하여 통일독일의 수도 베를린시대를 열었다.

1999년은 독일정부 수립 50주년, 베를린 장벽붕괴 10주년의 해로서 독일의 새로운 위상정립 및 역할 강화를 위해 '독일, 성장 및 사회안정을 위한 미래 프로그램' 을 발표하였다.  
(99.6.23)

<21세기>

현재의 사민 녹색연정은 국내적으로 2000년도의 세제개혁에 이어 2001년 5월 연금개혁 및 6월 구동독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Solidarpakt II)를 마무리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EU 확대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 수상으로는 2002년 10월 연임하여 집권 2기를 맞고 있는 슈뢰더 총리(임기 4년), 그리고 2004년 5월 연방대통령으로 선출된 호르스트 쾰러가 2004년 7월1일부 라우 대통령(임기 5년)의 뒤를 이어 정식 취임 되었다.

슈뢰더 정권은 독일의 장기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 속에서도 각종 복지를 감축하고 노동 시장 규제를 완화했다. 한편, 이와 같은 정책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당으로 인정 받던 사민당이 근로자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급기야는 사민당이 39년 동안 집권을 잡았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주의회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산업 밀집지역이며 독일 최대 인구 지역으로, 1966년부터 사민당이 집권하여 왔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사민당 패배로 인해 연방 하원은 사민당과 녹색당이 다수인 반면, 주정부 대표들로 구성된 연방 상원의 경우 기민련이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하원에서 통과된 각종 법률안들이 상원에서 부결되고 하원이 재의결하는 ‘만성적 충돌구조’가 성립되어, 사실상 슈뢰더 정권은 기민련의 동의 없이는 아무런 정책도 실시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아울러 사민당은 5월 22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주의회 선거 패배와 동시에 조기 총선을 제안, 내년의 총선이 1년 앞당겨 2005년 9월 18일에 실시되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총선이 실시되면 야당인 기민/기사연합이 승리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기민/기사연합도 사민당도 결국은 패배했다.

독일 총선 전날인 17일까지도 기민/기사연합이 자민당과 연정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총선 결과 과반수를 대표할 수 없게 되었다.

사민당은 의외로 여론조사보다 많은 표를 얻었지만 녹색당과 연정을 구성하기에는 부족하여, 현재 시각으로는(2005년 9월22일) 정부 구성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

여론에서는 이와 같은 투표결과는 독일 국민의 불안심리와 정부에 대한 불신이 반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자료원 : 독일 역사서 및 신문 종합(2005.09)

## 29. 국가조직

### 1. 국가형태 : 연방공화국

### 2. 국가조직

#### <연방대통령>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나, 제한적 상징적 권한보유/임기는 5년(1회 연임 가능)이며 연방하원의원과 각 주의회에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되는 연방총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된다

#### <연방정부>

연방정부는 연방수상과 16명의 연방각료로 구성되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의 최고원수는 연방 대통령(Federal President)이며, 실권자는 연방 수상(Chancellor)이다.

연방수상은 대통령의 제청으로 의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며 연방각료는 수상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방정부 즉 각 연방주의 수상(Ministerpraesident)은 연방의 주의회가, 각 기초지방자치 단체장은 기초 지자체의 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한다.

#### <사법부>

연방법원은 5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형사 및 민사법원 (4급심), 노동법원(3급심), 행정법원(3급심), 사회보장법원(3급심), 세무재정법원(2급심)이다. 기타 연방헌법재판소 (2개의 판사회) 및 16개 각주별로 헌법재판소들이 있다.

독일의 재판제도는 분권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 세법, 상법 및 노동법 사건의 판결을 내리는 각각의 최고급심들이 있다. 이 최고급심들에 대한 상고는,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행할 수 있으나 사실 문제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수 없다. 최고급 심의를 초과, 연방헌법재판소에 상고할 수 있으나, 당해 법률이 기본법에 저촉돼 있는 것을 이유로 할 경우로 국한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다른 법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나, 각각의 최고급 심의 판결들은 다른 최고급심들을 구속하지 못한다. 각각의 최고급심의 동일 계열의 하급심에는 높은 권위의 지침을 제공하나, 장래에 관하여 당해 하급심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법률의 문제에 관한 각각의 상고에 따라, 관할 최고급심은 관련 법규에 관한 이전의 해석을 확인할 것인가, 더욱 발전시킬 것인가 또는 변경시킬 것인가하는 새롭게 결정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따라서 판례가 구속력을 가진다는 원칙은 없으며, 이는 앵글로 색슨의 전통을 가지는 각국의 법률 제도와는 다르다.

<의회>

독일의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분되는 양원제이다.

[연방하원]

연방하원(Bundestag)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소선거제와 비례대표제의 혼합형태에 의해 직선 336석, 비례대표 336석 등 총 672명으로 구성된다.

하원의 주요임무는 헌법 제정, 수상선출, 행정부 감시감독, 법안 제정 등이며, 세제 및 주통치 문제에 관한 법안은 연방하원(Bundesrat)의 동의가 필요하다.

\* 제 16대 의회 당별 의석분포(2005. 9월 총선결과)

- CDU/CSU : 217석, SPD : 213석, Buendnis/Gruene : 51석, FDP: 63석, PDS/Linke: 54석

[연방상원]

연방상원(Bundesrat)은 직접선거가 아닌 각주정부의 전권대표로 구성되며, 각 주정부는 당연직인 주수상을 포함한 주대표를 연방상원에 파견하는데 각주는 최소한 3명의 의석을 가지며 인구 200만 이상의 주는 4개 의석 600만 이상의 주는 5개 의석, 700만 이상의 주는 6석을 배분하여 현재 69명으로 구성되었다.

하원의 주요 임무는 입안 및 주요 법안에 대한 동의이다. 그외 Bundestag에서 가결된 법안이 Bundesrat에서 부결될 경우는 양원의 대표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자료원 : 연방정부 소개 자료(2005. 6.)

### 30. 정치제도

#### 1. 기본법

독일의 헌법에 해당되는 기본법은 1948년 5월 8일 서독지역의 주의회와 제헌의회에서 채택되어, 1949년 5월 23일 공식 선포되었으며, 1990년 10월 3일 통일 이후 전독일 지역에 효력을 갖게 되었다. 기본법에는 독일 국가질서의 근간으로 공화주의, 민주주의, 연방국가, 법치국가, 사회국가의 5대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독일의 기본법은 이러한 5대 원칙 및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의 기본적 권리 등 근간을 유지한 채, 1990년대 이후 환경보전, 남녀평등, 장애인 보호가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고 유럽조항 등이 신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가.연방주의

- 독일연방공화국은 연방뿐만 아니라 연방주도 국가적 독립성을 갖는 연방국가

나.민주주의, 의원내각제

- 기본법 제20조2항- 간접민주주의, 의회는 입법행위 뿐만 아니라 권력의 실행에도 참여

다.사회주의적 법치국가

- 기본법은 재산의 사회적 귀속성 및 사회화의 목적을 위한 토지, 자원, 생산수단 등의 공유화 명시

2. 선거제도 및 정당제도

< 선거 제도 >

독일의 연방하원은 보통, 직접, 평등, 비밀 선거 원칙에 의거한 선거로 구성된다. 18세 이상으로 3개월 이상 독일에 거주한 독일인은 모두 선거권을 가진다. 연방하원 선거시 모든 유권자는 2종류의 기표를 하는데, 이중 제 1표는 지역구 의원 후보자에게, 제 2투표는 정당에 대한 투표이다. 각 정당별 하원의석의 분배는 정당지지율 (제2투표)의 결과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정당지지율 5% 이상인 정당만 의회진출이 가능하다. 현재 연방 하원의원 수는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된 299명, 각 주별 비례대표제에 의해 당선된 299명, 그리고 추가 의석규정으로 선출된 5명 등 60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정당 제도 >

가. 연방하원(Bundestag)

독일에서 정당의 설립은 자유로우나, 정당의 내부조직이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합치되어야 하며, 자금원과 그 사용처는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합헌적이어야 한다. 독일에서 정당의 주요재원은 당원의 당비 및 기부금, 국가보조금이다. 또한 정당의 선거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해 주며, 정당기부금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5% 규제조항으로 인해 독일에서는 현재 기독교민주연맹(CDU), 기독교사회연맹(CSU), 독일사회민주당 (SPD), 동맹90/녹색당 (Gruenen),자유민주당 (FDP), 민주사회주의당/좌당(PDS/Linke) 등의 주요 정당만이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공화당 (Republikaner), 독일국민연합(DVU) 등 소수정당이 원외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독일은 2005년 9월 18일 선거이후 정부 구성에 대한 협의가 당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상은 사민당의 슈뢰더(Schroeder)가 될지 기민당의 메아켈(Merkel)이 될지 불확실하다. 그리고 현재 각 정당별 연방하원의원의 의석분포는 아래와 같다.

- 기민당/기사당(CDU/CSU): 217석
- 사민당(SPD): 213석
- 동맹90/녹색당(Bündnis 90/Grüne): 51석
- 자민당(FDP): 63석
- 민사당/좌당(PDS/Linke): 54석

### 나. 연방상원 (Bundesrat)

선출은 직접선거가 아닌 각 주정부의 대표로 구성, 각 주정부는 당연직인 주 수상을 포함한 주 대표를 연방상원에 파견한다. 각주는 최소한 3명의 의석을 가지며, 인구 200만명 이상의 주는 4개의 의석, 600만 이상의 주는 5개의 의석, 700만 이상의 주는 6석 배분(현재 69명으로 구성)된다. 주요권한은 법률 제정권을 연방하원과 공유, 법률안 제출권, 연방정부제출법안에 대한 심의권, 하원의결 법률안에 대한 이의 제기권 등이 있다.

\* 자료원 : 독일법 및 신문종합(2005.09)

## 31. 정치사회동향/2003년 상반기

### <정치동향>

지난해 9월 22일 총선에서 사민당과 녹색당 연합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여 적.녹 연정의 제2기 집권에 성공하였다. 선거에서 경제문제로 사민당은 고전을 면치 못하였으나 작센주의 대홍수와 선거 막판에 이라크전쟁을 반대함으로써 어렵게 재집권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시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가 세금을 인상치 않겠다는 공약을 뒤엎고 재집권뒤에 각종세금과 사회보장세 등을 인상함으로써 금년 2월에 시행된 니더작센주와 헤센주의 2개 주의회선거에서 기민당에 참패하였으며 특히 슈뢰더 수상의 출신지이자 사민당의 아성이었던 니더작센주에서의 참패는 대 이라크전쟁과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금번의 지방선거결과는 내년 5월에 실시될 차기 대통령선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한 내년 5월까지 남아 있는 바이에른주와 브레멘주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3월초에 연방정부가 제기한 사회복지체제와 노동시장의 대대적인 개혁안(Agenda 2010)에 대해 노.사.정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집권 사민.녹색당의 연정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 <사회동향>

슈뢰더 수상이 이끄는 연정이 독일 사회복지국가의 재건을 기치로 내건 사회복지 및 노동시장 개혁안인 „아젠다2010 “은 1) 건강,연금,실업,요양보험 가입자의 부담증가 및 수혜폭의 축소, 2) 소기업체의 피고용인 해고요건완화 등 노동시장 규제완화, 3) 세계개편 등으로 요약되는 것으로 대부분 고용자인 재계의 요구사항은 많이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실업수당 감축 : 현재 고령일 경우 32개월까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5세미만은 12개월, 그이상은 18개월로 기간을 단축하고 빈곤실업자를 위한 실업구제와 일반 사회복지를 통합하여 실업구제금을 감축.

- 건강보험의 수혜자 부담 확대 : 현 14.4%의 건강보험료를 13%로 축소하되 치료시의 개인부담을 확대하고 질병보조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토록 변경.
- 지방자치단체 부담완화 : 2004년부터 실업구제혜택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청으로 이관하고 재해복구에 대한 연방지원금납부를 면제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
- 창업기업 지원 : 창업후 4년간 상공회의소 회비면제, 신규 노동자에 대한 연수교육비의 국가지원, 수공업기업 운영시 자격증소지 규정 완화.
- 중소기업 적극 육성 : 소규모기업에 유리한 세제 및 회계시스템 적용, 중소기업의 종업원해고시 능력과 업적에 따라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

현재 슈뢰더 총리의 아젠다2010에 대해 사민당과 녹색당 지도부는 지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야당인 기민당도 대체로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아젠다 2010과 추후에 발표될 슈뢰더 연정의 개혁정책이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독일 경제를 되살릴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독일이 자랑하는 복지국가 체제를 어느정도 변모시킬 수 있는지 주목되고 있다.

## 32. 정치사회동향/2003년 하반기

### <정치동향>

2002년 9월 22일 총선에서 사민당과 녹색당 연합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여 적.녹 연정의 제2기 집권에 성공한 사민당(SPD)은 2003년 2월에 시행된 니더작센주와 헤센주 등 2개 주의회선거에서 슈뢰더 총리가 세금을 인상치 않겠다는 공약을 뒤엎고 재집권 뒤에 각종 세금과 사회보장세등을 인상함으로써 기민련(CDU)에 참패 당하였으며, 특히 슈뢰더 수상의 출신지이자 사민당의 아성이었던 니더작센주에서의 참패는 여당의 입지를 악화시킨 바 있다.

이어 2003년 10월 26일 실시된 브란덴부르크주의 시.군.구 의회 선거에서도 사민당은 99년 대비 15.4%나 감소된 23.6%의 지지를 얻어 제1 보수야당인 기민련에 통독 이후 처음으로 동독지역에서도 밀렸다. 한편 슈뢰더 총리는 11월 17일 사민당 전당대회에서 80.8%의 지지율로 사민당 당수에 재선출되었다. 이는 지난 2001년 전당대회 때보다는 7.8% 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2002년 총선 이후 추락해오던 슈뢰더 총리와 집권 사민당에 대한 지지율은 개혁정책에 대한 국민반발로 인해 2차대전후 최저 수준인 24%까지 떨어졌다고 시사주간지 슈테른이 10.29일 보도하였는데, 제 1야당인 기민련에 대한 지지율은 51%, 녹색당 11%, 자민당 7%, 민사당 4%를 각각 획득했다. 동 여론 조사에 나타난 민의가 실제 총선결과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제 1야당인 기민련의 단독 집권도 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독일 정가는 한 야당 의원의 유태인에 대한 비난연설이 물의를 빚었는데 소속 보수정당 인 기민련은 11월 14일 당사자인 마르틴 호만 하원의원의 원내교섭단체원 자격을 박탈하였고, 아울러 연방국방장관은 호만의원원의 발언을 지지한 최정예특수부대 사령관을 전격 해임한 바 있다.

<사회동향>

독일 정부가 경제·사회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소득세율 인하 조기 실시와 실업수당 등 노동복지 축소 관련 개정법안이 11월 7일 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적녹연정이 당내 좌파 의원들을 설득해 겨우 하원에서 통과시킨 이 법안들은 상·하원의 충돌시 이해관계를 조정해 주는 중재위원회로 넘어갔으며, 법안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슈뢰더 총리는 “아젠다2010”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한 뒤 “사민당 지도부는 당내 반대자들이나 최근 각종 선거에서의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개혁안들을 고수하고 그 효과가 완전하게 나타날 때까지 여론 지지유락을 감수할 것” 이라고 했다.

독일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초중학생 학력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올해에도 전반적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했다는 지적을 받아 충격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 20년 동안 공업화된 국가들에서 중등 및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가 많이 늘고 질이 향상됨으로써 노동생산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는데, 반면 독일의 경우 중고등 교육 수혜 인구가 정체 또는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 및 경제성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OECD의 15세 학생 학력평가(PISA)에서 독일이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자 현재 대부분 오전 수업만 하는 초중등학교를 오후까지 수업하는 전일제 학교로 바꾸기 위해 5년간 40억 유로를 투입키로 했다.

한편 재정적자가 가장 심각한 베를린의 경우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대학들이 신입생 총정원을 동결키로 했으며, 훔볼트대학은 지원금이 삭감되면 신입생을 더 받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기침체로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복지비용지출은 늘어 천문학적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독일 정부가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불법 노동과의 전쟁’ 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단순히 규정 위반을 처벌했던 불법 노동 관련자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형사범 처벌을 받게 되며, 영세민 사회보조금이나 실업수당 수령자도 불법 노동시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이라고 빌트는 밝혔다. 빌트에 따르면 현재 주지적 불법노동을 통해 월 평균 300유로(약 4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 1천만 명에 달한다.

독일의 장기 경기침체로 노동시장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데 대량 실업난 속에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해 병가를 내는 것을 꺼림에 따라 90년대 중반 이후 병가일수가 줄어들어 금년 1-9월 병가 일수가 평균 5.8일로 전체 노동일수의 3.58%였는데 이는 전후 최저수준이다.

독일이 핵발전 중단 정책을 수립한 이후 처음으로 지난 11월 14일 함부르크 인근의 슈타데 핵발전소 폐쇄 작업을 시작했다. 지은 지 32년 된 슈타데 발전소의 철거작업은 오는 2005년부터 시작돼 2015년에 끝나게 되는데, 녹색당과 사민당 적녹연정은 에너지업계와 야당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 2001년 핵에너지 포기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기존 핵발전소 19곳도 향후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폐쇄토록 되어 있다. 환경 및 반핵 단체들은 슈타데 발전소의 원자로 가동 중단이 역사적 쾌거이기는 하지만 핵발전소가 완전히 없어지기까지에는 아직 난관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33. 정치사회동향/2004 상반기

#### <정치 동향>

##### ○ 슈뢰더 독일 총리, 사민당 당수직 사퇴 (2004.2.6)

독일 총리직과 사회민주당(SPD) 당수직을 겸해왔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2월 6일 당수직을 사퇴하였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가 6일 집권 사회민주당 당수직을 사퇴한 것은 지난해 탈당 당원들이 사상 최고치에 이르고 당 지지도는 바닥으로 추가하는 등 사민당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특히 슈뢰더 정권의 경제 개혁 정책 ‘아젠다 2010’ 추진 문제로 인해 당내에 분열이 발생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슈뢰더 총리는 본인은 총리로서 개혁정책에만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당수직을 사임한 것이다.

슈뢰더 총리는 프란츠 뮌터페링 사민당 원내총무를 차기 당수로 추천하였으며, 동 인은 3월 21일 개최된 특별전당대회에서 95.1%의 지지를 얻어 신임 당수로 취임되었다. 뮌터페링은 사민당에서 인정 받는 정치인으로 당과 공공 부문의 개혁과정에서 더 나은 중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민당은 지난 2002년 총선에서 녹색당과 연합해 가까스로 재집권하는데 성공했으나 당 지지율은 계속 추락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했으며, 금년 지방 선거에서도 패배가 전망되고 있다. 2월의 여론조사에서 당지지율이 24% 안팎으로 기민련(CDU/CSU)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사민당 지지율은 38.5%였다.

##### ○ 함부르크주의회 선거 참패 (2월 29일)

사민당의 텃밭인 함부르크 선거에서 2차대전 종전 이후 처음으로 부수정당인 기독교민주연합(CDU/CSU)에 패배하였다. 2월29일 실시된 함부르크 특별주 선거에서 야당인 기민련(CDU/CSU)은 47%의 지지율로 사상 첫 1당이 되면서 단독 집권하게 됐다. 사민당의 참패는 슈뢰더 총리 정권이 지난해부터 강력히 추진한 노령연금과 건강보험, 실업수당 등 각종 복지의 축소 및 해고규제 완화 등에 대한 반발 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슈뢰더 수상은 동 패배는 ‘뼈아픈 타격’ 이라고 시인하였으나, 경제개혁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내각을 개편할 계획이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표하였다.

#### (선거결과)

- 선거 참여율: 78.8%
- 기민당(CDU): 47.2% (+21.0%), 63석
- 사민당(SPD): 30.5% (-6.0%), 41석
- 녹색당(Gruene): 12.3% (+3.7%), 17석
- 자민당(FDP): 2.8% (-2.3%)
- Schill당: 3.1% (-16.3%)
- 기타: 4.1% (-0.1%)

○ 연방대통령 선거 (5월 23일)

5월 23일 개최된 연방회의에서 기민련(CDU/CSU)과 자민당 공동후보인 호르스트 쾰러(Horst Köhler, 61세)가 사민당과 녹색당 공동후보인 게지네 쉬반 (Gesine Schwan)을 누르고 연방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연방총회 대의원 총 1205명중 1204명이 선거에 참석하였다.

쾰러후보는 604표, 쉬반후보는 589표를 획득하였다. (무효 2표, 기권9표) 라우(Rau) 대통령의 임기는 6월 30일 종료되며, Koehler 당선자는 7월 1일 공식 취임 예정이다.

○ 유럽의회 선거(6월 13일)

독일 집권 사민당은 13일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2차대전 이후 최저의 지지율로 참패했다. 선거참여율은 43%였다. 안겔라 메르켈 (Angela Merkel)기민련 당수는 “적·녹연립정부의 정책이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 이라고 말하며 유럽의회 결과에 매우 흡족해 하였다.

정당별 득표율 및 의석수 (괄호안은 99년 선거대비 증감)

- 기민당(CDU): 44.5%(-4.2%), 49석
- 사민당(SPD): 21.5% (-9.2%), 23석
- 녹색당(Gruene): 11.9% (5.5%), 13석
- 민사당(PDS): 6.1% (+0.3%), 7석
- 자민당(FDP): 6.1% (+3.1%), 7석
- 기타” 9.9% (+4.5%)

○ Thür ingsen주의회 선거(6월 13일)

유럽의회선거와 동시에 튀링엔주 선거가 13일 실시되었는데, 동 선거도 사민당의 참패로 끝났다. 슈뢰더 총리가 복지 삭감과 노조 권리 약화 등 이른바 경제·사회 개혁안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경기침체가 개선되지 않고 4백만명이 넘는 실업자도 줄지 않아 유권자들의 불만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슈뢰더 정권이 갈수록 우파적 성향을 강하게 보이자 지난해부터 사민당 당원들의 탈당이 줄을 이었으며 전통적 지지층마저 등을 돌렸다.

선거결과 (괄호안은 99년 선거대비 증감)

- 선거참여율: 54%
- 기민당(CDU): 43%(-8%), 45석
- 민사당(PDS): 26.1% (+4.8%), 28석
- 사민당(SPD): 14.5% (-4%), 15석
- 녹색당(Gruene): 4.5% (+2.6%), 원내진출 실패
- 자민당(FDP): 3.6% (+2.5%), 원내진출 실패
- 기타: 8.3% (+2.1%)

이대로 갈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각종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것이 분명하고 나아가 2006년 총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슈뢰더 총리의 복지 삭감과 노조 권리 약화 등 이른바 경제·사회 개혁안이 기대했던 경제 회복 효과를 나타내지 않자 국민의 불만이 점점 커져만 가고 당 지지율은 추락하고 있다.

<사회 동향>

독일 정부의 경제회생방안인 “아젠다 2010”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19일 독일 상원은 노동시장 개혁, 소득세율인하 및 건강보험 관련 개혁법안을 의결하였다. 적·녹연정이 추진하는 개혁프로그램에 대해 사민당내 좌파는 사회적 약자층의 부담만 늘어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급진 개혁 성향인 녹색당은 개혁의 강도가 미진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개혁정책의 지속적 추진 가능성에 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개혁으로 인해 국민들은 복지 삭감과 노조 권리 약화 등을 감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은 지속되고 생활 개선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자 불만의 소리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 실업문제 여전히 심각

실업급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소규모기업의 경우 부당해고 금지규정의 적용을 배제, 연방노동청(Bundesarbeitsamt)의 주 업무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부여하여 연방노동청을 Bundesagentur fuer Arbeit (연방 일자리소개 에이전트)로 개명하는 등 연방정부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력과 노동시장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크게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5월 실업률은 10.3% (구서독: 8.2%, 구동독: 18.3%)로 전년동기 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의 일자리에 대한 불안심리는 지속되고 있어 내수부진은 좀처럼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 주 40시간 근무제 다시 도입

독일 IG-Metall 철강 및 전자노조의 동의에 의해 독일 내에 주40시간 근무제가 다시 도입되고 있다. IG-Metall은 구서독지역에는 주35시간 근무제, 구동독지역에는 주 38시간 근무제를 수많은 투쟁을 통해 획득했었다. 지멘스사 등 독일 대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비용 절감이 불가피하다며 저렴한 임금을 제공하는 국가로 인력 또는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등 독일에서는 감원을 실시하여왔다. 그러나 이번 노사간 임금협상에서 지멘스는 인력 해외이전을 실시하지 않는 대신 노조가 2년간 주40시간 근무를 임금조정 없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였는데, 노조가 이에 동의를 한 것이다. 독일 경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노조는 지멘스사의 주40시간 근무제 요구에 동의한 것으로 독일 산업계는 동 임금협상을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기업이 이를 본보기로 노조와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보원: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 및 독일 언론 / 수정일: 2004. 6. 28

34. 정치사회동향/2004년 하반기

<정치 동향>

슈뢰더 정권이 장기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 속에 각종 복지를 감축하고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하면서 사민당 지지율이 9월 초 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23-25의 사상 최저를 기록한 반면, 보수야당인 기민련은 45-50%의 지지를 받았다. 아울러 독일 집권 사회민주당이 주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연속으로 참패했다.

○ 자르란트(Saar land)주의회 선거 참패 (2004.9.5)

투표율은 55.5%를 기록, 5년 전 68.7%에 비해 급감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유권자 무관심이 더욱 커가고 있음을 반영했다. 사민당은 1960년 이래 자르란트주에서 최저 득표를 기록하였다. 사민당의 후보 하이코 마스는 경제난과 연방정부의 인기없는 개혁정책의 영향이 컸지만, 자르란트주 주지사를 지낸 바 있는 당내 좌파의 정신적 수장 오스카 라퐁텐에게도 큰 책임 있다고 주장했다.

라퐁텐은 1998년 연방총선 당시 사민당 당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게르하르트 슈뢰더에게 총리 후보직을 양보했으나 사민당 집권 후 당내 권력투쟁 과정에서 슈뢰더 총리에게 밀려나자 모든 공직을 사퇴한 후 은거해왔다.

이러한 라퐁텐 전 당수는 최근 동독지역에서 정부 정책에 항의, 과거 동독 공산정권에서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었던 ‘월요시위’가 개재되자 이를 지지하면서 슈뢰더 정부가 사민당의 전통적 가치를 무시하고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라퐁텐 때문에 선거를 망쳤다고 비난하는 것엔 무리가 있다. 사민당 지지율이 이미 상당히 추락한 가운데 올 상반기에 실시된 다른 주들의 지방선거와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사민당은 모두 참패했기 때문이다.

주목할 일은 5년 전 (1999년) 거의 득표하지 못했던 극우성향의 정당 국가민주당(NPD) 지지율이 4%에 달하고, 무소속이나 기타 정당 득표율도 6.9%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 선거결과

- 선거 참여율: 55.5%
- 기민당(CDU): 47.5% (+2%), 27석
- 사민당(SPD): 30.8% (-13.6%), 18석
- 녹색당(Gruene): 5.6% (+2.3%), 3석
- 자민당(FDP): 5.2% (+2.6%), 3석
- 국민당 (NPD): 4.0% (+4.0%)
- 기타: 6.9% (+2.7%)
- \*괄호안은 99년 선거대비 증감

○ 작센(Sachsen) 및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주의회 선거 극우정당 득세(2004.9.19)

‘월요시위’의 진원지인 라이프치히가 있는 작센주 선거에서 과거 독일정부가 신 나치라며 법으로 금지하려 했던 국가민주당(NPD)이 6년만의 최고 득표율인 9.2%의 지지율을 얻어 의회에 처음 진출하게 됐다.

수도 베를린을 둘러싼 주이자 동독지역 최대 인구를 가진 브란덴부르크주에선 또 다른 극우정당인 독일국민연합(DVU)이 6% 지지율을 획득했으며 민사당 지지율도 4.7%나 증가하였다. NPD와 DVU 모두 30세 이하의 젊은층과 실업자층에서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극우정당과 민사당의 약진은 장기 경기침체와 집권 사회민주당의 대폭적인 복지감축에 대한 동독지역 유권자들의 불만과 항의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작센주의 기민당 지지율이 15.8%나 하락한 것은 슈뢰더 정권의 경제 개혁에 비판을 할 뿐 실업 등 경제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야당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이다.

사민당은 우선 브란덴부르크주에서 당초 민사당에 밀려 제2당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3.9%의 차이로 제1당을 유지하게 된 것에 안도하며, 집권경쟁을 하는 기민련 지지율 하락 폭이 사민당 보다 더 크다며 이번 선거가 사민당에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낙관적인 평가를 했다.

■ 작센주 선거결과

- 선거 참여율: 59.6% (1999:61%)
- 기민당(CDU): 41.1% (-15.8%), 55석
- 민사당(PDS): 23.6% (+1.4%), 31석
- 사민당(SPD): 9.8% (-0.9%), 13석
- 국민당(NPD): 9.2% (+7.8%), 12석
- 자민당(FDP): 5.9% (+4.8%), 7석
- 녹색당(Gruene): 5.1% (+2.5%), 6석
- 기타: 5.1% (+0.2%)
- \*괄호안은 99년 선거대비 증감

■ 브란덴부르크주 선거결과

- 선거 참여율: 56.6% (1999: 54.3%)
- 사민당(SPD): 31.9% (-7.4%), 33석
- 기민당(CDU): 19.4% (-7.2%), 20석
- 민사당(PDS): 28.0% (+4.7%), 29석
- 독일국민연합(DVU): 6.1% (+0.8%), 6석
- 자민당(FDP): 3.3% (+1.4%)
- 녹색당(Gruene): 3.6% (+1.7%)
- 기타: 7.7%

\*괄호안은 99년 선거대비 증감

○ 사민당,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지방자치단체 선거도 패배(2004.9.26)

독일 내 최대 인구밀집 지역이자 산업 중심지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지방자치단체 선거도 집권 사회민주당의 패배로 끝났다. 4백여 개 시, 국, 구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은 뽑는 26일 선거에서 사민당은 31.3%를 득표한 반면 기민련은 43.2% 얻었다.

그러나 사민당은 지난 번 선거 때에 비해 득표율이 2.5%밖에 줄지 않았으며, 오히려 실시된 유럽의회 의원 선거나 6개 지방의회 주의회 선거에서 나타났던 것에 비해서는 지지율 하락 폭이 작아, 프란츠 뮌터페랑 사민당 당수는 이번 선거 결과를 “축하할 일은 아니지만, 그간의 참패들을 만회할 수 있는 전기를 제공했다’ 고 평가했다.

■ 선거결과 (괄호안은 99년 선거대비 증감)

- 기민당(CDU): 43.4%(-6.9%)
- 사민당(SPD): 31.4% (-2.5%)
- 녹색당(Gruene): 10.1% (+2.8%)
- 자민당(FDP): 7.0% (+2.7%)
- 민사당(PDS): 1.0% (+0.2%)
- 기타: 7.1% (+3.8%)

한편, 제2공영 방송인 ZDF가 전문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치 여론 동향조사’에서 현 정부의 개혁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이 48%, 반대자가 45%인 것으로 나타나 찬성 비율이 반대 보다 더 높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의 ZDF 조사에서는 찬성이 35%, 반대가 55%였다.

사민당은 이러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이제 유권자들이 고통스러운 정책의 진가를 인정해 주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반전되기 시작한 여론이 앞으로 개혁 정책의 효과들이 나타나면서 지지율 상승, 2006년 총선에서 승리로 이어져 3번 연속 재집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 전문가들은 사민당의 이러한 기대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복지감축으로 인한 서민들의 생활난 체감 농도가 내년엔 더 강해지면서 지지도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을 전망했다.

<사회 동향>

2004년 독일 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된 것은 ‘하르츠 IV’이다. 하르츠 IV는 독일 정부의 경제회생 방안인 ‘아젠다2010’의 일환으로 만성화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폴크스바겐 그룹의 인사담당 임원인 페터 하르츠(Peter Hartz)를 위원장으로 한 개혁위원회가 제안한 하르츠 특별법 I~IV의 마지막 단계이다.

핵심내용은 기존의 실업수당 지급 자격이 까다로워지고, 연차적으로 줄여 실업보조금과 영세민보조금을 통합해 최저 생활비 정도만 지급한다는 것이며, 지불 금액이 계산될 때 이전과는 달리 가족 도움이 가능한지, 또는 주택, 자동차, 생명보험 등 재산이 있는지 여부가 검토되며, 재산 유무에 따라 지불 금액이 산출된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도록 유도하여, 노동시장 활성화 효과를 얻으려는 것이다.

한편, 독일은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발달된 나라이며, 독일의 여러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핵심 항목은 ‘실업보조(Arbeitslosenhilfe)’인데, 이와 같은 사회보장 개혁은 2차 대전 이후 가장 크게 복지를 감축하는 개혁안이다. 아울러 노동계는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을 거세게 비판하며, 하르츠 IV는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과거 동독시절 자유를 달라고 외쳤던 ‘월요 시위’를 본보기로 월요일 마다 독일 대도시 여기저기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하르츠 IV는 연방하원을 통과,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실업보조금과 영세민 보조금을 통합해 책정된 최저 생활비 수준은 구서독 지역은 월 345유로, 구동독 지역은 월 331유로이다. 과연, 이와 같은 정부 정책이 기대했던 노동시장 활성화 효과를 가져다 줄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 실업문제 여전히 심각

2004년 상반기 연방노동청(Bundesarbeitsamt)의 주 업무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부여하여 연방노동청을 Bundesagentur fuer Arbeit (연방 일자리소개 에이전트)로 개명하는 등 연방정부의 노동시장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크게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실업률은 10.3%로 전년동기 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이전 추세로 인해 국내 감원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독일 국민의 일자리에 대한 불안심리는 지속되고 있어 내수부진은 좀처럼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정보원: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 및 독일 언론 / 수정일: 2004.12.21

### 35. 정치사회동향/2005년 상반기

#### <정치 동향>

지난 2002년 총선 직후부터 추락하기 시작한 독일 집권당의 지지율이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야당 지지율을 따라잡았다. 올 1월 시사 주간지 슈테른(Stern)과 민영 RTL방송의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도좌파 연정을 구성 중인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지지율이 45%로 보수 야권 세력인 기독교민주연합과 자유민주당의 지지율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사민당(SPD) 35%, 녹색당(Die Gruene) 10%, 기민련(CDU/CSU) 38% 자민당(FDP) 7%이다.

2005년 주요 선거일정은 2월 20일 쉘레스비히-홀슈타인주(Schleswig-Holstein) 주의회 선거와 5월 22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 주의회 선거로, 내년 가을의 차기 통일 총선의 결과를 가능할 잣대로 평가되어 왔다. 사민당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주의회 선거에서 39년 만에 패배하였으며, 참패한 직후 갑자기 조기총선 실시라는 정면 승부수를 내놓았다.

#### ○ 쉘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주의회 선거 사민당 사실상 패배 (2005.2.20)

투표율은 66.6%로 5년 전 69.5%에 비해 감소됨으로써 정치에 대한 유권자 무관심이 더욱 커져가고 있음을 반영했다. 사민당 지지율은 2000년에 비해 4.4%포인트 줄어든 38.7%이었으며, 사민당과 연립한 녹색당 지지율은 6.2%로 변함이 없었다.

한편, 보수 야당인 기독교민주연합은 2000년 선거에 비해 지지율이 5%나 늘어나 40.2%를 기록했으며, 기민당과 손잡은 자민당 지지율은 6.6%로 1%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주의회 의석은 기민당 30석, 사민당 29석 자민당과 녹색당이 각각 4석으로 흑·황연합이 34석이며, 적·녹연합은 33석으로 양쪽 모두 총 69석의 과반인 35석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흑·황연합이 주 권력을 넘겨 받지 못했다. 남은 2석은 소수 정당인 SSW가 쥐게 됐다. 독일 최북단의 주인 쉬레스비히 홀슈타인주는 덴마크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SSW는 덴마크계 독일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다.

쉬레스비히-홀슈타인에서 기민당과 사민당이 현재 ‘大연합’을 이루고 있으며, Peter Harry Carstensen(CDU)이 주시사로 집권하게 됐다.

(선거결과)

- 선거 참여율: 66.6% (-2.9%)
  - 기민당(CDU): 40.2% (+5%), 30석
  - 사민당(SPD): 38.7% (-4.4%), 29석
  - 녹색당(Gruene): 6.2% (0%), 4석
  - 자민당(FDP): 6.6% (-1.0%), 4석
  - SSW: 3.6% (-0.5%)
  - 기타: 4.7% (+1.0%)
- \*괄호안은 2000년 선거대비 증감

○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의회 39년 만에 패배(2005.05.22)

투표율은 63%로 5년 전 56.7%에 비해 증가하였다. 사민당 지지율은 2000년에 비해 5.7%포인트나 줄어든 37.1%로, 사민당은 39년만에 집권을 기민당에 넘겨주어야 했다.

독일에서 근로자 지향적인 당으로 인식되어 오던 사민당이 인구 및 산업밀집도가 가장 높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선거가 참패로 끝난 것은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이 사민당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었음을 반영해 주고 있다.

(선거결과)

- 선거 참여율: 63% (+6.3%)
  - 기민당(CDU): 44.8% (+7.8%), 89석
  - 사민당(SPD): 37.1% (-5.7%), 74석
  - 녹색당(Gruene): 6.2% (-0.9%), 12석
  - 자민당(FDP): 6.6% (-3.6%), 12석
  - 기타: 5.7% (+2.4%)
- \*괄호안은 2000년 선거대비 증감

<사회동향>

○ 올 초 실업자 수 나치 시기인 1930년대 이래 처음으로 500만명 넘어

올 초 실업자수가 나치 시기인 1930년대 이래 처음으로 500만명을 넘었다는 소식으로 다시 한번 실업문제가 사회적 불안을 야기했다. 한편, 노동청에 따르면 4월 실업자 수가 전달보다 19만3000명이 감소된 498만명으로 줄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날이 따뜻해지면서 건설 현장 등의 일자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조정 실업자 수는 오히려 전달보다 늘어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 실업문제로 여전히 사회문제로 남아있다.

○ 외무부의 비자사건

녹색당 소속인 요슈카 피셔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이끄는 외무부가 지난 2000년 독일 입국 비자 발급 규정을 완화했는데, 이후 정상적으로는 독일에 입국 체류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수만명이나 입국했음이 뒤늦게 드러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매춘부와 불법노동자가 합법적으로 독일에 입국했으며, 이 과정에 조직범죄단이 개입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비자 파문은 실업자가 500만명을 넘어선 독일 사회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여론 확산으로 이어졌다.

요슈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은 25일 외무부의 비자 발급 실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만 발급 규정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 정책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비자 파문으로 인해 그동안 정치인 인기도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였던 피셔 장관 지지도는 이 사건 이후 추락, 3년여 만에 2위로 밀려났으며, 여당 지지율 하락에도 이번 파문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자료원: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 및 독일 언론(2005. 6.)

### 36. 정치사회동향/2005년 하반기

#### <정치 동향>

2005년 9월18일 1년 앞당겨 실시된 총선결과는 국민의 당으로 불리우는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의 패배로 끝났다. 당초 보수정당인 기민/기사연합은 자민당과 과반수를 획득해 소위 ‘흑-황 연정’ 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왔으나 과반 획득에 실패했다.

연정을 이루었던 사민당과 녹색당은 총선 전 여론조사 결과보다 우수한 지지율을 얻었으나, 과반 획득에는 실패해, 현재 정부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될지, 누가 수상이 될지 불확신한 상태에 있다.

또한, 총선 결과가 나온 직후 슈뢰더 수상과 메르켈 기민당 당수 모두 자신들의 주도로 연정을 구성하겠다고 밝혀 독일 정세가 점점 혼란스러운 상태로 빠지고 있다.

#### (선거결과)

- 선거 참여율: 79%
- 기민/기사연합(CDU/CSU): 35% (-3.5%), 217석
- 사민당(SPD): 34.2% (-4.3%), 213석
- 녹색당(Gruene): 8.2% (-0.4%), 51석
- 자민당(FDP): 10.1% (+2.7%), 63석
- 민사당/좌당(PDS/Linke): 8.7% (+4.7%), 54석
- 기타: 3.8%

\*괄호안은 2002년 선거대비 증감

<사회동향>

○ 총선 결과 국민의 불안 심리 반영

여론은 이번 총선의 결과는 독일인들의 불안심리가 잘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속되는 높은 실업률로 인해 내수침체는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1년 앞당겨 실시한 총선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독일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가고 있다.

국민들은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정권이 바뀌는 것을 원하면서도 정권을 획득하면 ‘부가가치세를 인상시키겠다’ ‘조세개혁을 실시하겠다’ 는 기민/기사당이 정치가 과연 미래의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한 문의를 풀지 못해, 이와 같은 선거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독일의 전반적인 내수침체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구성 및 수상문제가 장기전으로 이루어진다면 독일의 사회 불안이 더욱더 심각해 질 것으로 분석된다.

\* 자료원: 독일 언론(2005.09.)

### 37. 국가원수

직 위 : 대통령 (Federal President)

성 명 : Horst Koehler

취임일 : 2004. 7. 1.

약 력

- 1943년2월22일 폴란드 Skierbieszow에서 출생  
(인구 1천여명의 동부 폴란드 소읍에서 8남매 가운데 둘째로 출생)
- 부인 Eva Koehler의 사이에 자녀 2명  
자녀 : 딸 - 울리케 - 문학전공 . 아들 - 요헨 - 경제학도
- 학력  
  . 튀빙엔대학졸업 경제학 전공(Diplom)
- 경력  
  . 튀빙겐 응용경제학 연구소 연구원(1969 - )  
  . 연방 경제부 근무 (1976-1981)  
  . 쉘레스비히- 홀슈타인주 총리실 근무 (1981-1982)  
  . 연방 재무부 근무 (1981-1993)  
  . 연방 재무부 사무차관 임명 (1990)  
  . 독일 저축은행 조합장 (1993 - )  
  . 런던 유럽부흥개발은행장 (1998 - )  
  . 워싱턴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 (2000 - )  
  . 연방 대통령 선거 출마 (2004.5)

종교 : 개신교 (Protestant)

<최고실권자>

직 위 : 수상 (Chancellor)  
성 명 : Gerhard Schroeder  
취임일 : 1998.10.27. (2002년10월 제2기 연임)

약 력

- 1944년4월7일 독일 Mossenberg 출생
- 부인 Doris Schroeder-Koepf
- 학력
  - . 직업학교 졸업
  - . 법률학 전공(괴팅겐 대학), 1.2차 사법 국가고시 합격
- 경력
  - . 사민당(SPD) 입당 (1963년)
  - . 사민당 청년당원(Juso) 전국대표 (1978-1980)
  - . 사민당 니더작센주 의장 (1994-1998.9.29)
  - . 사민당 연방수상 후보자로 지명 (1998.3.1)
  - . 사민당 당수 (1999 - 2004.2)
  - . 연방수상으로 취임 (1998.10.27)

종 교 : 개신교(Protestant)

취 미 : 테니스

\*\* 현재(2005년2월 22일) 2005년 9월18일 총선결과에 따르면 사민당과 기민당이 각각 연정을 계획했던 녹색당과 자민당과 함께 과반수를 대표할 수 없음으로 정부구성이 어떻게 될지 또 누가 수상으로 취임 될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당간의 연정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임

\*자료원: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www.bundesregierung.de](http://www.bundesregierung.de), 2005.09) 및 신문기사

### 38. 주요인사

(외무부장관) Joseph(Joschka) Fischer

- 부수상
- 1948년 4월 12일생
- 동맹90/녹색당 (Buendnis 90/Die Gruenen) 소속
- 프랑크푸르트 대학 정치학과 중퇴
- 헛센주 환경 ▪ 에너지장관 역임 (1991-1994)
- 1998년 10월부터 연방 외무부장관겸 부수상

(내무부장관) Otto Schily

- 1932년 7월 20일생
- 사민당(SPD) 소속
- 법학전공, 변호사 자격 취득
- SPD 연방하원 원내 부의장 (1994-1998)
- 1998년 10월부터 연방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Brigitte Zypries

- 1953년 11월 16일생 (여)
- 사민당 (SPD) 소속
- 법학전공, 변호사 자격 취득
- 니더작센주 여성·노동·사회부 및 연방내무부 사무차관 역임 (1997-2002)
- 2002년 10월부터 연방 법무부장관

(재무부장관) Hans Eichel

- 1941년 12월 24일생
- 사민당 (SPD) 소속
- 마부르크 및 베를린에서 독일문학, 철학, 정치학 전공
- 헛센주 주지사 (1991-1999)
- 1999년 4월부터 연방 재무부장관

(경제 노동부장관) Wolfgang Clement

- 1940년 7월 7일생)
- 사민당(SPD) 소속
- 윈스터대학 법학 전공, 1차 사법 국가고시 합격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지사 (1998-2002)
- 2002년 10월부터 연방 경제노동부장관

(소비자보호 식품 농업부장관) Renate Kuenast

- 1955년 12월 15일생 (여)
- 1979년 서베를린 AL 당원
- 1979년 변호사자격 취득
- 2000.6.-2001.3. Buendnis 90/Die Gruenen 중앙당집행부 의장
- 2001년 1월부터 연방 소비자보호 식품 농업부장관

(국방부장관) Dr. Peter Struck

- 1943년 1월 24일생
- 사민당 (SPD) 소속
- 1964년부터 SPD 당원, 1980년 연방원내의원
- 1998-2002년 SPD 원내의원 의장
- 2002년 7월부터 연방 국방부장관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장관) Renate Schmidt

- 1943년 12월 12일생 (여)
- 사민당(SPD) 소속
- 1991-2000년 바이에른 사민당지부장
- 2002년 10월부터 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Ulla Schmidt

- 1949년 6월 13일생 (여)
- 사민당 (SPD) 소속
- 1972-74 심리학/교육학 전공(아헨대학)
- SPD 원내의원(1990- )
- 2001년 1월 연방 보건부장관 취임/2002년 10월부터 연방 보건복지부장관

(교통 주택 건설부장관) Manfred Stolpe

- 1936년 5월 16일생
- 사민당(SPD) 소속
- 브란덴부르크 주지사 역임
- 2002년 10월부터 연방 교통 주택 건설부장관

(환경 자연보전 핵안전부장관) Juergen Trittin

- 1954년 7월 25일생
- 동맹90/녹색당 (Buendnis 90/Die Gruenen) 소속
- 연방하원 의원
- 1998년 10월부터 연방 환경 자연보전 핵안전부장관

(교육 및 연구부장관) Edelgard Bulmahn

- 1951년 3월 4일생 (여)
- 사민당(SPD) 소속
- SPD 원내 교육 및 연구 상임위 대변인
- 1998년 10월부터 연방 교육 및 연구부장관

(경제 협력부장관) Heidemarie Wiecezorek-Zeul

- 1942년 11월 21일생 (여)
- 사민당(SPD) 소속
- 연방하원 의원 및 SPD 원내 유럽정치부문 대변인
- SPD 의장 대변인
- 1998년 10월부터 연방 경제협력부장관

\*2005년 9월 18일 총선 이후 현재 정부구성에 대한 연정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임.  
30일내에 내각이 구성될 것으로 분석됨.

\* 자료원: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www.bundesregierung.de](http://www.bundesregierung.de), 2005.09.)

### 39. 행정구역

독일연방공화국은 Baden-Wuerttemberg, Bayern, Brandenburg, Hessen, Schleswig-Holstein, Niedersachsen, Hamburg, Bremen, Saarland, Nordrhein-Westfalen, Sachsen, Mecklenburg-Vorpommern, Rheinland-Pfalz, Sachsen-Anhalt, Thuringen, Berlin의 16개 주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은 언제나 여러 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수세기에 걸쳐 그 형태에 변화를 거듭해 왔다. 현대에 들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19세기 초에 벌어진 나폴레옹 전쟁과 1886년의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간의 전쟁, 그리고 1,2차 세계대전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후 독일이 분할되어 점령되면서 가장 큰 주인 프로이센이 해체되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연방주들의 형태는 1945년 이후에 결정된 것이지만,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경계는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 1990년에독일이 재통일 될 때까지 연방공화국은 전서방 점령지에서 탄생한 열한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었고, 1946년에서 1957년 사이에 민주주의 헌법을 채택하였다.

소련 점령지에서 발전된 독일민주공화국 (동독)에는 부분적으로 전통적인 경계선을 따른 다섯개의 주가 형성되었으나 1952년 동독정부는 연방체제를 해체하고 중앙집권 체제로 교체하였다. 그러나 1989년 10월 민주혁명 이후에 동독 국민들은 이전의 연방체계를 다시 회복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 3월 18일 동독의 첫번째 자유선거이후 의회는 다섯개의 연방주를 새로이 구성하도록 결정하였다. 결국 동독은 1952년 이전의 연방국가 형태를 되찾게 되었다.

1990년 10월 3일 베를린 그리고 그와 함께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 - 포이폼먼, 작센-안할트, 튀링겐이 독일 연방공화국에 가입함으로써 독일의 통일이 이룩되었다.

#### <바덴-뷔르템베르크>

- 면 적 : 35,752km<sup>2</sup>
- 인 구 : 1,071만7천명(외국인 128만1천명 /12%)
- 수 도 : 슈투트가르트
- 주요기관 : 칼스루에에 독일 최고의 사법기관인 연방법원과 연방헌법재판소 소재
- 주요산업 : 자동차와 마이크로칩(Benz, Bosch, IBM), 정유산업(Karlsruhe), 버스 및
- 인쇄기계제조, 서비스산업 독일의 연방주 가운데 최강의 경제수준 자랑
- 특기사항 : 칼스루에의 핵연구센터, 하이델베르크의 독일 암연구센터, 다수의 막스
- 플랑크연구소, 아홉 개의 종합대학 등이 있다.

#### <바이에른>

- 면 적 : 70,550km<sup>2</sup>
- 인 구 : 1,244만3천명(외국인 117만5천명/9.4%)
- 수 도 : 뮌헨
- 주요산업 : 관광(알프스의 산악지대, 구릉지대, 호수, 독일최초의국립공원), 자동차 및 항공기제조, 전자및전기, 보험, 출판, 기계제조 및 완구산업 (뉘렌베르크), 석유산업, 자동차산업 (아우구스부르크), 농업, 맥주산업
- 특기사항 : 독일 최대 면적의 주, 종합대학 및 다수의 전문대학 소재

<베를린>

- 면 적 : 883km<sup>2</sup>
- 인 구 : 338만7천명(외국인 45만4천명/13.4%)
- 수 도 : 베를린
- 주요기관 : 연방의회, 연방행정부
- 주요산업 : 기계제조, 식품 및 주류산업, 제약산업, 석유산업
- 특기사항 : 독일의 수도이자 유럽 문화의 중심, 수많은 극장과 박물관, 마이트 원자물리학 연구소, 헤르츠 통신기술연구소, 프로이센 문화재단 소재

<브란덴부르크>

- 면 적 : 29,476km<sup>2</sup>
- 인 구 : 256만7천명(외국인 6만7천명/2.6%)
- 수 도 : 포츠담
- 주요산업 : 농업, 강철, 갈탄, 기계제조 및 자동차산업(벤츠의 화물차 조립공장), 전자공학과 기계산업
- 특기사항 : 샹수시 공원의 건축물

<브레멘>

- 면 적 : 404km<sup>2</sup>
- 인 구 : 66만3천명(외국인 8만4천명/12.8%)
- 수 도 : 브레멘
- 주요산업 : 해상교통 및 조선, 항공 및 우주산업, 자동차산업
- 특기사항 : 두 개의 도시(Bremen, Bremerhaven)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연방주 구성, 면적과 인구면에서 독일에서 가장 작은 주

<함부르크>

- 면 적 : 755km<sup>2</sup>
- 인 구 : 173만4천명(외국인 24만4천명/14.1%)
- 수 도 : 함부르크
- 주요기관 : 세계각국의 영사관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도시
- 주요산업 : 해외무역 및 교통의 중심지, 조선소, 정유소, 항공 및 우주산업, 전자산업, 정밀산업, 화학공업, 북부 독일 금융 및 서비스의 중심지 언론도시
- 특기사항 : 독일의 가장 중요한 항구,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산업 소재지

<헤센>

- 면 적 : 21,114 km<sup>2</sup>
- 인 구 : 609만7천명(외국인 69만4천명/11.4%)
- 수 도 : 비스바덴
- 주요기관 : 유럽중앙은행(ECB, 프랑크푸르트), 연방은행 본점(프랑크푸르트)
- 주요산업 : 금융, 박람회 중심지,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중심지, 기계제조, 기관차 및 객화차제조, 자동차제조(Hoechst, Opel), 가죽산업(offenbach), 광학산업(Wetzlar)
- 특기사항 : 유럽 최대의 화물항공이자 두 번째로 큰 여객항공인 프랑크푸르트 공항 소재 괴테의 탄생지(프랑크푸르트), 대학도시(Marburg, Giessen)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 면 적 : 23,173km<sup>2</sup>
- 인 구 : 171만9천명(외국인 3만9천명/2.3%)
- 수 도 : 슈베린
- 주요산업 : 농업, 목축업, 관광업
- 특기사항 : 1,000개의 호수를 가진 주

<니더작센>

- 면 적 : 47,616km<sup>2</sup>
- 인 구 : 800만명(외국인 53만6천명/6.7%)
- 수 도 : 하노버
- 주요기관 : 연방물리기술센터
- 주요산업 : 식품업(베이컨, 꿀), 광산업(철광석, 천연가스), 박람회산업, 자동차 산업(VW)
- 특기사항 : 독일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큰 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 면 적 : 34,082km<sup>2</sup>
- 인 구 : 1,807만5천명(외국인 196만4천명/10.8%)
- 수 도 : 뒤셀도르프
- 주요기관 : 통독전 연방공화국의 수도 소재지 (본)
- 주요산업 : 에너지산업 (31개 발전소 소재), 엔진, 소재산업, 양조
- 특기사항 : 독일의 연방주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주, 유럽 최고의 인구 밀집 지역

<라인란트-팔츠>

- 면 적 : 19,847km<sup>2</sup>
- 인 구 : 406만1천명(외국인 31만1천명/7.7%)
- 수 도 : 마인츠
- 주요산업 : 화학산업 (BASF), 포도주
- 특기사항 : 구텐베르트 인쇄박물관 소재

<자알란트>

- 면 적 : 2,568km<sup>2</sup>
- 인 구 : 105만6천명(외국인 8만8천명/8.4%)
- 수 도 : 자아브뤼켄
- 주요산업 : 박람회산업, 유리와 도자기 제조, 기계, 금속가공업
- 특기사항 : 종합대학 집중, 심포지움의 도시

<작센>

- 면 적 : 18,413km<sup>2</sup>
- 인 구 : 429만6천명(외국인 11만8천명/2.8%)
- 수 도 : 드레스덴
- 주요산업 : 박람회산업, 도자기, 전자공업, 자동차(폭스바겐, 폴로), 출판산업(라이프찌히)
- 특기사항 : 슈만 바그너 탄생주, 구동독주 중 가장 경제전망이 밝은 주

<작센-안할트>

- 면 적 : 20,446km<sup>2</sup>
- 인 구 : 249만4천명(외국인 4만7천명/1.9%)
- 수 도 : 막데부르크
- 주요산업 : 농업(밀, 사탕무우, 채소), 화학공업
- 특기사항 : 헨델의 출생주

<술레스비히-홀슈타인>

- 면 적 : 15,761km<sup>2</sup>
- 인 구 : 282만8천명(외국인 15만1천명/5.3%)
- 수 도 : 키일
- 주요산업 : 관광업

<튀링겐>

- 면 적 : 16,171km<sup>2</sup>
- 인 구 : 235만5천명(외국인 4만7천명/2.0%)
- 수 도 : 에어후르트
- 주요산업 : 공작기계, 정밀 및 광학(Jena, Zeiss ), 자동차(Opel), 전기 및 전자(Bosch), 농업 (보리, 밀, 감자, 사탕무, 과일)
- 특기사항 : 다른주에 비해 녹지가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어 독일의 녹색 심장(German Greenheartland)로 불리우며, 문인들이 많이 살았다.

○ 인구는 2005년 8월 18일 기준

\* 자료원 : 독일연방 통계청 ([www.destatis.de](http://www.destatis.de), 2005.09)

## 40. 대외관계

### <대외 관계>

통일과 더불어 독일은 대외정책 수행상 제약 요소가 해소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이 크게 향상 되었는데, 경제분야에 이어 정치, 안보분야에서도 유럽의 핵심국가로 부상하였으며, 구주통합 추진과 구주방위 및 대동구권 정책수행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은 미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대서양 협조체제를 강화하면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개혁 작업이 계속 추진되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구동구권 군소국가에 대하여는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적절히 제공하는 등 동.서 양면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침략을 둘러싼 이견으로 독일과 미국의 관계가 한 동안 냉각되었다. 이라크 문제로 냉각됐던 양국 관계는 부시대통령이 2005년 2월 3년만에 독일을 방문하면서 대외적으로 화해와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개혁과 이란 핵문제 해법, 이라크 재건 참여, 대중국 무기 금수 해제 등에 대한 양국간의 이견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독일은 중.동구 국가들의 EU, WEU, NATO 가입을 적극 지원하고 OSCE의 기능 강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중.동구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은 막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독일의 정치.외교적 역할 강화는 EU 핵심 국가인 불란서 및 영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최근 (2004.6.18) EU-25국가는 유럽연합 헌법체결에 동의하여 대외적으로 단일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유럽연합 헌법안에 대한 EU-25국가의 일치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 독일은 유럽헌법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상원과 하원에서 비준절차를 실행하였다. 한편, EU25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실시한 EU헌법비준절차에서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 부결로 인해 EU헌법은 계획했던 것처럼 2007년부터 실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 헌법안은 모든 가입 국가들의 가결해야만 통과될 수 있다.

독일의 대외정책 기조를 보면 아래와 같다

- 유럽통합과 NATO를 중심으로 한 대서양 양안의 협력체제의 강화,
- UN, OECD등 국제기구의 위상제고
- 인권존중 정신에 따라 평화 및 화해를 위한 역할구축,
- 러시아, 동구권 국가 및 아.태지역과의 협력강화

2003년 1월부터 유엔 비상임 이사국인 독일은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온갖 외교전을 펼친 끝에 어느 정도 지지세력을 잠정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패권주의에 공동전선을 펴온 프랑스와 러시아의 지지를 확신하고 있다. 슈뢰더 총리는 본인의 60회 생일 잔치에 외국 정상 가운데 푸틴 대통령만 초청할 정도로 개인적 친분까지 두텁다.

슈뢰더 총리와 피셔 외무부장은 독일이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질 수 있도록 아시아 권력층의 환심을 사는데 초점을 맞춰 아시아권을 방문하는 등 지지세력 확보에 열중하고 있다. 독일은 오는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임이사국 진출을 신청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요슈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이 지난 6월 22일 밝혔다.

2005년 9월18일 1년 앞당겨 실시된 총선은 사실상 기민/기사당과 사민당이 모두 패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기민/기사연합(35%)은 계획했던 것처럼 자민당(10.1%)과 연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했으며, 사민당(34.2%) 또한 녹색당(8.2%)과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해 정권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여론은 이와 같은 투표결과는 국민의 불안심리와 정부에 대한 불신이 확연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9월22일) 어떤 연정구성이 이루어질지 불확실한 상태로 당간의 연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독일 언론은 다양한 연정구성 시나리오 중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대연정(사민당, 기사/기민연합), 신호등 연정(사민당, 자민당, 녹색당) 그리고 흑-황연정(기민/기사연합, 자민당)에 녹색당이 가세하는 '자메이카' 연정을 꼽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기민당 당수 모두 총선 결과가 나온 직후 모두 자신들의 주도로 연정을 구성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어떤 정부구성이 이루어질지 전망하기 어렵다. 슈뢰더수상과 메르켈 기민당 당수는 미국, 터키 등 대외정책에 있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누가 수상이 되느냐에 따라 대외정책방향 변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자료원: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www.bundesregierung.de,2005.09](http://www.bundesregierung.de,2005.09))  
독일 언론종합(2005. 6)

## 41. 국가경쟁력/2004년 국가경쟁력

<2004년도 종합순위 : 4위>

### 요소별 연도별 순위

|                       | 2001 | 2002 | 2003 | 2004 |
|-----------------------|------|------|------|------|
| Economic Performance  | 4    | 5    | 3    | 4    |
| Government Efficiency | 8    | 4    | 8    | 12   |
| Business Efficiency   | 5    | 5    | 6    | 6    |
| Infrastructure        | 2    | 3    | 4    | 4    |

요소별 세부항목

| 요소                    | 순위 | 기준                          | 순위 |
|-----------------------|----|-----------------------------|----|
| Economic Performance  | 3  | - Domestic Economy          | 11 |
|                       |    | - International Trade       | 3  |
|                       |    | - International Investment  | 4  |
|                       |    | - Employment                | 13 |
|                       |    | - Price                     | 5  |
| Government Efficiency | 12 | - Public Finance            | 23 |
|                       |    | - Fiscal Policy             | 28 |
|                       |    | - Institutional Framework   | 16 |
|                       |    | - Business Framework        | 6  |
|                       |    | - Education                 | 3  |
| Business Efficiency   | 6  | - Productivity              | 9  |
|                       |    | - Labor Markets             | 13 |
|                       |    | - Financial Markets         | 6  |
|                       |    | - Management Practices      | 7  |
|                       |    | - Impact of Globalization   | 19 |
| Infrastructure        | 4  | - Basic Infrastructure      | 2  |
|                       |    | - Tech. Infrastructure      | 4  |
|                       |    | - Scientific Infrastructure | 3  |
|                       |    | - Health and Environment    | 1  |
|                       |    | - Value System              | 10 |

\* 자료원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4

## 42. 도량형

### <도량형>

거리는 미터법, 무게는 kg을 사용하고 있다.

### <전기규격>

일반 가정 및 사무실은 230V, 50Hz를 사용하고 있다.

### <시간 표시법>

정오 이후의 시각은 일반적으로 13시, 14시, 15시 등으로 표현한다.

\*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2005. 9)

## 43. 관공서 관행

### <민원 처리기간>

종류에 따라 매우 다르나 보통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모든 공식적인 업무 역시 서면처리가 원칙이다.

### <관공서 방문시 유의사항>

관공서의 업무처리는 원리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며 뇌물은 통용이 안된다. 그러나 비즈니스 런치 정도는 업무 진행에 순기능을 하며, 지인을 통한 업무 추진도 일의 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다.

### <관공서 근무시간>

일반적으로 월, 화, 목요일은 09:00-18:00까지 근무하며, 수, 금요일은 09:00-12:00까지 근무하나, 민원업무 시간은 각 지역별 관공서별 차이가 있으니 사전 문의가 필수적이다.

\*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2005. 9)

## 44. 국제공항 및 항구

### <국제공항>

국제공항으로는 Frankfurt/Main, Muenchen, Duesseldorf, Berlin, Hamburg, Stuttgart, Koeln/Bonn, Saarbruecken, Muenster-Osnabrueck, Friedrichshafen, Hannover, Bremen, Nuernberg, Dresden, Leipzig 등이 있다.

최대공항인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은 연간 이용승객이 5천 만명을 넘고 있다. 이 공항은 Terminal 1 (Hall A, B, C) 및 Terminal 2 (Hall D, E)로 구분되고 있으며 양 Terminal 간에는 06-24시 사이 무료 스카이라인이 매 4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스카이라인의 소요시간은 약 5분이다. Terminal 1에서는 Lufthansa와 아시아나가, Terminal 2에서는 KAL, JAL, 등 주로 외국 항공사들이 취항하고 있다.

Frankfurt 도심으로의 교통편은 택시와 기차 모두 가능하며, 택시는 도심까지 약 20분 (약 15km), EUR 25-30 수준이며, 기차는 공항 지하에서 탑승, 중앙역까지 연결 (약 EUR 5.00) 된다.

### <국제항구>

북해 항구로는 Hamburg, Bremen, Bremerhaven, Wilhelmshaven 등이 있으며, Baltic 해안으로는 Kiel, Rostock이, 내륙항으로는 Duisburg 가 있다.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2005. 9)

## 45. 매스미디어

### <신문>

독일에서는 약 410종의 일간지가 발행되고 있으며, 가장 발행 부수가 많은 대중적인 일간지는 Bild지로서 약 3.8백만부가 판매된다. 뒤를 이어 Westdeutsche Allgemeine (1.2백만부), Hannoversche Allgemeine (55만부) 등이 있고, 발행 부수는 적으나 영향력 있는 일간지로는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Die Welt, Sueddeutsche Zeitung, Frankfurter Rundschau, Handelsblatt, Berliner Zeitung 등을 들 수 있다.

### <방송>

라디오 방송으로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Deutschlandfunk (DLF)와 Deutsche Welle (DW)가 전국적인 방송망을 갖추고 있으며 11개 지방방송국이 각 지방특성에 맞는 방송을 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가 속해 있는 헤센주에는 Hessische Rundfunk가 있다.

- DLF 주파수 : AM1539, 1269, 549 KHz, FM103.3, 104.6MHz
- HR1 : AM 594KHz, FM88.1, 90.6, 91.3, 94.4, 100.1 MHz
- HR2 : FM 95.0, 97.4, 99.6 MHz
- HR3 : FM 89.5, 92.7, 96.7 MHz

이밖에 Radio FFH 라는 민간방송 (100.2 MHz)도 인기를 끌고 있다.

TV는 ARD와 ZDF라는 두 개의 국영방송 이외에 HR, WDR과 같은 10개 지방방송국과 SAT, RTL, PR07, Euro Sport, DSF 과 같은 민간방송국이 있는데 최근에는 CNN도 시청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모든 외국방송은 독일어로 더빙이 되어 방영되고 있으며 CNN과 Super Channel은 영어로 방송되고 있다.

\*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2005. 6)

## 46. 주한 주재국기관

### o 주한 독일대사관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308-5  
Tel : 748-4114, Fax : 748-4171

### o 부산 명예영사관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956-45  
Tel : (051) 742-5929, Fax : (051) 741-5920

o 한독 상공회의소 (Korean-Germ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서울 용산구 한남동 28-2 신원플라자 B/D 8층  
Tel : 3780-4600, Fax: 3780-4637

o 독일 대외무역 진흥청 (BfAI) 서울사무소  
서울 용산구 한남동 28-2 Tel : 3780-4600, Fax : 3780-4637

o 함부르크 항만청 (Port of Hamburg) 한국대표부  
Tel : 581-1569, Fax: 3474-0988

o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경제개발공사 서울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8-21 코리아비즈니스센터 1409호  
Tel : 3473-1805/6, Fax : 3473-1807

o 바이에른주 (Bayern) 한국 사무소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6번지 내외빌딩 12층  
Tel : 775-7436,7437, Fax : 778-1269

o 브레멘주 (Bremen) 한국 사무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1  
Tel : 527-4480~1, Fax : 527-4482

o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Nordrhein-Westfalen) 한국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8-21, 한국비즈니스빌딩 1409호  
Tel : 3473-1805~6, Fax : 3473-1807

o Messe Frankfurt Korea  
서울 중구 서소문동 75-95 유원빌딩 7층  
Tel : 775-2280, Fax : 776-5113

\*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2005. 9)

## 47. 현지화제 유머속담/유머1 : "보스"라고 부르는걸 보니

한 남자가 새 파는 가게에 들어와 앵무새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가게 점원은 손님에게 앵무새 한 마리를 보여주면서 "이 새는 5,000마르크 짜리입니다"라고 했다.

"뭐라고요" 그 남자는 깜짝 놀라면서 " 무슨 새가 그렇게나 비싸요?"

"아, 예. 이 새는 아마존산으로서 목이 노랄 뿐만 아니라 독일어에 영어, 불어까지 유창하게 하기 때문이지요." 라고 점원은 대답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새는 너무 비싸네요. 저쪽에 있는 저 새 한번 보여 주시죠?"

종업원은 손님이 원하는 그 새를 보여 주면서,

"이 앵무새는 오리노코 계곡에서 산던 새로서 빨간 배에 파란 턱을 가진 아주 진기한 새지요. 뿐만 아니라 이 새는 독일어, 영어, 불어에 스페인어와 이태리어 구사는 물론 동시통역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가격은 10,000마르크입니다."

"세상에 그런 비싼 새가 다 있어요?" 손님은 가격에 질려 버렸다. "그렇다면 나는 저 구석에 있는 평범한 앵무새를 사겠어요."

점원 하는 말: " 잘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회색 새는 50,000마르크 짜리입니다."

"아니 저 보잘 것 없는 새가요?" 손님은 기가 막혀 소리쳤다.

" 이 새는 무진장 재주가 많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본 2마리 앵무새가 모두 이 새보고 '보스' 라고 부르거든요. "

#### 48. 현지화제유머속담/속담1 : 고양이가없는집에는 쥐가 춤춘다

원어 : Wenn die Katze nicht Hause ist, tanzen die Maeuse.

내용 : 말 그대로 고양이가 집을 비웠을 때는 쥐들이 춤을 춘다는 것으로 직장상사가 부재중일 때 이를 즐기는 직원들의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속담이다.

#### 49. 현지화제유머속담/속담2 : 머рина쁜사람은 다리가 고생한다

원어 : Was mann nicht im Kopf hat, hat man in den Beinen.

내용 : 말 그대로는 머리를 쓰면 다리를 절약할 수 있다는 뜻으로 우리나라 속담과 거의 유사하다.

#### 50. 현지화제 유머속담/속담3 : 남을 향해 돌을 던지면 자기도 손해를 보게 된다

원어 : Wer im Glashaus sitzt soll nicht mit Steinen werfen.

내용 : 말 그대로는 유리로 된 집안에 앉은 사람은 돌을 던지면 안된다는 뜻이다 즉, 남을 향해 던진 돌은 자기집 유리창도 깨트리게 된다는 것으로, 남을 비난하면 자기도 비난받게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을 때,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자기도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속담.

### 51. 현지화제 유머속담/속담4 : 적은 돈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큰돈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

원어 : Wer den Pfennig nicht ehrt ist der Mark nicht wert.

내용 : 적은 돈을 소중히 여길줄 모르는 사람은 큰돈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는 속담이다.

### 52. 현지화제 유머속담/세무서를 거치지 말고 직접 주세요

독일의 세율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정이다. 따라서 독일국민들 사이에서도 소득세율이 높은 것에 대하여 많은 불평과 조크가 있으며, 아래의 것도 그중의 하나이다.

어느 가난한 노파가 갑자기 100 유로가 필요하였다. 그녀는 신에게 돈을 좀 달라고 편지를 썼다. 그러나 우편배달부는 편지를 어디에다 배달해야 할 난감하여 세무서 우체통에 집어 넣었다.

한 세무직원이 그 편지를 읽고 노파를 도와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세무서 동료들에게 돈을 거둬 50유로를 마련하여 노파에게 전달하였다.

돈을 받은 노파는 너무나 고마워 교회로 달려가 감사기도를 올렸다. 기도 후 교회 밖으로 나오던 노파는 다시 기도실로 달려 들어가 기도하였다. "하나님, 다음에 저에게 돈을 주실 때에는 세무당국을 통하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이 주신 돈 절반을 세금으로 뺐거든요."

### 53. 현지화제 유머속담/구동독 사람의 소원

터키인, 서독인과 동독인이 죽어서 최종 판결을 받기 위해 신 앞에 섰다.

터키인이 먼저 신의 판결을 받았다.

神: 너는 평생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100대의 곤장을 맞아야 한다. 맞기 전에 소원이 있으면 한가지만 말해 보아라.

터키인: 엉덩이에 벼개 하나를 묶어 주십시오.

다음으로 서독인이 신의 판결을 받았다.

神: 너도 평생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100대의 곤장을 맞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소원이 있으면 한가지만 말해보아라.

서독인: 저도 엉덩이에 벼개 하나를 묶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동독인이 신의 판결을 받았다.

神: 너는 2개 나라에 살아서 남보다 거짓말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곤장 200대를 때리겠다. 대신 2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동독인: 첫째 소원은 곤장을 100대 더 맞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소원은 서독인을 제 엉덩이에 묶어 주십시오!

### 54. 물가정보/물가정보(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지역>

| 항 목        | 기준품목        | 금액 (USD) | 품목 내역                                |
|------------|-------------|----------|--------------------------------------|
| 식 품<br>기호품 | 김치찌개        | 18.64    | 1인분                                  |
|            | 햄버거         | 6.01     | 맥도날드 빅맥 1개                           |
|            | 수입담배        | 5.21     | 말보로라이트 1갑, 19개피                      |
| 주 택<br>사무실 | 고급아파트 월임차료  | 3,200    | 150m <sup>2</sup> /월, Semi-furnished |
|            | 중급아파트 월임차료  | 2,200    | 150m <sup>2</sup> /월, Semi-furnished |
|            | 사무실 임차료     | 5,000    | 150m <sup>2</sup> /월                 |
| 교 통<br>차 량 | 자동차 2000cc  | 26,250   | 한국산, 오토, 에어컨                         |
|            | 시내버스 요금     | 1.56     | 1구간                                  |
|            | 택시요금        | 2.5      | 기본요금                                 |
|            | 택시요금        | 1.72     | 추가요금, km당                            |
| 통 신<br>전 기 | 공중전화요금      | 0.68     | 시내, 3분                               |
|            | 국제전화 (할인)   | 0.5      | 현지-서울, 3분                            |
|            | 전기요금        | 0.17     | 가정용, 1Kw/h                           |
|            | 인터넷 사용료     | 37.5     | 1개월 기본료                              |
| 교 육        | 현지 사립학교 수업료 | 34,000   | 초등 1년간                               |
|            | 외국인 학교 수업료  | 15,000   | 초등 1년간, American School              |
| 레저.오락      | 골프장 그린피     | 62.5     | 비회원, 18홀 1라운드                        |
|            | 영화 관람료      | 11       | 최신영화, 주중 저녁요금                        |
| 의 료        | 병원진료비       | 22       | 의료보험 제외, 몸살감기, 내과초진                  |
| 호 텔        | 특급호텔 숙박료    | 250      | 할인, 싱글 1박                            |
|            | 중급호텔 숙박료    | 175      | 할인, 싱글 1박                            |
| 임 금        | 사무실비서 월급여   | 3,100    | 초임, 학력불문                             |
|            | 사무실직원 월급여   | 3,600    | 대졸, 초임                               |

\* 주 : 동 금액은 유로화 당 미 달러 환율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2005. 9)

### 55. 물가정보/물가정보(베를린)

<물가정보(베를린)>

| 항 목        | 기준품목        | 금액(USD) | 품목 내역                   |
|------------|-------------|---------|-------------------------|
| 식 품<br>기호품 | 김치찌개        | 13.11   | 1인분                     |
|            | 햄버거         | 3.00    | 맥도날드 빅맥 1개              |
|            | 수입담배        | 4.32    | 말보로라이트 1갑, 20개피         |
| 주 택<br>사무실 | 고급아파트 월임차료  | 4,200   | 150m2/월, Semi-furnished |
|            | 중급아파트 월임차료  | 3,000   | 150m2/월, Semi-furnished |
|            | 사무실 임차료     | 4,080   | 150m2/월                 |
| 교 통<br>차 량 | 자동차 2000cc  | 28,080  | 한국산, 오토, 에어컨            |
|            | 시내버스 요금     | 2.40    | 1구간                     |
|            | 택시요금        | 3.00    | 기본요금                    |
|            | 택시요금        | 1.83    | 추가요금, Km당               |
| 통 신<br>전 기 | 공중전화요금      | 0.68    | 시내, 3분                  |
|            | 국제전화(할인)    | 0.27    | 현지-서울, 3분               |
|            | 전기요금        | 0.20    | 가정용, 1kwh               |
|            | 인터넷 사용료     | 11.98   | 1개월 기본료                 |
| 교 육        | 현지 사립학교 수업료 | 4,446   | 초등 1년간                  |
|            | 외국인 학교 수업료  | 10,721  | 초등 1년간, American School |
| 레저.오락      | 골프장 그린피     | 66.00   | 비회원, 18홀 1라운드, 주말       |
|            | 영화 관람료      | 6.98    | 최신영화, 주중 저녁요금           |
| 의 료        | 병원진료비       | 21      | 의료보험 제외, 몸살감기, 내과초진     |
| 호 텔        | 특급호텔 숙박료    | 245     | 할인, 싱글 1박               |
|            | 중급호텔 숙박료    | 117     | 할인, 싱글 1박               |
| 임 금        | 사무실비서 월급여   | 2,083   | 초임, 학력불문                |
|            | 사무실직원 월급여   | 3,000   | 대졸, 초임                  |

\* 주 : 적용환율 1.2 US\$ = 1 EURO

56. 물가정보/물가정보(원헨)

| 항 목        | 기준품목        | 금액(USD)   | 품목 내역                    |
|------------|-------------|-----------|--------------------------|
| 식 품<br>기호품 | 김치찌개        | 14.60     | 1인분                      |
|            | 햄버거         | 3.20      | 맥도날드 빅맥 1개               |
|            | 수입담배        | 4.04      | 말보로 라이트 1갑(20개피)         |
| 주 택<br>사무실 | 고급아파트 월임차료  | 5,500.00  | 150m2/월 (Semi-furnished) |
|            | 중급아파트 월임차료  | 2,900.00  | 150m2/월 (Semi-furnished) |
|            | 사무실 임차료     | 4,800.00  | 150m 2/월                 |
| 교 통<br>차 량 | 자동차 2000cc  | 24,300.00 | 한국산(오토, 에어컨)             |
|            | 시내버스 요금     | 2.30      | 1구간                      |
|            | 택시 요금       | 3.00      | 기본요금                     |
|            | 택시 요금       | 1.52      | 추가요금, Km당                |
| 통 신<br>전 기 | 공중전화 요금     | 0.68      | 시내, 3분                   |
|            | 국제전화(할인)    | 0.50      | 현지-서울, 3분                |
|            | 전기 요금       | 0.18      | 가정용 (1Kwh)               |
|            | 인터넷 사용료     | 33.90     | 1개월 기본료                  |
| 교 육        | 현지 사립학교 수업료 | 4,420.00  | 초등 1년간                   |
|            | 외국인 학교 수업료  | 12,130.00 | 초등 1년간 (American School) |
| 레저.오락      | 골프장 그린피     | 57.00     | 비회원 (18홀 1라운드)           |
|            | 영화 관람료      | 9.00      | 최신영화 (주중 저녁요금)           |
| 의 료        | 병원진료비       | 113.00    | 의료보험 제외, 몸살감기, 내과초진      |
| 호 텔        | 특급호텔 숙박료    | 285.00    | 할인 (싱글 1박)               |
|            | 중급호텔 숙박료    | 110.00    | 할인 (싱글 1박)               |
| 임 금        | 사무실비서 월급여   | 3,100.00  | 초임 (학력불문)                |
|            | 사무실직원 월급여   | 3,600.00  | 대졸 (초임)                  |

\*주 : 동 금액은 유로화 당 미 달러 환율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57. 물가정보/물가정보(함부르크)

| 항 목        | 기준품목        | 금액(USD)   | 품목 내역                   |
|------------|-------------|-----------|-------------------------|
| 식 품<br>기호품 | 김치찌개        | 13.64     | 1인분                     |
|            | 햄버거         | 3.01      | 맥도날드 빅맥 1개              |
|            | 수입담배        | 3.64      | 말보로라이트 1갑, 20개피         |
| 주 택<br>사무실 | 고급아파트 월임차료  | 3,200.00  | 150m2/월, Semi-furnished |
|            | 중급아파트 월임차료  | 2,200.00  | 150m2/월, Semi-furnished |
|            | 사무실 임차료     | 5,000     | 150m2/월                 |
| 교 통<br>차 량 | 자동차 2000cc  | 22,800.00 | 한국산, 오토, 에어컨            |
|            | 시내버스 요금     | 1.42      | 1구간                     |
|            | 택시요금        | 2.27      | 기본요금                    |
|            | 택시요금        | 1.48      | 추가요금, Km당               |
| 통 신<br>전 기 | 공중전화요금      | 0.68      | 시내, 3분                  |
|            | 국제전화(할인)    | 0.5       | 현지-서울, 3분               |
|            | 전기요금        | 0.17      | 가정용, 1Kwh               |
|            | 인터넷 사용료     | 37        | 1개월 기본료                 |
| 교 육        | 현지 사립학교 수업료 | 34,000.00 | 초등 1년간                  |
|            | 외국인 학교 수업료  | 15,000.00 | 초등 1년간, American School |
| 레저.오락      | 골프장 그린피     | 57        | 비회원, 18홀 1라운드           |
|            | 영화 관람료      | 11        | 최신영화, 주중 저녁요금           |
| 의 료        | 병원진료비       | 120       | 의료보험 제외, 몸살감기, 내과초진     |
| 호 텔        | 특급호텔 숙박료    | 250       | 할인, 싱글 1박               |
|            | 중급호텔 숙박료    | 175       | 할인, 싱글 1박               |
| 임 금        | 사무실비서 월급여   | 3,100.00  | 초임, 학력불문                |
|            | 사무실직원 월급여   | 3,600.00  | 대졸, 초임                  |

\*주 : 동 금액은 유로화 당 미 달러 환율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58. 경제발전사

2차대전후 독일경제의 기조는 laissez-faire와 Government Interventionism을 배격하는 개인의 자유로운 창의와 사회발전원칙을 결합시킨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Social Market Economy)"를 채택하였으며 2005년 현재에도 사회 시장경제체제의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즉, 경쟁제한 방지법 등을 통하여 효과적이고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함으로써 시장 매커니즘의 기능은 충분히 살리되 시장경제의 동인이며 이윤추구가 지속적으로 불가능한 농업분야와 교통, 에너지, 주택 등의 일반공익사업 등 정부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분야에서 정부의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거시경제적 운용과 연결된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독일연방공화국은 서방 주요선진국 (G7)의 하나일 뿐 아니라 GDP면에서 세계 3위, 교역면에서 세계 2위의 위치( 수출 1위, 수입 2위)를 구가하고 있다.

독일이 2차 세계 대전 후 폐허에서 이와 같은 경제대국이 된 배경은 천연자원이나 넉넉한 재정상태 때문이 아니라 강력한 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효율성을 좌우하는 근원적인 요인인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훈련을 끊임없이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시장경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한 경영기법 등이 작동했다 할 수 있겠다.

따라서, 2차 세계대전이후 독일경제의 부흥에 대해 "경제기적"이라는 세계인들의 찬사에 대해 전후 독일의 초대 경제장관이었던 Ludwig Erhard는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단지 기회와 자유를 부여받은 전국민의 자발에 의한 정직한 노력의 결과"라고 항변한 바 있다.

2002년 재집권한 사민-녹색 연립정부는 2000년을 기점으로 침체에 들어서는 독일 경제를 위해 세율인상, 재정건전화 정책을 도입하고,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아울러 경제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Agenda 2010"을 추진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내지 못하고 현재 2005년 9월 현재 실업률11.4%, 2005년 연간 경제성장 예상 0.9%로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

<Agenda 2010의 주요 내용>

- 노동시장/노동법 분야
  - 부당해고 금지규정의 적용완화
  - 산업별 단체협상 외 개별기업 단위 임금협상 허용
  - 실업급여 기간 단축
  - 실업급여와 사회보장제도 통합
  - 구동독지역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계획 수립
  
- 사회보장제도 분야
  - 퇴직연금제도 개정
  - 건강보험제도 개혁
  - 약국설립 요건 완화
  
- 경제활성화 방안
  - 수공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수공업법 제정
  - 관료제 완화, 간접노동비 절감
  - 중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총족조건 완화
  
- 재정분야
  - 구동독지역 주택 현대화 및 인프라 투자 지원금 마련
  - 지방세제 등 지방 재정 개혁
  - 정부보조 축소 등 세수보전 방안 마련
  
- 교육 분야
  - 민간기업의 직업훈련 촉진방안 마련
  - 전일제 학교의 교육 강화
  - 아동교육의 질적 개선

\* 자료원: 독일 언론종합(2005. 9)

### 59. 경제정책/2003년 상반기

유로화의 강제행진이 거듭되는 가운데 미 달러화 대비 유로화 환율이 출범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5.23일 유로화의 미 달러 대비 환율은 1.18달러로 최고에 오른 후 소폭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으나 독일 경제 전문가들은 유로화의 초강세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부진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독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내 수요 침체 상태에서 유일한 희망은 수출임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태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유럽 경제 전문가 슈미딩 역시 “강한 유로가 독일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수입가격은 낮아지는 대신 수출가격이 높아져 독일 수출제품의 세계 시장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여기에 장기 경기부진의 여파로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 경제연구소들이 독일 경제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상당히 심도있게 제기함으로써 유로화 환율 상승은 여러모로 독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여지가 많아지고 있다.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로는 미 달러화의 가치상승이 지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부시 미 대통령은 강한 달러를 표방하며 미 달러화가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으나 미국 기업들의 회계 스캔들을 기점으로 하락한 미 달러화의 가치는 좀처럼 회복세를 타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달러 약세를 이용 미국 기업들이 상당한 이득을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연준위는 약한 달러가 미국의 디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따라서 미 행정부는 겉으로 표방하는 금융정책과는 달리 달러의 약세를 당분간 관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로존과 미국의 금리차이 역시 유로화 가치상승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2.5%로 미 연준위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세계 자본시장의 자본이 유로존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에 독일의 연방은행을 비롯해 유로존 각국은 유럽중앙은행에 추가 금리인하 조치 단행을 촉구하며 유로화 가치가 필요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이젠베르크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유로화 강세로 인해 유로존 내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의 유로화-미 달러화 환율은 적절한 수준”이라며 이와 같은 요구에 응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한 유로의 영향으로 독일 수출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폭스바겐, 다임러 크라이슬러, BMW 등 대형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미 유로화 환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 긴축재정에 돌입했으며, 특히 폭스바겐의 경우 지난 1분기에 이미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이 4억 유로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수출 품목인 기계 역시 마찬가지로 경우로 독일기계산업진흥회(VDMA)는 “한계선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고 유로화 강세/달러화 약세의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메릴린치는 미 정부가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며 강한 달러 정책을 쉽게 밀어붙이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과 더불어 유로존과 미국의 금리차이가 존재하는 한 당분간 유로화 강세기조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 사는 또한 올해 연말 유로화의 미 달러 대비 환율은 1.25달러 수준이 될 것이며, 2004년 6월 경에는 1.33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 60. 경제정책/2003년 하반기

지속되는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으로 근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독일 경제계를 달구고 있다.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실업률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독일 내 대표적인 경제연구소들이 내년 근무시간을 잘 조정하면 경제성장률을 최고 0.6% 포인트 올릴 수 있다는 논거를 제시, 기업인들과 정치권으로부터 환영 받고 있으나, 노조측은 이에 강력 반발,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창출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주당 근무시간 축소를 발표한 도이치 텔레콤과 오펜사의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고, 양 사는 줄어든 근무시간 만큼 새로운 인원을 충원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별 근무시간(2002)>

(단위 : 시간)

| 국가명   | 연간 근무시간 | 92년 이후 단축시간 | 주당근무시간 |
|-------|---------|-------------|--------|
| 미국    | 1904    | 0           | 40.0   |
| 스위스   | 1844    | 13          | 40.5   |
| 일본    | 1803    | 76          | 39.2   |
| 스페인   | 1722    | 58          | 38.4   |
| 오스트리아 | 1720    | 9           | 38.4   |
| 이태리   | 1720    | 28          | 40.0   |
| 스웨덴   | 1710    | 74          | 38.0   |
| 영국    | 1693    | 69          | 37.2   |
| 구동독   | 1685    | -           | 38.3   |
| 네덜란드  | 1670    | 49          | 37.5   |
| 덴마크   | 1650    | 30          | 37.0   |
| 프랑스   | 1605    | 150         | 35.7   |
| 독일    | 1557    | 71          | 35.7   |

\*주 : 주당 근무시간 단축 대신 추가된 휴일 수 : 덴마크 4일, 네덜란드 6일, 이태리 15일

\*자료원: 독일 경제 연구소

근무시간 연장이 임금상승을 동반하느냐 여부 역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노동시간을 연장하면 노동비용을 줄일 수 있고, 생산이 늘어날 수 있는 측면을 강조하는 한편,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 촉진의 효과도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나, 또 다른 일각에서는 노동시간이 길어지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그만큼 구매력이 감소, 경제 활성화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반론 역시 제기되고 있다.

근무시간 연장을 반대하는 시각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인 개혁”이 더 절실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근무시간 연장 혹은 축소 문제는 노사간 합의 사항일 뿐, 정치적 쟁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61. 경제정책/2004년 하반기

### <독일 경제, 내년에도 거북이 성장>

독일 6대 주요 경제 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추계보고서를 통해 독일 경제가 올해 1.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며, 내년에는 1.5%대의 성장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은 상반기 수출 증대에 힘입어 당초 예상되었던 1.5%를 상회할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지난 여름부터 전문가들을 통해 회자된 바 있다. 현재의 상황을 살펴볼 때, 여러 경제 연구소들이 내년도 경제 전망을 이전 발표치 대로 고수했다는 사실은 다소 놀랍다.

금년보다 내년에는 노동일수가 줄어 든다는 것이 비관적인 전망을 내린 주요 이유이다.

볼프강 클레멘트 (SPD) 연방 경제부 장관의 대변인은 내년도 성장률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기를 회피하였으며, 그 대신 추계보고서가 화요일인 12일에서야 공식 발표된 점을 지적했다. 연방 정부는 평가서의 전망을 토대로 자체 성장 전망을 10월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스 아이헬 (SPD) 연방 재정부 장관은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에서 경제 성장을 1.8%선을 고수해 왔다. 성장률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조세 수입이 줄어들어 채무가 새로이 증가할 위험이 크다.

독일의 6대 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2005년 경기 전망치는 최근 6대 연구소가 개별적으로 발표한 전망치의 평균인 1.7%보다는 낮다. 가장 낮은 전망치를 내놓은 곳은 킬 세계 경제 연구소 (IfW)로 내년 성장률을 1.2%로 전망했고, 가장 높은 성장률 (2%)를 내놓은 곳은 독일 경제 연구소(DIW)로 나타났다.

클라우스 쾨머만 DIW 소장은 지난 주말 내년에는 “상당한 성장”을 기대해도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고유가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계속하여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기업과 소비자들이 투자와 소비 활동을 활발히 할 경우, 노동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클 쾨머 독일 노동 조합 연맹 (DGB) 의장은 국가 차원의 경기 부양책 수립을 요구했다. 독일은 경쟁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수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쾨머 의장은 “정부는 결의를 확고히 하고 강력한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와 지방의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킬 세계 경제 연구소 (IfW)는 신규 부채에 대해 경고했다. 동 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 11월 예상 조세 수입은 또 다시 감소할 전망이다. 조세 전문가인 알프레드 보스는 11월 조세 수입 부족분이 40억 내지 5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연방 재무부의 계산에 의하면 신규 부채 총액은 430억 유로에 이르며,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 경우에 독일은 내년에도 EU 안정화 협약 기준치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Joaquín Almunia EU 통화 위원은 10월말 발표 예정인 보고서에서 독일의 부채가 2005년에 4년 연속 기준치 3%를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자민당 (FDP)는 연방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위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아이헬 장관이 11월에 있을 예산 논의시까지 100억 유로 규모의 감축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FDP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하고 있다. FDP의 예산정책 대변인 안드레아스 핑크바르트는 연방 정부가 계속해서 위험행위를 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62. 경제정책/2005년 상반기

독일에서는 현재 정부의 부가세율 인상안을 놓고 세간의 의견이 분분하다. 독일 여당인 사민당은 16%의 부가세를 20%로 인상하여 재정적자를 보충하려는 방안을 내어 놓은 바 있다.

사민당 사무총장 Dirk Niebel은 즉각적인 부가세 인상을 거부한데 반해 전당수였던 Otto Graf Lambsdorff는 부가세 인상이 전반적인 세금개혁면에서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반해 재경위 의원 Hermann Otto Solm은 부가세인상은 필요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독일경제부 입장은 현재의 재정적자가 계속될 경우 2006년 적자폭은 5배 이상 늘어나 EU 안정에까지도 피해를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대변인인 Bela Anda는 “부가세 인상은 고려대상이 아니며, 현재 경제상황에서 상당히 비생산적이고 타당치 않은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정부측은 예산통합의 제대로 된 해결책으로 정부보조금 감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인 기민당(CDU)과 기사당(CSU)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독일 저명 사회경제지 der Spiegel은 최근호를 통해 정부가 내년도 총선에 승리할 경우 20%로 인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독일 정부의 개혁안에는 사회보장비 350억유로를 삭감하여 예산적자를 충당할 것과 부가세중 15%를 지자체로, 나머지를 연방과 주에 배분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부장관 Hans Eichel(사민당)은 Welt am Sonntag誌와의 인터뷰를 통해 2005년과 2006년 정부는 GDP 대비 3.5%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기는 마찬가지다. 기민당(CDU) 당수 Merkel은 세금감면을 주장하는 데 반해, 기민당 소속이자 헤센주지사인 Roland Koch는 정권교체 후의 세금감면에 반대했다.

이 밖에 전 자민당(FDP)당수였던 Graf Lambsdorff는 FAZ誌에서 정부가 포괄적인 세금개혁을 하려면 부가세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05년 상반기의 경제성장율은 0.75% 성장으로 독일 연방통계청은 잠정 집계중이다.

\* 자료원: FAZ-Online(2005. 6), 독일연방통계청 (2005.9)

## 63. 금융통화제도

### <금융시장 개황>

독일금융시장에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대형 도소매 금융기관으로부터 소형의 개인금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한 예금 은행들로부터 우체국을 통한 지로업무까지 다양한 업무영역이 존재한다.

외국은행의 독일영업소를 포함한 모든 은행은 연방 은행감독기구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외국은행의 대표사무소는 이 기구에 등록해야 한다. 은행감독 기구는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제어하고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은행자산의 손실이 과다하거나 은행의 거래행위가 부적절한 경우에도 이에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은행제도>

전통적으로 독일의 은행제도는 미국권과는 달리 Universal Banking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비교적 사업영역이 넓고 광범위하여 특화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2001년부터 각 은행별로 사업 구조조정을 단행, 불필요한 사업영역을 축소하고 경쟁력 있는 부문을 특화하는 등 국제 경쟁 시대를 맞는 면모를 재정비하고 있다.

은행의 영업활동은 은행법에 의하여 규정되며 은행법상에는 다음과 같이 은행업무의 영역이 정의되어 있다. 1) 수신업무 2)여신업무 3)환어음 4)유가증권 제3자와의 거래 4)유가증권에 대한 지급보증업무 5) 신용금고운영 6) 팩토링업무 (외상매출채권 인수) 7)보증 8) 지로업무

이처럼 은행업법상의 정의는 거의 모든 사항을 망라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앞서 정의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소규모 지점이나 자회사를 통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은행의 경우에는 증권업이나 이들 거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유는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이다.

<증권시장>

독일에는 현재 8개의 증권시장이 소재하고 있다. 주요 증권시장이 소재하는 도시는 베를린,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하노버, 뮌헨 및 슈투트가르트이다. 이러한 증권시장은 공동 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해 연결되고 있다. 정부의 증권감독위원회의 설립은 1993년말에 입법화되었다. 이 기구는 1994년 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한편, 미국의 나스닥이나 한국의 코스닥에 준하는 제2 주식시장인 Neuer Markt는 영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2003년 폐쇄되었다. 최근 2005년 6월 독일증권거래소는 런던증권거래소를 인수하고자 하였으나, 상호간의 이견으로 현재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

- \* 자료원: 코메르쯔 뱅크([www.commerzbank.de](http://www.commerzbank.de), 2004. 9),
- 도이치 뱅크([www.deutsche-bank.de](http://www.deutsche-bank.de), 2004. 9),
- 독일 연방은행([www.bundesbank.de](http://www.bundesbank.de), 2004. 9),

64. 주요산업동향/전체 산업 동향

독일의 각 경제부문별 GDP 점유비중은 농림수산업이 1.1%, 제조업 22.2%, 건설 4.4%, 상업 및 운송 18.6%, 금융 및 기업서비스 30.0%, 공공 및 민간서비스 21.6%로 집계되었다.

매출액 기준 제조업 중 주요산업은 자동차 및 부품, 기계, 전자.전기 및 사무기기, 화학, 금속, 석유가공, 종이 및 출판, 플라스틱 및 고무, 유리 및 세라믹, 가구 및 선물용품의 순으로 되어 있다.

제조업의 총 매출액 중 수출비중은 38.4%로 전년대비 0.9%p 증가되어 산업의 수출의존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근로자의 산업별 비중은 농림 및 어업(2.5%), 광업 및 제조업(23.6%), 건설업(7.5%), 상업(17.3%),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49.1%)이다.

약한 달러와 강한 유로 기조가 독일 기업들의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로화 강세로 인해 달러 환산 가격이 급등, 수출 강국의 타이틀을 안게 된 독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기업들의 실질 매출이 줄어들고 반면, 수입을 비롯한 비용이 상승함에 따른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 약세로 특히 압박을 받는 분야로는 기계, 자동차, 제약 그리고 화학 분야 등의 고전적인 독일 수출기업들로서 생산 비용은 유로화 지역에서 일어나고 매출은 달러지역에서 일어나는 차이에서 발생한 손실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달러 약세 유로화 강세 기조가 호조로 작용하는 업계도 있다. Metro, C&A, WOOLWORTH 등 소비재 판매업체는 중국 등 아시아로부터 수입하여 독일 등 유로화 지역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입장이며, Puma, Adidas-Salomon 등 아시아 현지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는 스포츠 용품 업계도 환차익 혜택을 받고 있는 대표적 업종이다. Lufthansa 항공사 역시 연료비, 신기종 도입 등을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다.

### <건설업>

독일 건설업계의 회복이 예상보다 더뎠고 있다. 독일 건설협회(ZDB)는 2004년 매출액이 9%나 감소했다고 발표하였고, 매출액이 당초 4% 낮아질 것이라던 예상이 7%까지 낮춰 잡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2005년에도 최소 3-4%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어 독일 건설업계 내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지난 8년 동안 줄곧 하강기조만을 보여왔던 독일 건설업은 오는 2006년이 되어서야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건설업 경기가 끔찍 얼어붙은 가운데도 일반 단독 주택 건설이 호황을 맞아 주목을 끌고 있는데, 정부가 1-2가구용 단독 주택 건설에 부여해 오던 지원대책이 조만간 중단될 예정이어서 정부지원이 끝나기 전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이들 신규 주택 수요의 14%가 조립식 주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용이 저렴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는 하나 전통적인 주택건설 수요 회복에는 큰 자극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의류·섬유산업>

독일의 의류직물 시장은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극도로 위축된 내수 때문이며, 이로 인해 독일 내 의류직물 제품의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섬유직물조합에 따르면, 독일 내 의류직물 제품 가격은 지난 10년 간 약 9% 하락했으며, 이 중 독일 국내 산 직물제품은 2.3%, 의류제품은 5.4%의 가격하락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품의 가격이 더 많이 낮아졌는데, 직물이 6%, 의류가 9%의 가격하락이 이어졌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중저가 제품 시장에서는 가격이 가장 큰 구매결정 요인이 되는 만큼 수입가격이 낮은 중국산을 선호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형 디스카운터 스토어들이 자체적으로 제품을 소싱하여 특별한할인 판매 등을 통해 활발한 판촉전에 나서고 있다.

반면, 고급품 시장은 가격보다는 품질이나 브랜드가 최우선시 되고 있으며, 제품의 특성 상 피부를 상하게 하지 않는 천연소재 제품이 선호되고 있다.

<화학산업>

전 산업의 경기부진으로 독일 경제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주요 기간산업 중 하나인 화학 산업이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에서는 이를 기점으로 독일 산업이 상승세를 타게 될 것이라는 발빠른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 화학산업의 이 같은 회복추세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화학산업은 거시경제의 지표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산업분야에 원부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여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것이다.

화학 및 플라스틱 업계의 대다수 기업들은 지난해 이라크 전쟁 발발 시 유가 및 에너지 가격 급등을 예측, 연초에 원부자재를 대량 비축해 두었으며, 전쟁 발발 후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자 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많은 매출과 이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기.전자산업>

독일 전자산업이 경기 저점의 마지막 단계를 보내고 있다. 독일 전자산업협회(ZVEI)에 따르면, 독일 내 전자 관련 기업들이 지나면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내수는 아직 정체 상태지만, 1분기까지 해외 주문량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독일 전체 산업 단위 중 두 번째로 큰 전자 산업이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이유로는 경기 부진이 첫 번째로 꼽히고 있다. 또한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지자 가격인하 압력이 거세어져 기업이윤이 줄고 있는데다 유로화마저 강세로 일관, 수출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했다. 업계 내에서는 과년도에 유로화 환율이 전자산업에 효자 노릇을 한 것과는 달리 지금은 오히려 성장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유로화 환율상승으로 인한 독일 내 생산비 상승이 위험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자동차 산업>

독일 내 수입 승용차가 늘고 있다. 독일 자동차수입협회(VDIK)가 잠정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 승용차 시장 내 수입차 점유율은 35%에 달해 작년 같은 기간 33.7%에 비해 4% 증가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같은 기간 전체 승용차 신규 등록수는 총 3백1만대로 전년동기대비 0.4% 감소한 반면, 수입차 신규 등록은 작년보다 약 1백만대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차 점유율이 특히 늘고 있는 곳은 구 동독 지역으로서 이 지역 수입차 시장점유율은 작년 보다 2.4% 늘어난 50.8%로서 전체 승용차의 절반 이상을 수입차로 채우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구 서독 지역의 수입차 점유율은 32.7%로 구 동독 지역보다는 낮았으나, 이는 작년에 비해 1% 포인트 가량 오른 것이다.

독일 자동차 수입협회 측은 2005년 독일 내 승용차 총 신규등록수는 340만대정도로 작년 325만대에 비해 약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도 수입차 점유율이 늘어남으로써 향후 독일 내 자동차 시장의 소비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각

브랜드별로 신모델을 대거 쏟아 놓는 내년에는 독일 고유 브랜드와 수입차 브랜드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소비자들을 유혹할 것으로 보이며, 경기가 회복되면서 교체용 부품 수요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했다.

<기계산업>

독일 기계산업의 회복이 더뎠다. 독일 기계산업 진흥회(VDMA)의 클링엘베르크 회장은 내년에도 급속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내수가 부진한 국내 보다는 주문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해외부문에 투자가 집중되며 고용증가는 기대하기 어렵고 약 3만명의 추가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기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함을 시사했다. 동인은 기계를 비롯한 투자재 산업이 예년의 추세를 되찾기 위해서는 임금, 세제 및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부작용 없이 이루어지고 그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치권의 논쟁이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해외 수출이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외부환경에 비교적 민감한 독일 기계산업은 유로화 강세의 영향을 우려했던 것보다 덜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 자료원: 독일 산업연합([www.bdi-online.de](http://www.bdi-online.de), 2005. 9)
- 연방 통계청([www.statistik-bund.de](http://www.statistik-bund.de), 2005. 9)
- 플라스틱 산업협회([www.vke.de](http://www.vke.de), 2005. 9)
- 시사 경제지 Wirtschaftswoche([www.wiwo.de](http://www.wiwo.de), 2005. 9)
- ifo 경제연구소 ([www.ifo.de](http://www.ifo.de), 2005.9)

## 65. 주요산업동향/건설업

<독일 건설분야 산업동향>

2004년 독일 국민총생산(GDP)은 2조 161억 유로(1995년 불변가격 기준)로 전년대비 309억 유로 증가한 1.6%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총 설비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33억 유로가 감소한 3,858억 유로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건설분야 투자가 55억 유로로 감소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2004년 독일의 건설분야 총투자규모는 2,046억 유로 (95년 불변가격)로 전년대비 55억 유로 감소하였다. 건설투자규모를 자세히 보면 일반주택이 1,192억 유로로 전년대비 1.6% 감소하였고 사무용건물은 586억 유로로 역시 전년대비 3.7% 감소하였다. 특히 공공건물 건설투자는 268억 유로로 4.8% 크게 감소하였다.

<표 1> 2004년 전년대비 독일 건설분야별 투자 증감률

(단위: 유로)

|       | 일반주택    | 사무용건물 | 공공건물  |
|-------|---------|-------|-------|
| 2004년 | 1,192 억 | 586 억 | 268 억 |
| 2003년 | 1,214 억 | 609 억 | 281 억 |

\*자료원: 독일건설협회([www.zdb.de](http://www.zdb.de))

건설분야 투자규모는 구 서독지역이 1,668 억 유로, 구 동독지역이 377억 유로로 전년대비 투자가 감소하였다.

<표2> 독일 건설분야 투자 증감률

(단위: %)

|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
| 구서독 | +0.2  | -2.5  | -4.4  | -2.8  | -1.8  |
| 구동독 | -11.3 | -12.5 | -11.4 | -5.8  | -6.1  |

\*자료원: 독일건설협회(www.zdb.de)

2004년 건설 허가규모는 전년대비 총 10.3% 감소한 634억 유로로 일반주택이 전체 건설분야의 63.1%를 차지하는데 전년대비 10.6% 감소하였다.

2004년 통계기준으로 일반주택은 전년대비 9.7% 감소한 총 268,123 개이며 그 중 구서독지역이 전년대비 9% 감소한 총229,426개 구동독지역이 13.3% 감소한 총 38,697개가 건설 허가를 받았다. 이 일반주택 가운데 166,857개가 1-2세대 주택이다.

2004년도 건설업 종사인구는 총 767,172 명으로 전년대비 5.8% 감소하였다. 업체당 평균 고용인원은 10.2명으로 전년도의 10.9명보다 더 낮아졌다.

<표3> 2004년 6월 기준 독일 건설분야별 업체현황

(단위: %)

|       | 1-19명 규모업체 | 20-99명 규모업체 | 100명 이상 규모업체 |
|-------|------------|-------------|--------------|
| 일반주택  | 66.2       | 29.8        | 7.1          |
| 사무용건물 | 20.7       | 32.5        | 43.4         |
| 공공건물  | 13.1       | 37.7        | 49.5         |

\*자료원: 독일건설협회(www.zdb.de)

2004년 한해 동안 독일 건설업체의 매출은 440억 유로로 전년대비 5.7% 감소하였으며 특히 지하건축(-6.4%) 고층건물(-5.1%) 모두 감소하였다.

2004년도 독일 건축경기는 전년도와 같이 여전히 침체구면을 면치 못하였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낮은 공사수익에도 불구하고 자재비용은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업체들의 파산도 총 2,854건으로 전년도 2,846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 자료원: 독일건설협회(www.zdb.de)

## 66. 주요산업동향/광업

광산물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주요 부존자원으로는 석탄, 갈탄, 소금이며, 원유, 천연가스, 철강은 소량 매장되어 있다.

석탄은 루르지방 및 잘란트 지방에 주로 매장되어 있으며, 총 매장량은 약 240억톤이다.

그러나 채광은 경제적이지 못하여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갈탄은 Harz산맥지역 및 라인지방을 중심으로 총 430억톤 가량 매장되어 있으며, 갈탄 생산량의 85%는 화력발전 이용되고 있다. 갈탄은 총 전력 생산의 약 26%, 1차 에너지 소비량의 11%를 커버하고 있다.

천연가스 매장량은 3,820억 m<sup>3</sup>이며, 국내총소비량의 1/4만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소비량의 3/4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라늄은 1980년말 이후 채광되지 않고 있으며, 주로 해외 법인으로부터 공급되고 있다. 핵에너지는 2001.12.14 독일의회에서 원전폐쇄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19개 원전이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폐쇄되고 대체 에너지 개발이 강화될 전망이다. 2005년 총선의 결과에 따라 폐기 시점이 늦추어질 가능성이 높다.

### 독일의 광산물 생산동향

| 구 분         | 2002  | 2003  | 2004  |
|-------------|-------|-------|-------|
| 석탄 (백만톤)    | 33.6  | 27.4  | 26.4  |
| 갈탄 (백만톤)    | 167.6 | 178.9 | 181.7 |
| 천연가스(백만Mwh) | 195   | 197   | 196   |
| 원유 (백만톤)    | -     | -     | 3.7   |

### 독일의 광업 분야별 매출액 및 수출 비중

(단위 : 백만유로, %)

| 구 분      | 2002   | 2003   | 2004   | 수출비중 |
|----------|--------|--------|--------|------|
| 석탄 및 갈탄  | 3,955  | 3,998  | 3,666  | 3.6  |
| 원유, 천연가스 | 3,988  | 5,135  | 4,685  | 2.3  |
| 암석       | 4,246  | 4,204  | 4,153  | 10.0 |
| 합 계      | 12,190 | 13,337 | 12,504 | 5.2  |

\* 자료원: 독일 연방통계 연감(2005. 6)

## 67. 주요산업동향/금융업

### <증시 현황>

2005년 현재 독일의 증시인(DAX)은 2004년 1월 3800선에서 시작하여, 9월 22일 현재 4800선으로 약 20% 이상 증가한 상태이다.

<개요>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근거로 1999.1.1일 EU회원국중 11개국이 EMU를 도입하였다.

공동화폐인 유로화는 2002.1.1일부터 전면 도입되어 실물화폐로 유통되고 있으며, 독일 마르크화를 비롯한 EMU 가입국가의 기존 화폐는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991년 12월 합의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가입국 금융통화정책은 1999.1.1일부터 ECB가 수행하고 있다. 1998년 5월 EMU 가입국은 11개국으로 확정되었고 가입국은 엄격한 자격규정(물가상승율, 저금리, 재정적자 수준)을 준수해야 하며, 1999.1.1일 부터는 안정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할 의무까지 부여되었다. 2001년부터 ECB가 참가국 금융정책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되며 ECB의 최대 정책목표는 물가안정이다.

ECB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정책이사회(Governing Council)로서 ECB 총재, 부총재, 이사 4명, 각국 중앙은행 총재 11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는 정책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각국 중앙은행에 세부사항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며 ECB 총재, 부총재, 이사 4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 단임 8년을 보장하고 있다.

ECB는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독일연방은행이 사용한 방법과 같은 통화량목표에 인플레이션 목표의 일부요소를 가미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물가안정을 통해 유로화의 조기안정 및 가입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최종목표이다. 통화정책 수단으로는 공개시장 조작을 중심으로 한계대출 및 예금제도를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독일연방은행>

ESCB (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는 유로 경제권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미국의 연방준비이사회의와 유사하다. ESCB는 ECB와 11개 참가국들의 중앙으로 구성되므로 1999년 1월 1일부터 독일연방은행 (Deutsche Bundesbank)은 ESCB의 일원이 되어 ECB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정책상 의사결정기능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다만 국가적 차원에서 금융기관 감독과 유보통화 관리, 정부에 대한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금융기관>

독일에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들이 존재한다. 대형 도소매 금융기관에서부터 소형의 개인금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한 예금은행들로부터 우체국을 통한 지로업무까지 다양한 업무영역이 존재한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의 집중화가 계속 진행되어 1950년대 14,000여 개에 달했던 금융기관수는 2004년 2,500여개로 줄어 들었다.

현재 독일에는 빅3인 Deutsche Bank, Dresdner Bank, Commerzbank를 포함하여 273개의 상업은행이 있으며, 14개의 지역지은행, 520개의 저축은행, 1,489개의 신용금고, Deutsche Post AG, 14개의 특수목적 신용금고, 28개의 건물 및 주택담보(Mortgage)은행이 있다. 최근 세계경기둔화의 여파로 독일 금융계는 구조조정에 착수하여 상당수의 종업원을 감원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총 1,739개사가 있는데, 이 중 생명보험사가 121개, 연금보험이 970개, 의료보험 91개, 재난 및 사고보험이 607개사이며, 이 외에 재보험사가 37개 있다.

독일에서 영업중인 모든 금융기관은 연방은행의 감독을 받으며, 금융기관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은행노조의 예금보험기구에서 예금주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 준다.

<금융시장>

다른 어떤 산업분야보다 금융산업의 발전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1990년 5조2,000억마르크 규모에서 2004년말 8,187억 유로로 3배 증가하였다. 예금액, 주식 및 채권발행액, 대출액, 신용지불액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한 증가세를 보였다. 2004년 독일의 주식 및 채권 거래액은 2조4,812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독일에는 현재 베를린, 브레멘,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하노버, 뮌헨, 슈투트가르트 등 8개처에 증권시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연간 거래액은 2004년 기준 2조6,157억 유로이다.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가 가장 큰 거래소로서 뉴욕, 동경, 런던에 이어 세계 4위이다. 프랑크푸르트에는 수백 개의 독일 및 외국신용기관, 브로커들이 상주하고 있어 런던과 더불어 유럽 금융의 중심지로서 자리잡았다.

한편, 2003년1월1일부터 미국의 나스닥, 우리나라의 코스닥에 해당하는 제2 주식시장인 Neuer Markt가 전면 폐쇄되었다.

- 자료원: 독일증시 관보([www.dax.de](http://www.dax.de) 2005.09),
- 코메르쯔 뱅크 홈페이지([www.commerzbank.de](http://www.commerzbank.de), 2005. 9)

68. 주요산업동향/석유화학산업

<플라스틱산업>

2004년 상반기 독일 플라스틱 총 생산은 9.2 백만톤 (2003년 총 생산:16.8백만톤)으로서 전년동기대비 5.0%가 증가하였다. 생산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제품은 폴리에틸렌으로서 1.5 백만 톤이 생산되었으며 그 다음이 폴리프로필렌(1.2백만톤), PVC(1.1백만톤), 폴리스틸렌(0.6백만톤), PET (미공개) 순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산업은 각 산업에 필요한 기초산업으로 동 산업 기술발전은 우주항공, 자동차, 전자 및 통신 등 각 산업분야의 기술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독일에서 플라스틱이 활용되는 부문을 분야별로 구분하면 포장재(33.0%), 건축(23.5%), 자동차(9.0%), 전기전자(7.5%), 가정용품(3.5%), 가구(6.0%), 농업용 (2.5%), 의학산업 (1.0%), 기타(14.0%)이다.

2004년 상반기 독일 플라스틱 제품의 총 매출액은 116억 유로로서 전년동기대비 6.6% 증가하였다. 이 중 국내매출액이 47억 유로로서 전년대비 6.8% 증가하였으며 국외매출액은 69억 유로로서 6.4%가 증가하였다.

한편 플라스틱 가격은 2003년에 비해 1.6% 상승하였으며 플라스틱 제품가격은 0.3% 감소하였다.

2004년 상반기 독일 수출은 5.8백만톤으로 전년대비 15.4%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3.4백만톤으로 6.7% 증가하였다. 주요 수출국은 이태리, 프랑스, 벨기에, 영국, 네델란드 등이며 EU가 64.4%를 차지하였다. 주요 수입국 또한 EU로 전체의 79.5%이며 국가별로 보면 네델란드, 베네룩스, 프랑스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2년 기준으로 독일내 플라스틱과 관련된 업체는 총 6,610개사이며 이 중 제조업체가 50개사, 가공업체가 5,800개사, 기계제조사가 760개사에 이르고 있다. 종사인구는 약 38.5만명으로 집계된다.

(독일내 주요 플라스틱 제조업체)

AtoFina (PA, 기타), Bakelite (PMMA, Duro-Plastics), Bario Plastics (PMMA), BASF (PS/EPS, ABS.SAN, PA, PUR, Duro-Plastics, 기타), BaseII (PE-LD/LLD, PE-HD, PP), Bayer (ABS/SAN, PA, PUR, 기타), Borealis (PE-HD, PP), BP (PE-LD/LLD, PE-HD, PS/EPS), Domo (PA), Degussa (PMMA, PA, 기타), DOW (PE-LD/LLD, PS/EPS, PP, PET, 기타), Sabic (PE-LD/LLD, PE-HD, PP), DuPont (PA, 기타), Dyneon (기타), Ems Grivory (PA), EVC/Ineos (PVC), Kosa (PET), Polimer i (PE-LD/LLD), Raschig AG (Duro/plastics), Resolution (Duro/plastics), Ruetgers Chemicals (Duro/plastics), Solvin (PVC, PA), Ticona (기타), Vestolit (PVC), Vinnolit (PVC)

\*정보원 : 독일연방 PVC 산업조합 (<http://www.vke.de>)

### <고무산업>

2003년 총 매출액은 99억 유로를 기록, 전년대비 1.5% 증가했다. 총 매출액 중 국내매출액이 72.5억 유로로 전년대비 0.9% 증가하였다. 매출액의 52%를 차지하는 타이어의 경우 총 매출액 52억 유로로 전년대비 1.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나머지 고무제품의 매출액이 47억 유로로 1.5%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타이어 부문은 국내 1.5%, 국외 2.2% 증가하였고 기타 고무제품의 경우 국내 0.5%, 국외 3.8%의 매출액 증가를 보였다.

### <표> 2003년 독일 고무산업 시장동향

(단위 유로 100만)

| 구분     | 국내 (증감율)      | 국외 (증감율)      | 계 (증감율)       |
|--------|---------------|---------------|---------------|
| 타이어 부문 | 4,040 (+1.3%) | 1,140 (+2.2%) | 5,180 (+1.5%) |
| 기타 부문  | 3,210 (+0.5%) | 1,485 (+3.8%) | 4,695 (+1.5%) |
| 계      | 7,250 (+0.9%) | 2,625 (+3.1%) | 9,875 (+1.5%) |

\*자료: 독일 연방 통계청

고무산업에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은 크게 타이어와 기술부품으로 구분된다. 2002년 자동차타이어의 국내수요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003년 독일 자동차타이어 시장동향

(단위: 1,000개)

| 구분 | 승용차용 타이어 |                | 화물차용 타이어 |                |
|----|----------|----------------|----------|----------------|
|    | 2002년    | 2003년(증감율)     | 2002년    | 2003년(증감율)     |
| 생산 | 59,758   | 61,877 (+3.5%) | 10,324   | 10,819 (+4.8%) |
| 수출 | 42,118   | 44,645 (+6.0%) | 7,860    | 7,758 (-1.3%)  |
| 수입 | 54,594   | 57,324 (+5.0%) | 5,444    | 6,022 (+10.6%) |
| 수요 | 72,234   | 74,556 (+3.2%) | 7,908    | 9,083 (+14.9%) |

\*자료: 독일연방 통계청

2004년 고무산업은 전년도에 비해 약간의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무산업은 주 소비자인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동차산업의 경기에 크게 좌우된다.

금년도 모델강제로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되는 자동차 경기와 동반하여 고무산업도 전반적으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원: 독일연방 고무산업조합 ([www.wdk.de](http://www.wdk.de))

## 69. 주요산업동향/에너지산업

### <에너지 산업>

독일은 세계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 중 하나로 자원부족으로 70년대부터 에너지 절약에 관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같은 환경정책에 힘입어 재생에너지(태양 에너지,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등)사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는 전체에너지사용의 5분의 1을 커버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독일은 에너지와 석유를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1차 에너지의 약 3분의 1을 수입하고 있으며 석유의 경우 해외의존도는 더욱 높다.

정부에서 적극 후원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 정책 및 환경정책으로 인해 독일에서 에너지 사용은 70년대 이래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90년대부터는 에너지소비가 약 16%정도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독일, 1차 에너지 소비현황(단위: PJ)>

| 1차 에너지 | 2003  | 2004  | 증감률(%) | 2004년 비중(%) |
|--------|-------|-------|--------|-------------|
| 천연가스   | 5,281 | 5,258 | -0.5   | 36.4        |
| 석유     | 3,224 | 3,236 | 0.3    | 22.4        |
| 석탄     | 2,013 | 1,940 | -3.6   | 13.5        |
| 갈탄     | 1,638 | 1,647 | 0.5    | 11.4        |

|        |        |        |      |      |
|--------|--------|--------|------|------|
| 원자력에너지 | 1,802  | 1,823  | 1.1  | 12.6 |
| 수력, 풍력 | 135    | 164    | 21.5 | 1.2  |
| 무역차액   | -29    | -23    |      | -0.2 |
| 기타     | 387    | 393    | 1.5  | 2.7  |
| 전체     | 14,451 | 14,438 | -0.1 | 100  |

\*자료원: AG Energiebilanzen

<독일, 2004/2005 상반기 1차 에너지 소비현황(단위: PJ)>

| 1차 에너지 | 상반기   |       | 증감률<br>(%) | 비중(%) |       |
|--------|-------|-------|------------|-------|-------|
|        | 2004  | 2005  |            | 2004  | 2005  |
| 천연가스   | 2,509 | 2,459 | -2.0       | 34.6  | 34.4  |
| 석유     | 1,747 | 1,767 | 1.1        | 24.1  | 24.7  |
| 석탄     | 982   | 953   | -2.9       | 13.6  | 13.3  |
| 갈탄     | 817   | 797   | -2.4       | 11.3  | 11.1  |
| 원자력에너지 | 920   | 906   | -1.6       | 12.7  | 12.7  |
| 수력, 풍력 | 85    | 94    | 10.3       | 1.2   | 1.3   |
| 무역차액   | -21   | -29   | ...        | -0.3  | -0.4  |
| 기타     | 202   | 208   | 2.9        | 2.8   | 2.9   |
| 전체     | 7,241 | 7,155 | -1.2       | 100.0 | 100.0 |

\*자료원: AG Energiebilanzen (2005년 잠정치)

독일의 2005년 상반기 1차 에너지 소비현황을 보면 경기둔화로 에너지 소비량이 전년동기대비 약 1.2% 감소했다. 독일 에너지원 중 원유는 2005년 상반기 추운 날씨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약 1% 증가했다. 경제주체별로는 가계와 산업의 원유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현재 원유는 1차 에너지의 약 22.5%를 차지하지만, 2010년까지는 1차 에너지의 2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은 원유수급의 16%만이 국내 생산이고 나머지는 러시아(35%), 노르웨이(24%), 네덜란드(19%), 영국, 덴마크 등의 국가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1차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가(태양 에너지,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현재 약 4%이며, 그 비중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연방환경청에 의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2050까지 에너지소비의 절반가량이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1차 에너지의 10%, 전기에너지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2004년에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약 70,000,000 t 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켰으며, 독일 및 EU국가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풍력은 각각 5%, 19% 증가해 상반기에 수력, 풍력에 의한 전기생산은 전년동기대비 무려 10%가 성장했다. 독일은 대체 에너지로 풍력에 크게 투자해 왔는데 최근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유는 바람이 많이 불지않기 때문이고 경기침체가 개선되지 않아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2004년엔 약 16,629 MW의 풍력을 생산해 풍력은 현재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기생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바람이 많고 투자가 활성화 되고 있는 다른 유럽 나라에서 늘고 있는 풍력 에너지 생산에 비해 큰 발전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풍력발전은 최근에 육지 뿐 아니라 바람이 많은 바다에 풍차를 세워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향후 전기수요의 약 15%가 바다에 세워진 풍차로 커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 풍력생산 현황과 전망>

| 년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1MW | 8,754 | 12,001 | 14,701 | 16,629 | 18,901 | 20,901 | 22,801 |

\*자료원: European Wind Energy Association

독일의 에너지 가격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약 38.4%가 올랐으며 이는 유로권국가의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약 6.9%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현재는 유로권 국가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 전기 에너지 수출입 관계(단위: TWh)>

|    | 2001 | 2002 | 2003 | 2004 |
|----|------|------|------|------|
| 수입 | 46.5 | 46.2 | 45.8 | 44.5 |
| 수출 | 43.7 | 45.5 | 53.8 | 51   |

\*자료원: AG Energiebilanzen

2002년 독일은 46.2 TWh의 전기 에너지를 수입하여 수출 (45.5TWh)을 초과했으나 2003년부터는 크게 역전되어 수출이 수입을 초과 하고 있다. 독일 전기 에너지의 주요 수입국은 프랑스, 체코, 스위스, 오스트리아 순이고 수출은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순으로 많다.

향후 독일 전기 에너지원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은 풍력이다. 2000년 재생에너지법 EEG가 발효된 이후 풍력은 지난 3년 사이에 2.5배 정도, 태양에너지는 2000년 대비 8배가 증가했다. 최근에 육지 뿐만 아니라 바람이 많은 바다에 풍차를 세워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천년가스에 대한 수요는 국제적으로 늘고 있는데 독일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천년가스 공급의 17%만 국내 생산이고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한다. 수입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러시아 (33.5%)이고 다음이 노르웨이 (19.7%), 영국 (11.7%)순이며, OPEC국가에서의 수입은 전체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독일의 에너지 정책의 기초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진다.

- 가능한 한 핵 에너지로부터 탈피
- 유럽 차원에서 전기와 가스 시장의 완전 자유화
- 기후와 환경 보호

현재까지 현정권에서는 재생에너지 산업부분을 전폭지원 했지만 정권이 바뀌게 되면 원자력에너지나 석탄 석유 등의 산업에 대한 보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은 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풍력에너지사업에 관한 보조금이 줄고 바이오 에너지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유럽국내방침에 따라 독일에서는 2005년 8월부터 발효된 에너지관련 법안인 EnWG에 따르면 지금까지 거의 독점형식 이었던 에너지기업들은 2년에 한번씩 기업에 관한 상세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에너지 가격하락 및 효율성 환경면에 있어서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있다.

\*자료원: AG Energiebilanzen(2005년 9월),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 (2005년 9월),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Arbeit(2005년 9월)

## 70. 주요산업동향/의류,섬유산업

### 1. 시장 일반현황

2003년도 독일 섬유 및 의류산업은 2002년도에 이어 계속하여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주문량, 생산량, 매출액이 수입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종사인구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2003년 섬유산업 매출액은 134.3억 유로로 전년대비 5.2% 감소하였으며 의류산업은 92.5억 유로로 5.8%가 감소하였다.

섬유산업의 2003년 생산은 8,760만 유로로 전년대비 4.0% 감소하였으며 의류산업은 7,040만 유로로 전년대비 5.4% 감소하였다.

2003년 섬유 및 의류의 수출은 196억 유로로 전년대비 5.1%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279억 유로로 전년대비 5.1% 감소하였다.

2003년 섬유산업 종사자는 총 101,638명으로 전년대비 8.9% 감소하였으며 의류산업 종사자는 49,142명으로 10.7% 감소하였다.

### 2. 매출액 동향

<표1> 독일 섬유산업 매출액 동향

(단위 : 백만 유로)

| 구분   | 2001(증감율)      | 2002(증감율)      | 2003 (증감율)     |
|------|----------------|----------------|----------------|
| 섬유제품 | 15,416 (-1.6%) | 14,380 (-6.7%) | 13,430 (-5.2%) |
| 의류제품 | 10,473 (-2.5%) | 10,041 (-4.1%) | 9,246 (-4.1%)  |

\*자료: 독일연방통계청

### 3. 생산동향

독일의 섬유산업 생산량은 생산공장을 노동력이 저렴한 해외로 계속 이전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2> 독일 섬유산업 생산동향

(단위 : 백만 유로)

| 구분   | 2001(증감율)    | 2002(증감율)     | 2003(증감율)     |
|------|--------------|---------------|---------------|
| 섬유제품 | 96.7 (-3.3%) | 91.2 (-5.7%)  | 87.6 (-4.0%)  |
| 의류제품 | 93.2 (-6.9%) | 79.5 (-14.7%) | 70.4 (-11.5%) |

4. 수출입동향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국내 매출액 및 수출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은 2000년 8.8%의 성장을 나타낸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의 섬유 및 의류 주요 교역대상국은 EU로서 수입의 30%, 수출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입국은 이태리, 네덜란드, 프랑스, 터키, 폴란드, 루마니아, 중국 등 이다

<표3> 독일의 섬유산업(직물+의류) 수출입동향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 2001년 (증감율)    | 2002년 (증감율)    | 2003년 (증감율)    |
|----|----------------|----------------|----------------|
| 수출 | 19,490 (-2.8%) | 19,932 (+2.0%) | 19,623 (-5.1%) |
| 수입 | 29,974 (-5.7%) | 28,291 (-5.6%) | 27,945 (-5.4%) |

(자료원: 독일연방 섬유산업조합)

<표4> 독일의 주요 교역대상지역

(단위: 백만유로)

| 구분                   | 수 출    |        |        | 수 입    |        |        |
|----------------------|--------|--------|--------|--------|--------|--------|
|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 EU<br>(04가입국<br>미포함) | 10,477 | 10,813 | 10,871 | 9,385  | 8,605  | 8,208  |
| 기타유럽                 | 6,637  | 6,630  | 6,442  | 10,300 | 10,082 | 10,004 |
| 미주                   | 892    | 943    | 846    | 476    | 423    | 391    |
| 아프리카                 | 509    | 476    | 423    | 1,014  | 939    | 813    |
| 아시아                  | 906    | 957    | 936    | 8,791  | 8,233  | 8,520  |
| 대양주                  | 99     | 90     | 81     | 7      | 8      | 5      |
| 계                    | 19,490 | 19,932 | 19,623 | 29,974 | 28,291 | 27,945 |

(자료원 : 독일연방 섬유산업조합)

5. 고용인원동향

2002년 독일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총 15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그 중 67%가 섬유부문에 나머지 33%가 의류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섬유산업 종사인구는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의류부문의 급격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5> 독일 섬유산업 종사인구 추이

(단위 : 1명)

| 구분   | 2001년(증감율)      | 2002년(증감율)      | 2003년 (증감율)     |
|------|-----------------|-----------------|-----------------|
| 섬유부문 | 118,672 (-2.4%) | 111,602 (-6.0%) | 101,638 (-8.9%) |
| 의류부문 | 60,832 (-8.1%)  | 55,021 (-9.6%)  | 49,142 (-10.7%) |

(자료: 독일연방통계청)

6. 전망

독일의 섬유산업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도 많은 기업이 생산기지를 이전한 동구권의 경우 EU가 동구권 국가로 확대됨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 동구권내에서도 경제여건이 비교적 좋은 국가로의 해외투자가 활발하다.

내년 독일의 섬유 및 의류시장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작년과 마찬가지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7 한국제품 진출확대방안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우리나라의 주종품인 직물의 경우 후발개도국이 저임금과 기술도입으로 바짝 추격해옴에 따라 종전과 같은 품질 수준의 제품으로는 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기 힘든 상태이다. 따라서 업체마다 특화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디자인 개발 주력)

소재는 디자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쉬워 후발개도국이 쉽게 모방하나 디자인개발은 쉽지 않은 형편이다. 따라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디자인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철저한 장인정신 필요)

저임금, 대량생산을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력 대신 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소량다품종,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철저한 장인정신이 요구된다. 즉 이태리 직물산업처럼 수대를 내려오면서 철저한 장인정신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정신이 시급하다.

<정보원> 독일연방섬유조합 (Gesamttextil)

## 71. 주요산업동향/제약, 의료산업

### <제약산업>

독일의 제약산업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독일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보건위생구조에 관한 규정 등의 국가규제강화로 인해 1993년 이래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생산은 약 10%가량 감소했다.

이러한 국가규제로 인해 독일의 제약시장은 생산입지로의 매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유럽, 미국, 일본의 전체 제약생산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9%에서 2002년에는 6%로 감소했으며, 제약업체의 설비투자 또한 1997년 이래로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독일의 제약산업은 아직까지 세계 3위의 자리를 고수하며 독일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고 투자율이 높은 산업분야중의 하나이다.

독일에는 2004년 기준 중소기업과 대규모 콘체른, 인체의약품생산의 바이오테크기업을 포함해 약 500개의 제약 업체들이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중 종사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들이 약 71%, 100-500명 미만의 기업이 21%를 차지함으로써 독일의 제약산업에서 종사자 수가 5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90%이상에 이른다. 바이오테크기업 수는 지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급속도로 성장하다가 2002년부터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독일의 의약품 생산의 성장률은 둔화되었지만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04년에 209억 유로의 의약품을 생산하여 전년에 비해 1.0% 상승세를 보였다. 독일 의약품 생산량은 국내 의약품 가격, 수입량, 해외수요에의 결정된다.

전반적으로 독일 사람들의 의약품 사용이 크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의 검진에 크게 의존하는 독일 사람들은 대부분의 약을 사전 처방으로 구입한다.

특히 처방이 필수인 중병환자들의 의약품 수요는 1998년부터 2004년 까지만 50% 이상 증가했다. 또 주의를 끄는 것은 특수 목적의 특허 의약품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의약품은 거의 약국을 통해 판매되지만 병원에서도 16.5% 정도 판매된다.

독일 제약산업에서 가장 큰 경쟁요인은 가격이다. 그 다음은 제품의 품질, 신약 개발, 기존 의약품 개선, 의사의 인지도, 홍보 및 서비스 순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광고는 전문의학잡지 게재만 허용하고 있다. 처방이 필요 없는 의약품 광고는 전문잡지가 아니라도 관계없으며 독일 제약회사들은 이를 위해 약 4.5억 유로 이상의 광고비 (2002)를 지출했다.

독일은 제약산업에 있어서 주로 유로권으로 수출입하고 있으며 2004년에도 전년대비 29.0%의 수출성장률을, 15%의 수입성장률을 기록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수출초과현상을 보였다.

<독일, 의약품 수출입 추이>

| 년도   | 수 입    |        | 수 출    |        |
|------|--------|--------|--------|--------|
|      | 1백만 유로 | 증감률(%) | 1백만 유로 | 증감률(%) |
| 2000 | 10,353 | +25.9  | 15,177 | +5.9   |
| 2001 | 12,051 | +16.4  | 19,242 | +28.1  |
| 2002 | 19,285 | +60.0  | 18,835 | -8.5   |
| 2003 | 19,328 | +0.2   | 22,230 | +18.0  |
| 2004 | 22,221 | +15.0  | 28,681 | +29.0  |

\*자료원 : BPI (연방제약산업협회), (2005년 8월 업데이트)

독일의 제약관련 수입 내역을 보면 예전에는 약품원료를 많이 수입했으나 점차 완성품이 많아져 이제는 후자가 전자보다 3배까지 많아졌다.

독일은 외국 제약회사의 비중이 매우 높다. 2002년의 경우 유통회사까지 합치면 전체 매출액의 59.5%를 외국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즉, 미국(22.0%), 스위스(10.7%), 프랑스(9.1%), 영국(9.5%)의 제약 기업들이 독일에 많이 진출해 있다. 여기에 또 M&A (인수, 합병)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주요기업의 시장점유율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세계 제약산업은 약 50%의 성장률을 보임으로써 2004년에는 5,452억 유로의 매출액을 기록, 전년대비 17% 성장했다. 북미, 일본, 유럽의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와ダイナ믹에서 제약산업의 선두는 단연 미국이다. 북미는 여타의 시장에 비해 두 배나 빠르게 성장하여 현재 세계 제약산업 전체 매출액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 제약산업은 2004년 전년대비 34%, 라틴아메리카는 41%의 성장률을 보였다. 제약산업은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약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어 높은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이다.

최근의 독일 제약산업의 추이를 보면 2004년부터 Agenda 2010의 일환으로 실시된 건강의료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혁으로 인해 의료산업이나 제약산업이 크게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개혁의 주체는 현 정부는 이것을 과도기로 보고 계속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개혁의 핵심은 의료산업의 관료주의를 깨고 제약시장을 훨씬 유연하게 하는 것이다.

독일의 제약산업의 성장둔화는 무엇보다 국가적 규제강화, 관료주의, 혁신을 저지하는 보건 시스템, 시장자유화결여, 중소 제약업체(독일 제약업체의 약 90%) 지원 부족에 기인한다.

\*자료원 : BPI (독일제약산업협회: 2005년 9월)

<의료산업>

독일은 의료비 비중이 GDP의 11.3 %를 차지하는 국가로 의료복지의 선진국이다. 독일인 일인당 보건의료지출비용은 2003년 기준 1년에 약 2900유로에 이르며, 독일은 세계에서 의료시설이 가장 잘 발달 되어 있는 나라 중의 하나로 의료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보건의료지출비용도 2003년 2,397억 유로를 기록해 2.3%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2003년 기준으로 볼 때 동 분야의 총매출액은 약 375억 유로, 수출은 약 260억 유로를 기록했다. 2003년 12월 독일의 의료시설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 의료시설 현황 (2003년 12월 31일 기준)>

|            |                  |
|------------|------------------|
| 병원:        | 2,197개           |
| 침대:        | 54,901개          |
| 의사:        | 394,432 명(2004년) |
| 치과의사:      | 64,609 명         |
| 관련 총 종사자:  | 4,175,000 명      |
| 보건 및 예방시설: | 1,390 개          |
| 약사:        | 54,000 명         |

\*자료원: 연방 통계청 (2005.09.14 업데이트 )

이 통계로 보면 독일 국민 209명에 의사 1명이 배당되는 셈이다. 이는 전년대비 1.6%오른 수치이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치과의사의 경우 국민 10,000명 당 7.5명에 이른다. 독일의 의사 수는 매년 다소나마 증가하고 있지만 증감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동독의 농업지역은 그 심각성이 더하다.

독일은 모든 사람이 공공 의료보험 (법적 의료보험)이나 사설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자의 비율이 월등히 많은데, 독일 국민의 89%가 공공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공공 보험에 대한 지출비용은 사설 보험비용의 6.5배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30%가 노령 연금수령자이고 이들이 공공 의료보험에 내는 보험료 기여비중은 18.7%에 불과하여 동 보험 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독일, 의료관련 주요 지출내역 (단위: 1백만 유로)>

|           | 2002    | 2003    |
|-----------|---------|---------|
| 공공 의료 지출: | 18,837  | 18,786  |
| 공공보험사 지출: | 133,403 | 136,031 |
| 사영보험사 지출: | 19,726  | 20,612  |
| 사회보장 보험   | 16,357  | 16,499  |
| 공공사고보험    | 3,977   | 4,097   |
| 연금보험      | 4,270   | 4,344   |

\*자료원: 연방 통계청 (2005년 3월에 업데이트, 다음 업데이트 시기 2006년 3월)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입원비와 치료비가 가장 많고 (46%) 약품 구입비도 400억 이상, 즉 12%가 넘는다. 단일 영역으로는 치과의 의치 지불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 6,179백만 유로 가까이 기록하고 있다. 또 독일은 의료 연구, 교육 등에 많은 투자를 하는 바 2003년에 기준 약 100.42억 유로를 투자해 전년대비 약 4% 감소했다.

독일의 의료기기제조업체들은 2004년에 약 7.2%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이는 2003년(3.9%) 대비 무려 3.3% 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무엇보다 급속한 해외수요 증가에 기인한다.

국내수요는 2004년 165억 유로를 기록, -0.4%를 기록한 반면, 수출은 14.1%의 증가율을 보여 210억 유로를 기록했다. 이로써 독일 의료기기산업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6.1%에 달한다. 세계 의료기술시장의 규모는 약 1,840억 유로에 달하며 유럽시장은 550억 유로로 미국(790억 유로) 다음으로 큰 시장이다. 독일(190억 유로) 의료기술시장은 미국, 일본 다음으로 세 번째 큰 시장에 속한다.

독일은 2003년에 Agenda 2010의 일환으로 보건 의료 분야에 많은 규정을 개정해 2004년부터 시행에 들어가 의료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과다한 의료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내리고 병원이나 의료 관련 업자들의 경쟁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개혁에 따르면 현재 14.3%에 이르는 보험료 비율이 2006년에는 13%로 떨어진다. 이와 함께 비효율적인 병원 시스템을 개선하여 경비를 줄이면서 동시에 신속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새 건강 의료 개혁은 현재 적지 않는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어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새로운 개정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독일 의료 시장이나 구조는 향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자료원: 연방 의료기술협회(2005년 9월), 연방통계청(2005년 9월), 의료산업협회(2005년 9월), 환경부(2005년 9월)

## 72. 주요산업동향/농림수산업

### <농축산업>

전체 경작면적은 1,706만 헥타에 이르며, 전체 농가 수는 99년 47만호에서 2004년에는 42만호로 11%이상 줄은 상태이다. 구 서독지역의 경우 1949년부터 1999년 사이에 약 150만 명의 농업종사자가 이농하였다.

따라서 1950년 160만 농가의 390만명 전일 가족노동자에 달했던 농업 종사자는 2004년 43만 4,000가구의 농가수, 전일노동자 22만명 규모로 줄어들었다. 농업규모는 50헥타미만을 경작하는 농가가 전체의 85%에 달해 다른 유럽국가보다 소규모 자작농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구서독 지역에서는 대규모 자영농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50헥타 이상의 경작지를 소유한 가구 수가 03년에 비해 04년에는 1,379가구로 늘어나 약 2.1%의 증가를 보였다. 구서독 지역의 전체 경작 면적은 변화가 없는 반면, 평균 경작면적은 23헥타에서 27헥타로 늘어났다.

구 동독 지역에서는 04년의 경작 가구 수가 30,308가구로 가구 당 평균 경작지 면적이 185헥타이며, 이 지역의 전체 경작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91년의 평균경작 면적 285헥타에 비해 상당히 낮아진 것이다.

독일의 주요 농축산품은 우유, 돼지고기, 소고기, 사탕수수, 밀, 감자 등이다. 일부지역에서는 포도, 과일, 채소, 원예작물이 재배되기도 한다.

**농.축산물 생산현황**

(단위 : 백만톤)

| 구 분    | 2001 | 2002 | 2003 | 2004 |
|--------|------|------|------|------|
| 밀      | 17.9 | 20.2 | 19.7 | 21.6 |
| 사료용 식물 | 62.1 | 58.7 | 56.5 | 55.9 |
| 감자     | 13.8 | 11.3 | 11.6 | 13.2 |
| 쇠고기    | 1.5  | 1.2  | 1.3  | 1.2  |
| 돼지고기   | 3.5  | 3.8  | 4.0  | 3.9  |
| 우유     | 27.0 | 26.7 | 26.8 | 27.0 |

독일은 세계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이며, 2004년 약 320억유로를 수입하였으며, 주요 수입품은 과일, 육류, 우유, 채소이다. 또한 세계 4위 농산물 수출국으로 2000년 약 213억유로의 수출실적을 보였으며, 주요 수출품은 우유, 육류, 식용유 등이다.

**독일의 농산물 수출 입현황**

(단위 : 백만유로)

| 구 분         | 2001   | 2002   | 2003   | 2004   |
|-------------|--------|--------|--------|--------|
| 수 출         | 21,430 | 24,320 | 24,542 | 25,320 |
| 전체 수출에서의 비중 | 4.9    | 5.0    | 4.4    | 4.2    |
| 수 입         | 38,421 | 37,212 | 36,219 | 36,011 |
| 전체 수입에서의 비중 | 9.7    | 9.4    | 8.1    | 6.9    |

\*자료원 : 독일연방통계청

농업에 대한 지원은 EU정책과 위배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정부의 보조금 지원, 환경친화적인 농사기법 사용시 소득보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농업 종사자들을 독려하기 위해 의료보험, 산재, 연금보험 등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연방정부에서 연간 약 35억 유로를 지출하고 있다.

**<임업>**

독일국토의 1/3인 743만 헥타가 산림으로 둘러 쌓여 있다. 독일은 세계2위 목재 및 종이 수입국일 뿐만 아니라 세계 제1위 목재 및 종이 수출국이기도 하다.

| 산림업현황     | 2001    | 2002    | 2003    | 2004   |
|-----------|---------|---------|---------|--------|
| 산림면적(천ha) | 5,447   | 8,000   | 8,000   | 7,431  |
| 조림업체(개)   | 127,348 | 156,501 | 156,404 | 26,409 |

**<수산업>**

각국이 어로수역을 200해리로 확장함에 따라 근해에서의 어획량이 감소하였으며 따라서 수산업도 심한 구조조정을 겪었다. 독일의 주요 어장은 북해, 발틱해, 영국 서쪽 대서양, 그린랜드 해역이다. EU에서는 수자원 보호를 위해 어획량에 대해 쿼타를 배정하고 있다. 연간어획량은 원양에서는 22,621톤, 연근해에서는 82,946톤이다. 원양에서는 청어(8,035톤), 고등어(7,191톤)가 주로 잡히며, 연근해에서는 청어(7,452톤), 대구(12,391톤), 연어(3,926톤), 게(14,671톤), 홍합(37,921톤)이 잡히고 있다.

\* 자료원: Facts about Germany 2004, 연방통계 연감 및 독일 통계청 (2005. 9)

### 73. 주요산업동향/환경산업

#### <환경 산업>

지난 2세기 동안 환경산업은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분야의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다른 분야에 비해 평균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 독일은 환경산업에 있어서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지만 심화된 경쟁으로 인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나마 점점 줄고 있다.

독일은 1993년까지 환경산업에서 1위의 자리를 고수하다가 1993년부터는 시장점유율 19.3%로 미국이 1위를 18.4%로 독일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의 환경산업은 국내경기와 주요수요처인 미국의 경기에 많이 좌우된다.

환경개선의 양대 바로미터가 되는 천연원료와 에너지의 절약 추이를 보면 독일은 해마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04년에 천연원료 소비량을 8% 줄였고 에너지 사용은 조금 늘어났다. 성공적인 환경정책으로 지난 몇 년 사이 각종 에너지 소비 뿐 아니라 대기환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CO2 방출을 줄이는데 모범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물 사용도 지난 10년 사이 15% 이상 줄어들었다. 특히 도시 환경 문제의 관건이 되는 CO2 배출은 지난 10년 사이 15% 이상 줄었다.

#### <독일, 자원 사용 현황과 추이(단위: PJ)>

|        | 2001   | 2002   | 2003   | 2004   |
|--------|--------|--------|--------|--------|
| 에너지 소비 | 14,180 | 14,325 | 14,300 | 14,438 |

\*자료원: Umweltbundesamt (2005.09월, 다음 업데이트 시기 미정)

#### <독일, 2050년까지 1차 에너지 소비전망 비중(단위: %)>

|       | 2000  | 2010  | 2020  | 2030  | 2040  | 2050  |
|-------|-------|-------|-------|-------|-------|-------|
| 석탄    | 13.5  | 11.8  | 13.7  | 16.0  | 14.7  | 13.7  |
| 갈탄    | 10.9  | 10.3  | 10.8  | 11.3  | 12.0  | 12.6  |
| 핵에너지  | 13.0  | 11.8  | 6.7   | 0.0   | 0.0   | 0.0   |
| 석유    | 38.6  | 38.4  | 38.2  | 38.3  | 36.3  | 33.4  |
| 천연가스  | 21.3  | 23.2  | 25.3  | 27.4  | 28.7  | 29.7  |
| 수력    | 0.5   | 0.6   | 0.7   | 0.7   | 0.8   | 0.8   |
| 풍력    | 0.2   | 0.5   | 0.7   | 1.4   | 1.7   | 2.0   |
| 바이오매스 | 1.6   | 3.0   | 3.5   | 4.0   | 4.5   | 5.0   |
| 태양에너지 | 0.1   | 0.2   | 0.4   | 0.7   | 1.4   | 2.7   |
| 총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원: Umweltbundesamt (2005.09월, 다음 업데이트 시기 미정)

2004년 독일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은 14,438 PJ에 달하며, 그 중 석유가 36.4%, 천연가스 22.4%, 석탄 13.4%, 갈탄 11.4%, 핵에너지 12.6%, 재생에너지가 3.6%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독일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전기생산, 환경정책 및 인구감소로 인해 2050년에는 에너지소비가 2004년 대비 약 20%가 감소해 에너지 소비량이 11,370PJ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향후 재생에너지가 100%의 효율성으로 증가하는 반면 핵에너지는 33%의 효율로 감소하는데 기인한다. 2030년까지는 독일은 핵에너지를 완전 폐지할 예정이며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05년 현재 5%에서 2050년에는 10.5%로 증가시킬 전망이다.

독일은 2004년 약 8억 3천 4백만 톤의 CO2 배출을 기록해 1990년(9억 8천 8백만 톤) 대비 약 15.5% 감량했는데 배기가스 협상인 교토의정서 발효로 인해 2012년 까지 단계적인 배기가스 감량 목표를 정했다. 배기가스 협상에 따라 독일은 2012년까지 1990년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1% 감축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교통분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0년부터 줄기 시작해 2005년 1월에서 3월까지 휘발유가 약 7%의 디젤사용이 약 12.2% 줄었다. 가계와 교통에서의 배기가스량이 줄어든 반면에 에너지분야에서는 배기가스량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독일의 에너지소비 비중(단위: %)>

|    |     |       |     |     |
|----|-----|-------|-----|-----|
|    | 산업  | 소규모산업 | 교통  | 가계  |
| 비중 | 27% | 18%   | 28% | 27% |

<독일, 영역별 에너지 사용 현황(단위: PJ)>

|           |       |       |       |
|-----------|-------|-------|-------|
|           | 2001  | 2002  | 2003  |
| 교통        | 2,686 | 2,674 | 2,593 |
| 가계        | 2,846 | 2,699 | 2,764 |
| 상업/공업/서비스 | 4,398 | 4,212 | 4,288 |
| 건축/가공산업   | 2,391 | 2,334 | 2,323 |

\*자료원: DIW, AG Energiebilanz(2005,09.22), 다음 업데이트 시기 미정

지난 10년간의 에너지 소비의 특징을 보면 산업 분야의 에너지 소비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가계와 교통 분야는 에너지 소비가 크게 늘어났다. 독일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환경보호를 위해 태양에너지, 생물에너지, 수력에너지 생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한 국가의 환경산업은 환경 보호에 투자하는 정도와 비례한다. 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는 제조산업, 국가, 공공 폐기물 처리 기업이 주로 맡고 있다. 2002년의 경우 제조 기업들은 17억 1천만 유로의 투자를 했고 국가는 약 32억 6천만 유로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공공 처리기업은 60억 유로를 투자했다. 제조산업이나 국가의 환경 보호에 대한 투자는 점점 줄어들고 환경 전문적인 공공 기업들의 투자 양이 증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투자 영역은 쓰레기 처리, 수질개선/수역보호, 소음방지, 공기정화 등인데 투자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수역 보호다. 다음으로는 쓰레기 처리에 지출하는 예산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독일은 환경 친화적인 자연 연료사용을 위해 생물자원 (바이오매스)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

현재 바이오매스는 나무껍질, 낙엽, 썩은 나무, 각종 폐식물 등인데 여기서 에너지를 얻고 있다. 10년 전에 (1994) 570 GWh의 전력을 생산하던 바이오매스 산업이 지난해 (2004)에는 10배 이상인 약 7,400 GWh로 상승했다.

바이오매스와 함께 환경 산업으로 크게 장려되고 있는 것이 바이오가스다. 각종 쓰레기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의 잠재량은 대략 240억 1m3/a 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85%는 농업 분야에서 나오는 것이다. 바이오가스 잠재량 240억 1m3/a을 에너지로 환산하면 약 425 PJ/a에 해당하고 전기로 환산하면 42 - 46 TWh/a에 해당한다. 독일은 현재 약 600개의 바이오가스 생산 설비가 되어있으나 위의 잠재량을 모두 수용하려면 20만개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

독일은 EU 국가 중에 환경문제에 가장 선구적인 나라인데 지난 몇 년 사이 EU가 재정한 각종 환경 규제를 솔선 수범하여 따르고 있다. EU 환경위원회는 특히 차량, 전기전자제품, 화학제품에 대해 엄격한 환경 규제를 제정했는데 몇 년 내로 EU 전체에 정착될 전망이다.

대기 환경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자동차 배기가스는 신규인가되는 거의 모든 자동차가 배기가스 기준 EURO3을 넘어 EURO4를 준수하므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마찬가지로 폐차처리도 환경보호를 위해 더욱 까다롭게 하였고 기본적으로 생산자 부담원칙으로 바뀌었다.

폐품 처리에 많은 주의를 요하는 전자전기 제품(WEEE)에 대해서도 생산자 수거원칙을 도입하였고 (WEEE) 환경 위해 물질 사용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규정 (RoHS )을 만들었다.

독일의 환경기술은 자국의 환경 개선을 위해 발전되었으나 이제는 중요한 국제적 산업이 되었다. 즉, 독일은 환경기술 산업의 생산 중 20%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은 환경기술이 거의 정착되어 수요가 크지는 않다. 대신 미래의 환경산업 수출국으로는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가 주목을 받고 있다.

독일의 폐수처리기술, 재생에너지기술은 붐을 맞고 있으며,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에 종사자는 현재는 약 130,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높은 매출액 성장률을 보이는 등 독일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EC 환경산업 보고서는 2010년까지 세계 환경산업의 성장을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세계 환경시장 성장률 전망 (2010까지)>

| 지역   | 동남아 | 중국 | 동구 | 남미 | 근동 | 인도 | 아프리카 | EU | 미국 |
|------|-----|----|----|----|----|----|------|----|----|
| 성장:% | 14  | 12 | 10 | 9  | 8  | 6  | 6    | 1  | 1  |

\*자료원: EU Eco-Industry

현재 세계 환경산업의 시장은 여전히 유럽이 가장 크고, EU의 연간 매출액만 1천 8백 유로에 이른다. 현재 독일이 환경기술을 수출하는데 있어서, 주요 대상국은 미국과 EU 회원국들이 있다. 전문가들은 미래의 잠재 시장은 아시아, 남미 같은 개발 도상국이지만 이런

나라들은 거리 상 그리고 문화적 특성 상 당장은 공략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대신 독일은 중앙유럽이나 동유럽을 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한편, 한국이 환경기술을 독일에 수출하기에는 아직 문제가 많다. 우선 이 분야의 외부 기술이 독일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관련 업체들은 대부분 자국의 앞선 시스템과 기술을 쓰고 있다. 실제로 독일 환경산업의 생산은 80%가 국내에 소비된다.

그럼에도 독일은 외국기업이 환경산업에 진출하는데 대해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독점 에이전트나 수입상들을 통해 환경상품을 독일로 수출하는 가능성은 있다. 통상 수입상 명단은 BGA(연방 도매상/무역협회, www.bga.de)를 해 입수할 수 있으며 동 협회에 가입한 수입상들은 독일 내 환경규격에 대한 전문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를 통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제일 적게 하는 방법이다.

에이전트를 통해 독일에 진출하는 방법은 비용에 비해 효과가 높은 방법으로 중소기업의 회사들은 특히 고려해 볼만한 방법이다. 한편 독일로 물건을 공급하려면 우선 기술적인 표준규격인 DIN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검사인 TUEV를 획득해야 한다. 동시에 EU 차원에서 새로 제정된 각종 환경 규제법을 사전에 충분히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원: Umweltbundesamt(2005년 9월), AG Energiebilanzen (2005년 9월)

## 74. 지적재산권

### <특허권>

독일상표법에 따라 특허권은 독일내 원천에 소재한 독일 특허청의 결정에 따라 특허명부에 등록되고 특허관보에 공표 되어야 한다. 특허취득은 반드시 특허 출원에 의해 유료로 진행되는 특허 취득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허취득은 반드시 활용 목적이 뚜렷한 최초의 발명으로 제한된다. 외국인도 독일인과 동등한 조건 하에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다.

독일내의 소재지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이 독일내에서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독일 변리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며, 특허권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된다.

### <상표권>

정신적 창작성이 인정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서비스용 포장에 부착되는 상표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UR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독일상표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한 무역상대국에 대해 대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등록된 상표의 보호기간은 출원한 날로부터 10년으로 하되 10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등록되어 보호받고 있는 상품 등을 영업상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 또는 생산지 표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그 사용자 또는 행위자에 대하여는 자유형 또는 벌금이 과해지게 된다.

\* 자료원: 특허청 홈페이지([www.bundesregierung.de](http://www.bundesregierung.de), 2005. 5)

## 75. 소비자보호

### <개황>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규는 대부분 불공정거래 규제법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소비자 가격의 표기와 관련된 규정은 물론이고 개점시간 관련규정, 소비자 현혹 광고나 비교 광고의 금지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 약관을 작게 표기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법원에 제소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으며 연방관련 기구에 감독권을 주고 있다.

독일에는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민간단체가 존재하지만 이들의 활동보다는 법규에 따른 소매업 규정에 의거하여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음식이나 약품 등과 같이 소비자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이들 규정에 의거하여 잘못된 제품의 반품이나 기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절차 등은 국내 제조업체나 수입품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소비자는 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문판매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제조물책임법 : PL법)

독일은 1990년 1월 1일부터 제조물 책임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1985년 7월 25일부터 발효된 EU의 제조물 책임법에 기초하고 있다. 동 법은 총 19조로 되어있으며, 제품, 피해, 결함에 대한 정의 및 입증책임, 연대책임, 소멸시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99년 5월 EU의 관련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2000년 1월 12일 독일의 제조물 책임법 역시 개정되어 대상 제품에 농수축산물 가공품까지 모두 포함하게 되었다.

동 법규에 따르면 제조자가 결함이 있는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신체상의 상해를 입히거나 그 제품 사용에 실질적인 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책임져야 한다. 원칙적으로 제조자가 책임의 의무가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판매자, 수입자, 유통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제품의 결함이 인체 상의 상해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최대 보상한도가 8천만 유로이며, 물질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500유로 이하의 소액은 자체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자료원: 소비자 보호원 관계자료(2005. 9)

## 76. 수입관리제도

### <개황>

독일은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국가로 극히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입에 제한이 거의 없으며 기타 쿼터 및 덤핑제도 등은 EU의 결정에 따른다. 수입관리는 대외경제법(AWG), 대외경제법 시행령(AWV) 및 AWG의 제10조 1항의 부속서로 매년말 발간되는 수입목록서(Einfuhrliste)에 따른다. EU 역내거주자는 물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EU 역내 비거주자도 수입행위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관세가 10유로이하(제품가격 80유로선)인 소포 등의 제품은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다.

<서류절차>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며, 필요서류는 신청서, 인보이스 원본, 선적서류, 원산지 증명이며 이 밖에 수입승인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입허가서가 필요하다. 1988년부터 시행된 EU의 서류 간소화 방침에 따라 150여 가지의 통관 서류를 단일화하여 통일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EU의 공동 관세규정(Codex)에 의거한 물품 분류 및 그에 대한 관세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승인 및 기타 규제의 대상이 되는 품목>

수입목록에 기재된 품목들중에서는 아래의 품목들이 수입 승인(Genehmigung) 및 기타 규제의 대상이 된다.

- 수입승인(Genehmigung)을 요하는 것 : 수입 리스트의 제 4컬럼에 "-"라는 코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승인이 요구된 경우
- 수입 License(Lizenz)을 요하는 것 : 수입 목록의 제 4컬럼에 "L"라는 코드가있을 경우이다. 이 경우는 EU의 법령에 의한 수입 License (Einfuhrlizenz)가 필요하다. 단, EU의 조직(organe)이 별도조치를(etwas anderes)를 실시하지 않는 한 수량제한은 채택되지 않는다.
- 원산지 증명(Ursprungszeugnis)을 요하는 것 : 수입 목록의 컬럼 5에 "U"라는 코드가 있으면 c/o가 필요하다. 또 "UE"표시품목에는 원산지 진술서(Ursprungserklaerung)가 필요하다.

<수입제한, 감시, 점검을 요하는 품목>

수입제한(Beschaerlenken), 감시(Ueberwachen) 또는 점검(Kontrolle)을 요하는 품목(컬럼 5)은 다음과 같다.

EU공동의 시장조직 또는 EU공동의 거래법규로 제한하는 농축산물 중에서 "M0" 표시품목들은 "Gemeinsame Marktorganisation oder Handelsregelung (공동 시장 조직 또는 공동 거래법규)"의 적용을 받은 품목들인데, 이들은 EU이사회 또는 집행위의 법령(Rechtsakte)을 통해 그 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

감시(EU회원국 전체가 또는 EU집행위의 승인하에 독일 단독으로) "Ue0" 표시 품목들은 세관에서의 수입통관(Einfuhrabfertigung) 이전에 수출입자의 성명 등 기타를 기재한 감시 서류(Ueberwachungsdokument)를 연방경제청(BAW, Eschborn 소재)이나 연방농산식품청(Frankfurt 소재)에 제출, 확인을 받은 후에 이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관리관청의 선택기준, 즉 BAW인지 연방농산식품청인지 여부는 컬럼3에 명기되어 있다)

점검신고 "EKM" 품목들은 BAW 등을 경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통관시에 수입점검신고(Einfuhrkontrollmeldung)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수입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장벽은 아니나,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수입목록서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들 : 규제품목>

- 일반적 규제(3항목) : 국제조약, 협정(GATT 또는 EU의 Roma조약 등)에 의한 것
- 공공질서 유지의 관점에서 규제되는 것(11항목) : 은행권, 정부채권 등에 사용되는 종이, 무기, 폭발물, 핵물질, 방사성 물질 등
- 환경보호의 견지에서 규제되는 것(4항목) : 폐기물, 연료첨가용 연 및 이를 함유하는 물질, DDT, 유독물
- 건강보호 견지에서 규제되는 것(18항목) : 식용, 정육관계(9항목), 계란 및 그제품(2항목), 기타 식품(3항목), 마약, 전염병 지역으로부터의 수입, 알콜, 인산동물(13항목)
- 식물 (5항목)
- 공업소유권의 보호(3항목) : 원산지의 허위신고 금지에 관한 Madrid 협정 (1925. 3. 21)비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경우, 상동 Lisbon협정(1958.10.31)에 저촉되는경우 상표법(Markengesetz, 94.10.25에 Warenzeichengesetz을 전면개정)에 저촉되는경우
- 농산물 시장 질서( Marketordnung과 관련) 유지대상 물품 (8항목)

<수입목록의 구입처>

Bundesanzeiger VerlagsgmbH, Koeln  
Postfach 108006 50667 Koeln Tel : (0221)20290, Fax : 2929278

Bundesanzeiger VerlagsgmbH, Bonn  
Postfach 1320 53175 Bonn Tel : (0228)382080, Fax : 3820836

Wilhelm Koehler Verlag  
Brueckenkopf 2a 32372 Mindel Tel : (0571)28031, Fax : 28021

<화학물질 허가제(Reach 제도) 실시 예정>

현재 EU는 모든 화학물질의 생산, 사용, 수입 시에 허가를 득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오는 2005년부터 정식 시행할 것을 목표로 마련 중인 일명 “Reach 제도” 에 의하면 약 3만종의 화학물질이 관련 법에 의거, 등록되어야 하며 이 중 1만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용 및 수입 허가를 득해야 한다.

동 법안은 유럽 및 유럽과 교역하는 많은 기업들로부터 반발에 부딪혀 내용을 완화하는 수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유예기간이 11년 주어지는 것을 골자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자료원: 독일 관세청 홈페이지([www.zoll.de](http://www.zoll.de), 2005. 9)

## 77. 관세제도

독일은 EU회원 국가로서 EU의 공동수입규정에 따라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EU 및 EFTA 회원국에 대해서는 무세이며, 기타국에 대해서는 EU공통 관세율을 적용한다.

2004년 5월1일부로 EU에 중동구 및 지중해 10개국 (사이프러스, 체크,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이 가입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EU 공동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상품분류 체계는 HS Code 방식에 의한 품목 분류 (8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인보이스 가격 1,000유로 이상의 수출입은 관세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다.

관세율체계는 WTO가맹국 및 최혜국대우 체결국에 적용하는 양허세율과, LOME협정국, GSP 수혜국에 적용되는 특혜세율, 기타 이를 제외한 국가에 적용되는 일반관세로 되어 있으며, EU공동 차원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가기능이 있다. 독일세관은 EU의 관세 Codex (EU관보) 및 독일의 관세행정법에 근거한 "독일 시행관세율표 (Deutscher Gebrauchs Zolltarif)"에 의거 통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입허가 품목에 대해서는 연방경제노동부 산하인 연방경제청 (Bundesamt fuer Wirtschaft) 및 연방식품/농림부 산하인 연방 농산/식품청 (Bundesanstalt fuer Landwirtschaft und Ernaehrung)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자료원: 독일 관세청 홈페이지([www.zoll.de](http://www.zoll.de), 2005. 9)

## 78. 통관절차

통관절차는 수입신고 및 심사로 시작되어 물품검사, 관세 등의 납부를 거쳐 물품을 반입하는 것으로 그 절차가 종결된다. 단 수입허가가 요구되는 물품은 연방경제청에 신고하여 허가를 득해야 한다.

기타 전세계적으로 공통 적용되는 서류 (Original Invoice 등)외에 특별히 요구되는 서류 및 절차는 없으며, 모든 절차와 규정은 EU 공동 관세법에 따른다. 1988년부터 시행된 EU의 통관서류 간소화 방침에 따라 통일 양식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을 사용함으로써 150여가지의 세관 등록 서류가 통일되었다. 독일 연방 재무부 주도로 구축되고 있는 "통관 절차 전산화 시스템 (ATLAS)" 을 통해 독일 내 세관 중 한 군데서만 신고가 이루어지면, 전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중복된 행정절차가 불필요하다.

<ATLAS (Automatisiertes Tarif- und Lokales Zollabwicklungssystem) 개요>

- 운영기관 : 독일연방 재무부
  - 현재 전국 50여개의 세관에서 운영 중
  - 홈페이지 : [www.kost-atlas.de](http://www.kost-atlas.de)
- 성격 : e정부 구현(BundOnline 2005)의 일환으로 인터넷을 통한 통관처리
  - 통관절차를 인터넷을 처리
  - 상품분류 코드에 따라 관세 등 세율 자동 계산
  - 해당 세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중앙 데이터처리 서버에 직접 접속함으로써 시간과 노력 절약 효과
- 운영목적
  - 기존 분야별 통관 전산 시스템의 통합 : ALFA, DOUANE, SADAT, KOBRA 등을 ATLAS로 통합
  - 전체 통관절차의 일원화
  - 주요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제 IT 프로젝트와의 통합
  - 국제무역 관련 정보교환 용이
- 사용방법
  - 사용 희망자는 동 시스템에 등록되어 ID를 부여 받은 후 사용
  - 사용료는 제품, 분야 등에 따라 다르며, 소프트웨어 비용이 별도
  - ID는 해당 본인과 대리인이 사용 가능
  - 전자범죄 예방을 위해 전자서명은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음.

<참조> 독일의 경우, 공항 통관시 출입국검사가 간소화되어 큰 문제는 없으나, 담배의 경우 철저히 통관심사를 거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람. (1인 1보루 한정)

\* 자료원: 독일 관세청 홈페이지, 무역관 자체정보([www.zoll.de](http://www.zoll.de), 2005. 9)

## 79. 유통구조

### <상관습>

EU시장 단일화에 따른 경쟁력제고를 위해 유통업체의 대형화, 집중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일즈 대행업자 및 커미션 에이전트 등 중개상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국적 유통망을 구축하고 직접 수입 판매까지 하는 대형체인점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경제의 지방 분산화에 따른 지역별 세일즈 대행업자를 통한 판매활동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A/S를 요구하는 제품의 경우에 제조업체로부터의 직수입보다는 기술에이전트를 통한 수입이 선호되고 있다.

전기전자부품 및 건축재의 경우 CE인증이나 상품특성에 따라 별도의 인증 (예: VDS인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만 수입하는 경향이 짙다.

대부분의 상품이 규격화, 코드화하여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거래는 문서화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관리 및 정확성을 기도하고 있다. 신속성은 다소 미흡하나 계약 내용의 철저한 이행으로 신뢰감을 조성하며, 품질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계획하에 점진적인 사업 확장 및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독일 수입업자들의 경우 최근 인터넷 보급이 확대되면서 인터넷이나 이메일을 통해 상품정보를 소개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도 인쇄물 카타로그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 이메일을 통해 상품 소개시 광고메일정도로 취급하여 삭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편물을 통한 상품소개가 바람직하다.

### <소비자취향>

품질과 가격을 동시에 고려하는 실용적 구매 성향이 있으며, 지역경제의 발달로 소비자 취향면에서 지역별로 다소간 차이가 있다. 또한 품질과 가격 비교가 용이한 대형매장을 통한 저렴한 제품의 구매가 증가 추세이며, CE인증 등 독일 내 각종 안전규격을 획득한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 <이윤 범위 및 할인폭>

통상 대형매장의 경우는 20-50%의 이윤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전문매장의 경우는 50-200%까지 제품의 성격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4년 여름까지 계절별 할인 세일즈기간이 조성되어 이 기간동안 최고 50%까지 할인 판매가 이루어 졌으나 2005년부터는 이러한 기간이 사라지고 각 소매체인점간에 시기에 구분없는 할인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유명브랜드의 경우는 자사 이미지 관리를 위해 할인율도 극히 제한적이며 세일기간도 매우 짧다.

### <독일 대형 할인체인점>

전통적으로 서비스위주의 전문상점이 강세를 보이던 독일 시장은 수 년전부터 미국식의 대형 할인체인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대형 할인체인점들은 각종 브랜드 제품뿐만 아니라 노동력이 저렴한 동구권이나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에서 유명 브랜드 제품과 비슷한 품질의 OEM제품을 직수입하여 덤핑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 Metro AG: Metro Cash & Carry GmbH, Real SB-Warenhaus GmbH, Extra Verbrauchermarkte GmbH, Media-Saturn-Holding GmbH, Praktiker-Bau und Heimwerkermarkte AG, Kaufhof Warenhaus AG 등의 6개 대형 체인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26개국에 지점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고용인원 235,000명, 2004년 매출액은 515억 유로(2003년 대비 4.0% 증가)에 달한다.
- Edeka Zentrale AG: 총 11,000개의 판매업소를 가지고 있으며 연간매출액 90억 유로 (2004년)에 달한다.

- Aldi Gruppe: 독일 최대 식품체인점으로서 생활용품도 판매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260억~30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Lidl Gruppe: Aldi 그룹의 경쟁사로서 2004년 현재 유럽 15개국에 6,000여개의 판매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연간 매출액은 200억 유로에 이른다.

\* 자료원: 독일 언론보도 종합(2005. 5)

## 80. 국제입찰제도

### <조달시장 규모>

독일의 연간 조달시장 규모는 2000억 유로 규모이다. EU전체의 조달시장 규모는 EU 총GDP의 11%인 7천2백억 유로다. 독일의 조달시장 규모는 EU전체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나 공공입찰에 의한 조달은 연간 2억7천만 유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독일 조달시장의 장벽>

외국업체에 대해 조달시장 장벽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은 EU로부터도 EU조달 지침의 국내법 전환 및 시행이 느리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구동독 작센주 발전소 건설 입찰에서 탈락한 미국의 GE, 웨스팅 하우스사 등은 독일시장의 외국업체 차별을 지적 자국정부에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독일은 자국의 정부조달 입찰중 불과 5-8%만 EU 또는 국제적 입찰에 붙였으며, 이 중 외국업체 수주율은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즉 대부분의 조달 프로젝트가 국내 시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EU의 조달 지침에 따라 향후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 물품구매, 건설, 서비스에 대해서는 EU차원의 시장개방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단계적인 EU지침의 국내법 전환 절차를 밟고 있지만, 연방에서 각 주정부 및 기초지자체의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독일의 특성상 조달시장 폐쇄성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관별 조달현황>

독일의 공공조달 관련기관은 연방 기상청에서부터 지자체 병원까지 다양하다. 조달정책 및 통계를 총괄하는 연방기관 부재로 정확한 기관수는 입수가 어려우나 조달 컨설팅사인 BAO Berlin GmbH사의 데이터 베이스에 수록된 독일 조달관련 기관은 3500개이다. 공공조달 기관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직도 분명치는 않다. 일반적으로 국가를 위해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기관을 말하지만 최근까지 가장 많이 쓰이는 기준은 구매예산의 출처가 어디인가와 공익목적 설립기관인가 여부이다.

국가 및 지자체 등 국가예산으로 집행되는 모든 구매행위는 국가회계법 적용을 받게 되며 이국가 회계법은 연방, 주, 기초지자체 차원의 시행령 형태로 조달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연방부처, 주립대학, 연금공단, 시립병원, 연구소, 하수처리장 등 공공예산으로 구매행위를 하는 모든 기관은 조달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수천여개의 조달기관별 연간 구매규모등은 정확한 파악이 어렵지만 총 조달규모는 독일 전체 GDP의 13%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조달컨설팅 기구로는 연방차원의 민간협의기구인 "Ständige Konferenz der Auf-tragberatungsstellen" 산하에 지방별로 약 16개의 분회가 있다. 이들 분회중 상기 BAO Berlin만이 GmbH(유한회사)이고, 여타는 모두 등록협회(e.V. 한국의 사단법인에 해당)이다.

### <조달법규>

독일의 조달관련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물품조달법(VOL), 건설조달법(VOB)의 독일 국내법이 있고 EU차원의 EU조달 조정 지침이 있다. EU조달 지침은 현재 국내법화 되고 있는 단계이며 EU서비스 조달지침은 아직 국내법화 되지 않은 상태이다. 분야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조달프로젝트는 EU차원의 입찰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일반 물품 및 서비스 구입은 20만 ECU, 건설공사는 500만 ECU 등 이상이며, 이 경우 타 회원국 업체에 대해 차별해서는 안된다.

### <조달 참가자격>

조달참가 자격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가능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들에 대해 조달기관은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필수사항은 아니나, 독일상공회의소의 Handelsregister(상업등록)이 바람직하다. 만약, 등록되어 있을 경우 Gewerbeanmeldeschein(영업등록증) 납세필증, 종업원 사회보장세 납부 증명, 기타 회사에 대한 기본 Reference 자료 구비가 필수이다. 품목 및 프로젝트 종류에 따라서는 해당 품질증명, 안전규격 등 추가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조달 정보>

조달정보는 EU차원은 EU 관보에, 독일연방 차원의 전부 및 독일 지방차원의 상당부분은 독일의 연방 입찰관보(Bundesausschreibungsblatt)에 게재된다. EU의 전자매체 공고는 관보 부록 형식으로 운영하는 TED가 있다. 연방 입찰보는 연방입찰보 출판사의 Home Page를 통해서도 접속되며, 온라인 또는 프린트물 형태로 정기구독이 가능하다. (유료)

### <경쟁방식>

경쟁방식은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있는데 일반 경쟁입찰 방식의 비중이 약 50%이다. 특수하게 제한 경쟁등 수의계약이 허용되는데 이는 군수물자, 첨단기술제품 등의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처음 진출한 업체의 낙찰 사례는 매우 드물다.

도로공사와 같은 한 프로젝트에 있어서 여러가지 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업체들이 콘소시움을 구성 공동으로 응찰하게 된다. 이 경우 조달기관은 콘소시움 대표를 상대하게 된다.

콘소시움 대표사는 참가업체들 내부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맺어야 하고 공사부실 또는 문제발생시 책임을 지게 된다. 이 경우를 대비 보증은행 등 보증기관들과 계약이 필수적이다.

<입찰전략>

독일의 조달시장에서 외국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적으로 2%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EU 및 국제차원의 시장에 개방하는 프로젝트 규모도 총 조달의 5-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폐쇄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업체들은 독일업체와 협력하여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협력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동종업체와 업무를 분담하는 수평적 방식, 부품업체가 하청형태로 참여하는 수직적 방식, OEM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특히 조달시장 경험이 많은 독일업체들과의 협력 및 공동입찰 참가를 시도함이 초기단계에서는 바람직하다.

\* 자료원: 조달청 관보([www.bundesausschreibungsblatt.de](http://www.bundesausschreibungsblatt.de), 2005. 9)

## 81. 외환관리제도

독일의 경우 합법적인 자본의 대내외 이동에는 전혀 규제가 없으며, 과실송금 등 제반 자본이동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단기성 투기 자금들이 전세계적으로 금융질서를 교란시키고 있고 개별 투자자들도 독일의 높은 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유럽 내 세율이 낮은 국가 (Tax Haven)으로 자금을 불법적으로 송금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하여 단기성 투기 자금 및 탈세 회피용 자금 등을 규제하자는 제안을 독일 재무부장관이 주창한 바 있으나 주변국가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받고 있지는 않다.

관광 등 출입국 시에도 별도의 외환관리규정이 적용되는 사례는 없어 외환보유 신고서 등의 작성이 불필요하다.

<참고> 독일의 경우, 유로화만이 통용되는 국가로 출국전 유로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독일 일반시중은행의 경우, 위조에 대한 위험으로 100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있으며, 환전소에서는 수수료가 5%정도로 매우 비싸다.

\* 자료원: 관련 보도기사 종합(2005. 6)

## 82. 시장특성

독일은 2004년 기준으로 총 국민생산(GDP)가 2조 2천억유로로 미국, 일본에 이어 제 3위의 경제대국이다. 시장특성을 살펴보면 독일은 자유로운 경쟁을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장의 주요특성을 보면 독일업체들은 거래선을 쉽게 바꾸지 않고 한번 신뢰가 형성된 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관계로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기는 어려우나 일단거래가 트이면 장기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가격 대비 품질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여 가능하면 낮은 가격의 좋은 제품을 찾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디자인, 포장 등 비가격 요인 또한 중요시된다. 독일인들은 엄격한 계획성과 합리적 사고방식이 생활습관으로 배어 있어 총동구매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 하겠다.

보수적인 성향으로 거의 모든 거래를 문서 위주로 행하고 있다.

일반소비자들의 경우 별도의 구매시즌은 존재하지 않으나 크리스마스 및 하계 대바겐 세일기간중에 의류 및 가정용품의 경우 연간구매의 70-80%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유통업체들도 이 시즌에 대비하여 연간 물품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상들은 연말, 연초 또는 구매시즌 전에 독일에서 개최되는 산업별 주요 박람회에서 수입대상 품목을 선정, 연간 구매계획을 확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반적으로 소비재의 경우 독일내 수입품의 70% 이상이 관련 박람회를 통해 구매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독일인들은 높은 국민소득과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상당히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고 따라서 여가생활 또한 일상화되어 있다. 또한 높은 소득세율로 인해 중간소득자의 층이 두텁고 이들이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빈부 격차 또한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독일정부의 정책기조가 기업가 중심으로 전환되고, 특히 통일 이후 일반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증가하면서 일반서민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빈부의 격차가 조금씩 나타나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노령층의 증가 및 근로자수의 감소 등으로 노후 지급되는 연금이 감소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것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규모 유통업체들과 중소규모 유통업체와의 M&A 지속으로 유통업체의 대형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들 업체들은 전국적 유통망을 유지,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경제의 지방분산화가 철저히 이루어져 있음에 따라 지역별 세일즈 대행업자를 통한 판매활동 또한 아직까지 성행하고 있다.

\*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2005. 9)

### 83. 상거래시 유의사항

#### <현지의 문화관습>

마틴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은 현재 구교와 신교가 거의 반반으로 남부지방은 구교가 강하고 북부지방은 신교가 널리 퍼져 있다.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교회와 국가가 분리된 이후 교회는 사적단체가 아닌 국가와 협력하는 독립적이며 공적인 법인 성격을 띠고 있다. 교회는 각 신자들로부터 종교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실제 징수는 주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다. 교회 구성원에서 탈퇴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독일인들은 의식주 중에서 특히 주를 중요시 여겨 오래된 건물인데도 외관을 원래의 모양대로 보존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내부 실내장식은 매우 현대적이며 기능적으로 꾸며져 있다. 음식은 검은 빵과 감자, 치즈 등 검소하게 먹는데 저녁식사도 불을 쓰지 않는 Kalte Speise로 때우는 예가 많다.

독일은 19세기 후반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300여 제후와 자치도시로 분열되어 있어 지역성이 강하고 보수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 다소 고집스럽고 자기의 전통을 지키려는 성향이 많으나 자기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는 장인정신이 생활가운데 배어 있다.

관공서의 일처리 또한 원리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지켜지며 뇌물은 통용이 안된다. 그러나 간단한 이국적인 선물은 허용되며 한국산으로는 태극무늬의 부채, 전통도자기, 문갑 등은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또한 비즈니스 런치 정도는 업무진행에 순기능을 하며 아는 사람을 통한 업무추진도 일의 처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수입관행>

대부분의 대규모 수입은 L/C 베이스로 이루어지나 상호간 신뢰가 확실할 경우에는 D/A, D/P, T/T거래도 행해지고 있다. 이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한국업체들의 경우 계약조건에 그렇게 민감하지 못해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독일의 바이어들은 계약조건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거의 모든 업체가 클레임을 제기하고 있으며 한국업체의 경우 계약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계약조항과 다른 선적으로 클레임을 당하거나 대금지불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 <거래시 유의사항>

독일인들과 한번 연결이 되면 매우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전제조건으로는 성실하며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비즈니스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정확한 계약체결과 함께 계약의 성실한 이행이야말로 비즈니스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유로화가 통용되고 나서 수출입 결제가 유로화로 되는 경향이 늘고 있으나, 최근 유로화의 대달러 강세로 유럽 외 국가와의 국제거래에서는 미 달러화를 더 선호한다.

#### <상담시 유의사항>

상담시 간단한 독일 인사 (Guten Tag, Auf Wiedersehen 등)를 사용하면 상담에 도움이 되며, 의사표시를 확실히 하는 것이 좋다. 얼굴을 맞대고 눈을 보며 말하는 것이 신뢰감을 주며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면 결혼 관계, 나이와 같이 개인적 사항은 묻지 않는 것이 좋다.

상담결과는 문서화하여 상호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렇게 문서화된 것은 상호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 <바이어 접촉시 구비서류>

제품에 대한 상세 자료나 회사소개자료가 가장 중요하다. 설립연도, 종업원수, 주아이템 등을 알려주는 것은 상관습 상 예의에 속한다. 회사 소개용 카탈로그가 준비되었을 경우 신빙성을 재고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제품 카탈로그는 잘생긴 모델이나 멋진 배경을 뒤로한 보기 좋은 것보다는 제품사양 및 검사결과 등이 중심이 된, 딱딱하지만 정보위주의 카탈로그가 더 효과적이다.

\*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2005. 9)

## 84. 전반적 투자여건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 입장>

중앙이나 지방정부 모두 외국인 투자에 매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특히 11.4%(460만명)에 육박하는 실업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인센티브는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기업들은 독일 국내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법률과 규칙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지방 경제개발공사 등에서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외국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비자발급 및 노동허가 취득에 유리한 정보 등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독일의 투자유치활동은 독일 경제부 및 주정부, 상공회의소 등이 상호 연계하거나 독자적으로 투자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제부내에는 "외국투자정보 안내센터"가 있고 각 주별로는 주정부 또는 경제개발공사나 관련 투자 진흥기관들이 투자유치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연방경제부는 지금까지 연방정부, 주정부, 경제개발공사 등에 의해 독자적으로 수행되던 투자유치 활동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노력과 세계적인 M&A 열풍에 힘입어 '03년의 경우 약 492억유로 상당의 외자를 유치함으로써 투자대상국으로서의 독일의 면모를 다시 한번 과시하였다. 투자국은 주로 프랑스, 룩셈부르크, 영국, 미국 순이었다.

### <투자 허가.감독기관>

독일은 기업투자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별이 없으므로 외국인 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허가.감독 기관은 없다.

따라서 독일에서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구역관청의 기업과 (Gewerbeamt)에 정관을 작성하여 등록하면 되며, 기업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기업과 는 지역관할법원 (Amtsgericht)에 등록여부를 결정하며,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등록해 준다. 그러나 금융, 보험 등 업종에 따라서는 사전에 사업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의 행정조직은 연방정부-주정부-지역관청 (대도시는 시청)-구역관청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투자나 기업설립 등의 경우에는 구역관청에서 관할하고 있다. 지역관청의 관할 범위는 우리나라의 면정도이며, 구역관청의 관할 지역은 우리나라의 읍단위 정도 규모이다.

### <조세정책>

독일의 조세제도는 정당한 사회적 조세부담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독일의 기업 조세 부담율은 높은 편으로 KPMG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독일의 법인세율은 39.6%로 EU의 평균 31.7%를 훨씬 웃돌고 있을 뿐 아니라,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유럽 평균 법인세는 1% 인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은 1.2% 인상되었다. 고 분석되고 있다.

외국 기업들은 독일에서 법인세 포함 총 41-45%의 세율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이태리의 41%, 벨기에의 40%, 프랑스의 36%, 네덜란드의 35%, 영국의 30%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

독일의 간접세는 EU국가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16% (부가가치세)로서 장기적으로는 EU 국가들간 부가가치세 세율이 조정되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5년중 기민당/기사당 연합은 공약으로 부가세 2%인상을 내세운 만큼, 조만간 부가세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동독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은 투자보조금 특별공제와 영업세 및 재산세 면제조치 등 다양한 면세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구동독지역 5개주에 대한 투자를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독일 국내업자들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물론 자기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기업의 진출에 대해서는 경계할 수 있지만 이는 자국 업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반감은 아니다.

<노동관계>

독일에 투자 진출할 경우 노동자들과의 관계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데 독일의 노동법이나 노사관계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과 해고, 임금, 감봉 등 여러가지 경우에 다른 나라와는 다른 관행이 있다. 특히 현지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관행을 어느 정도 존중해 주는 것이 원활한 노사관계를 이끌어 가는데 필수적이다.

<외국인을 위한 특별한 투자 기회>

외국기업은 국내기업과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외국인을 위한 특별한 투자 기회는 없다. 독일에서의 투자는 임금, 조세 등 여러가지 면에서 높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독일 자체 시장의 규모뿐만 아니라 EU 시장, 동구권 진출 등 높은 이익이 가능한 지역이기도 하다.

\* 자료원: 독일 투자청 홈페이지 및 무역관 자체정보([www.invest-in-germany.de](http://www.invest-in-germany.de), 2005. 9)

85. 투자유치정책

<개황>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외국인의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실업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독일의 투자유치활동은 독일경제부 및 주정부, 상공회의소 등이 상호 연계하거나 독자적으로 투자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제부내에는 '외국투자정보 안내센터'가 있고 각 주별로는 주정부 또는 경제개발공사나 관련 투자 진흥기관들이 투자유치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연방경제부는 지금까지

연방정부, 주정부, 경제개발공사 등에 의해 독자적으로 수행되던 투자유치활동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가칭 Standort Deutschland GmbH)

독일은 주요 국제기구 및 기관이 수행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산-학-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클러스터가 공고한 점을 바탕으로 기술혁신 부문에서 우수한 국가로 꼽히고 있으며, 특히 R&D 투자, 신기술 개발 등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선정되고 있다.

#### <관련법규>

독일에는 기업투자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별이 없으므로 외국인 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법규는 없다.

#### <투자우대제도>

근본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등한 적용을 하므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우대제도는 없다. 다만, 지방경제개발공사 등에서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외국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비자발급 및 노동허가 취득에 유리한 정보 등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 자료원: 하기 기관 홈페이지(2005. 6)

##### ○ 기관명 : 독일 연방 외국인투자 유치 위원회

- 주소 : Office of the Federal Commissioner for Foreign Investment in Germany
- Markgrafenstrasse 34, 10117 Berlin Germany
- 전화 : +49 30 206 570, 팩스 : +49 30 206 57111
- 홈페이지 : [www.fdin.de](http://www.fdin.de)
- 기관 개요 : 독일 내 투자를 위한 기업에 정보제공

##### ○ 기관명 : 프랑크푸르트 경제개발공사

- 주소 : Wirtschaftsfoerderung Frankfurt, Hanauer Landstr.182, 60314 Frankfurt/M, Germany
- 전화 : +49 69 212 36 209, 팩스 : +49 69 212 36 230
- 홈페이지 : [www.frankfurt-business.de](http://www.frankfurt-business.de)
- 기관개요 : 프랑크푸르트의 경제개발을 위한 기관으로 파트너 발굴도 함.

##### ○ 기관명 : 바덴뷔르템베르크 국제경제협력청

- 주소 : Baden-Wuerttemberg Agency for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Ltd. (GNZ), Willi-Bleicher-Str.19, 70174 Stuttgart, Germany
- 전화 : +49 711 22787, 팩스 : +49 711 22787
- 홈페이지 : [www.bw-invest.de](http://www.bw-invest.de)
- 기관개요 : 지방정부 투자담당 부서

○ 기관명 : 독일 산업투자위원회

- 주소 : Industrial Investment Council GmbH(IIC) Charlottenstr. 57, 10117 Berlin, Germany
- 전화 : +49 30 2094 5660, 팩스 : +49 30 2094 5666
- 홈페이지 : [www.iic.de](http://www.iic.de)
- 기관개요 : 외국인투자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

## 86. 외국인투자제한

### <투자제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다만 EU 협정에 의해 방위산업분야의 투자는 제한되고 있다. (전투기, 전차분야)

\* 자료원: 독일 투자청 홈페이지([www.invest-in-germany.de](http://www.invest-in-germany.de), 2005. 6)

## 87. 투자진출절차

독일은 외국인 기업을 내국인 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별도의 투자진출 절차는 없으며, 투자진출시 유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투자진출지역의 신중한 결정>

투자진출 목적의 명확화 : 현지진출 목적을 정보수집 및 연락사무소, 상품의 판매유통, 현지생산 및 연구개발 등으로 구분하여, 그에 적합한 지역이나 투자규모 및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

지역별 각종 투자지원 정책 및 혜택 비교조사 : 독일의 경우 국내외 기업에 대한차별은 없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방정부들의 투자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범위가 상이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정책도 지역별로 상이한 바, 이러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세밀히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동류의 정보는 각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기관을 접촉하면 상세한 정보의 수집과 조연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투자유치정책 참조)

### <현지생산제품의 시장성 철저 조사>

목표시장의 정확한 정의 : 현지 생산제품의 주목표시장을 명확히 정의하여 가장 유리한 지역을 선정하고 적합한 상품생산 계획을 통해 진출해야 한다.

제품판매 가능성 파악 : 독일의 경우 기업운영이나 생산비용면에서 높은 수준임을 감안, 현지 생산계획상품이 현지 독일산과 비슷한 수준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는 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장기적 판매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단순히 EU의 수입규제 회피목적의 현지 생산투자는 독일지역의 경우 높은 생산비용으로 그 성공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현지법인 설립. 운영 관련 법규의 속지>

회사형태별 관련 법규 : 독일의 경우 회사설립 절차는 상당히 단순한 편이나 그 운영에 대해서는 업종이나 형태에 따라 매우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의 사전파악은 절대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현지 전문가를 선임,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사관련 법규 : 독일의 노동자권의 보호규정은 상당히 강하게 적용되고 있어 한국식 노무관리 개념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는 바, 특히 생산투자나 현지인 채용이 많은 투자의 경우 노무관리 관련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조세관련 제도 :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독일의 조세제도는 사회주의 성격이 강해 잉여금에 대한 과세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업손실 발생시 현지 금융 활용 등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장기적 마스터플랜에 의한 현지화전략 수립>

장기시장 전략수립 : 회사전체의 장기전략을 근간으로 현지 투자를 결정하되, 현지 회사설립 후의 정상운영이나 장기발전계획 등을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 순차적으로 진행시키는 합리적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현지화의 조기실현 : 진출 초기의 한국형 중심의 회사운영 방식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현지화를 이행하는 것이 투자진출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이다. 이는 경영단계별 현지인 고용확대로도 가능하나, 한국관리자들의 현지화가 보다 중요하다.

<법인설립 신청>

담당기관은 투자대상지역의 구역관청의 기업과 (Gewerbeamt)이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법인설립 정관 (Gesellschaftsvertrag) 및 공증서
- 설립자의 신분증명서
- 필요한 경우 사업허가서 및 사업관련 자격증 등
- GmbH (유한책임회사) 이상 규모의 법인 설립시에는 최소 납입 자본금(25,000유로) 증명서

상업등기(Handelsregister) 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업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구역관청의 기업과가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 관할기관 : 해당지역 관할 법원 (Handelsregistergericht 혹은 Amtsgericht)
- 등기가 완료되면 연방관보에 게재된다.
- 법인설립시 기업과의 담당자에게 동 등기필요 여부를 확인 필요
- 주재원 사무소나 소규모 자영업자 등은 동 등기가 불요

유관기관 통보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투자신청후 관할 기업과로부터 관할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의 각 기관들에게 통보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나 소요기간 단축이나 정확한 상황파악을 위해서는 직접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세무서 (Finanzamt), 산재보험조합 (Berufsgenossenschaft), 주정부 통계청 (Statistische Landesamt), 수공업자조합 (Handwerkskammer), 상공회의소 (IHK)

\* 자료원: 독일 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ihk.de](http://www.ihk.de), 2005. 9)

## 88. 지사 및 현지법인 개설

### <설립절차>

외국의 주식회사가 독일에 지사를 설립하려 할 경우에는 사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지사는 그 자신의 영업 프로파일 없이도 비독립적 또는 독립적인 거래실체로서 활동할 수 있다. 비독립적인 지사는 연락사무소 또는 소형의 판매사무소이다.

현지법인 설립절차는 이와 달리 소정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현지법인 설립 신청)

신청기관은 투자대상지역의 관할관청의 기업과 (Gewerbeamt)이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회사설립 정관 (Gesellschaftsvertrag) 및 공증서
- 설립자의 신분증명서
- 필요한 경우 사업허가서 및 사업관련 자격증 등
- GmbH (유한책임회사) 이상 규모의 법인 설립시에는 최소 납입 자본금(25,000유로) 증명서

상업등기(Handelsregister)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관할기관 : 해당지역 관할 법원 (Handelsregistergericht 혹은 Amtsgericht)
- 등기가 완료되면 연방관보에 게재된다.
- 투자신청시 기업과의 담당자에게 동 등기필요 여부를 확인 필요
- 주재원 사무소나 소규모 자영업자 등은 동 등기가 불요

유관기관 통보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투자신청후 관할 기업과로부터 관할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의 각 기관들에게 통보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나 소요기간 단축이나 정확한 상황파악을 위해서는 직접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세무서 (Finanzamt), 산재보험조합 (Berufsgenossenschaft), 주정부 통계청 (Statistische Landesamt), 수공업자조합 (Handwerkskammer), 상공회의소 (IHK)

### <기능과 등록>

지사는 모기업을 대신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거래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권한을 위임받은 지사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지사의 활동은 모기업의 활동으로 간주된다.

지사는 지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법원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공증을 받아야 하며, 신청은 모기업의 설립 인정서와 같은 몇 가지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신청서에는 공증을 받기 전에 모기업 이사 전원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만약 이 서명이 외국에서 이루어졌다면, 독일 주재 공관으로부터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법인은 독일 기업과 동등한 자격과 요건으로 독일 내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현지 법인장은 고용주 (Arbeitgeber)가 된다.

지사와 법인은 공히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된다. 즉, 독일 내에서 영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된다.

### <자본구조>

지사의 경우, 최소 자본금에 대한 요건은 없다. 그러나 본사와의 거래에는 과세 상의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종종 적정 자본금 수준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법적 해결을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규모가 작은 지사는 주로 모기업에 대한 판매에 관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 자본금 규모는 통상 10,000유로 수준이다.

현지 법인의 경우, 최소 자본금은 25,000유로이다.

### <지사경영>

지사는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지사장 외에 별도 경영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합자회사의 경우와 같이 노동자협의회는 관련 노동법 규정에 의거하여 인정되며, 주로 회사 경영상의 조언을 구한다든가 직원들에게 회사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지사 설치절차 및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다.)

- 영업행위 : 본사를 대신하여 영업행위를 할 수 있으나, 독자적인 영수증 발급 혹은 자금수령은 서울본사가 직접하여야 한다.
- 운영경비 : 지사 운영경비는 서울본사에서 직접 수령하며, 일부 지사의 경우에는 지출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후 환급받고 있는 사례도 있으나, 환급에 대한 법적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다르게 판정되므로 변호사 자문을 구해 확인 할 필요가 있다.
- 직원비자 : 2005년 비자협정 발효후 원칙적으로 비자취득은 현지(독일내) 외국인청에서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주한 독일대

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오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 파견직원 소득세 납부 : 파견직원의 경우 현지에서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 그러나 2002.10월 한-독 양국정부에 의해 체결된 사회보장세 면제 협정에 의해 사회보장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등록절차 : 지사설립지역(지사 소재지) 시청에 신고(gewerbeanmeldung) 의무가 있다. 신청서는 설립 예정지 시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관련서류 : 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는 회사정관, 서울본사등기부등본, 이사회명단, 자본금, 회사소재지, 현지파견자 인적사항 등 이며, 공증이 필요하다.

\*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2005. 9)

## 89. 공장설립

### <투자허가신청>

공장설립을 위해서는 투자대상지역 관할관청 기업과 (Gewerbeamt)에 투자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1)회사설립 정관 (Gesellschaftsvertrag) 및 공증서, 2)설립자의 신분증명서, 3)필요한 경우 사업허가서 및 사업관련 자격증 : 기업과에서 확인 가능, 4)GmbH (유한책임회사) 이상 규모의 법인 설립 시에는 최소 납입 자본금 (25,000유로) 증명서 등이다.

투자허가 신청과 동시 관할 법원(Handelsregistergericht 혹은 Amtsgericht)에 상업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등기가 완료되면 연방관보에 게재된다. 투자신청후 관할 기업과로부터 관할 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기관 1) 세무서(Finanzamt), 산재보험조합 (Berufsgenossenschaft), 주통계청 (Statistische Landesamt), 수공업자조합 (Handwerkskammer), 상공회의소 (IHK) 등에 자동으로 통보가 이루어지나 소요기간 단축이나 정확한 상황의 파악을 위해서는 직접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부동산 취득>

부동산 취득절차 : 원소유주와 매매계약 체결 - 매매대금지불-법무사의 공증을 받아 관할지역 등기소(Grundbuchamt)의 등기부 대장에 등록함으로써 모든 절차는 완료된다.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도 내, 외국인의 구분이 없으며, 취득절차도 특별한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관할 등기소도 지역(우리나라의 면단위 크기)마다 있다.

다만, 취득대상 부동산의 법적하자 및 행정 규제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등기부 등본을 열람,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에는 공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많고, 도시계획에 따라 부동산 사용목적이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근거법률인 연방건설법(Bundesbaugesetz)의 시행세칙은 각 기초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제정하고 있다.

<건축 및 관련허가>

건축감독(Bauaufsicht) : 헷센주의 경우 헷센주 건설법(Hessische Bauordnung)을 통해 부지, 시공 등에 대한 일반조건(도로인접간격, 비상계단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외에 소방규정, 주차장규정, 상가규정, 빌딩규정에 관한 많은 시행령이 있다.

담당관청 : 헷센주의 경우 37개의 기초 지자체청이 담당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시의 경우 시청 제4국인 도시계획국의 건축감독과이다. 헷센주에는 상위 감독관청으로서 Darmstadt, Giessen 및 Kassel에 각각 1개의 정청이 있다. 정청은 지방주와 기초지자체 중간에 있는 기구로서 각각 1개의 구(Regierungsbezi)를관할하고 있다. 헷센주의 최고 감독기관은 주 정부 내무성 건설국이다.

건축허가 신청 : 신청서에는 설계도와 건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축허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건물높이, 상하수도 영향, 대기오염, 대지형질 변경 등을 검토하며, 연방배출물규제법(Bundesimmissionsschutzgesetz) 및 사용용도 시행령(Baunutzungsverordnung)을 적용, 검토한다. 관청은 필요시 TUEV 검사를 의뢰한다.

건축계획 입안에서 허가까지는 최소 1년이 소요되며, 건축허가 절차 및 초기 투자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임대공장 또는 지자체에 의해 기 조성된 공업단지 또는 상공회의소의 창업보육단지에 입주하는 경우가 많다.

공장의 생산시설 설치허가 : 건축허가와와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헷센주의 경우, 담당관청은 건축허가 담당관청과 동일하다. 허가까지는 일반적으로 약 9개월이 소요된다.

\*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2005. 9)

## 90. 산업단지

현재 독일에서는 "산업단지"와 함께 "자유무역지대"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2005. 9)

## 91. 자유무역지대

현재 독일에서는 "산업단지"와 함께 "자유무역지대"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2005. 9)

## 92. 조세제도

### <세제개황>

독일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부과되고 있는 바, 법인세, 영업세 (거래세), 재산세,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가 각주공통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기타 연방세로서 보험세, 담배세, 석유세 등이 간접세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주세로서는 자동차세, 토지취득세가 있다.

기타 관세 및 지자체세가 있다.

법인세는 법인소득의 배당여부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며 또한 귀속방식이 적용된다.

법인세는 과세대상 소득의 최저 23.9%, 최고 53%이며, 주주배당금에 대해서는 30%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2000년 7월 연방정부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 단일하게 25%를 적용기로 하였다. 법인의 배당소득의 경우에도 1/2만 과세소득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200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Agenda 2010 정책에 의거, 소득세율 인하, 기업의 사회비용 (연금, 실업급여 등) 절감 등이 정책으로 도입되거나 도입될 예정이다.

참고로 2005년 현재 독일의 소득세율은 누진세 개념으로 0%에서 최고 42%까지 차등 구분되어 있다.

###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

외국법인은 독일에서 유한 납세자로 간주되며 단지 독일 원천소득에 근거하여 과세된다. 이 소득이 배당금이나 로얄티와 같은 수동적인 소득으로 인한 세무책임은 국내 납부법인이 독일 세무당국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이자소득세에 의해 완전히 해결된다.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곳에 세무 부담을 야기하지 않고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 동 지역의 피고용인은 엄격히 연락이나 기타 부수적인 기능에 업무의 영역을 한정시켜야 하고 잠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매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에 종사하지 말아야 한다.

\*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2005. 9)

## 93. 사회간접자본

### <전력>

표준전압은 230Volt/50Hz로서 양질의 전기가 풍부하게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현 집권당인 적-녹 연정은 환경세를 도입, 전기세를 인상하였고, 최근 고유가로 인하여 전력가격이 높아지고 있어 전력사용량이 높은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기업경쟁력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상하수도>

상하수도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으며 수돗물의 식수 사용이 가능하며 공업용수의 공급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교통>

독일의 교통망은 지하철, 버스, 전차, 기차, 항공 등을 이용 거의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으며 속도무제한으로 유명한Autobahn이라는 고속도로는 총 연장 20,000km로 세계적인 수준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무료이나 2003년 11월부터 12톤 이상의 화물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세를 적용하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세 (LKW-Maut)는 km당 평균 12.4센트 선이며, 고속도로 진입시 설치된 센서와 화물차 운전석에 설치된 센서에 의해 자동 측정, 계산 후 일정 기간 내 일괄 납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지하철, 전차 및 버스를 이용 도시교통망을 완비하고 있으며 시내에서는 택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거의 모든 택시는 Call 택시이어서 어느 곳에서도 편리하게 전화로 부를수 있다. 한편 철도역, 공항 및 시내 곳곳에 택시정거장이 있어 이곳에서는 대기해 있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 요금은 시내가 1.25유로, 20km 이내가 3.25유로, 40km 이내가 5.90유로, 50km 이내가 8.50유로이다. 택시요금은 시내, 시외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요금체계로 되어 있는데 기본요금 2.25유로이며 22:00-06:00까지는 km당 1.48유로, 06:00-22:00까지는 3km까지는 1.48유로, 이 이후에는 km당 1.33유로가 추가된다.

철도망도 매우 잘 발달되어 있으며 점차 고속전철 (ICE)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기차요금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비싼 편이다.

<통신>

독일의 전화 보급대수는 약 3천 7백만대, 팩스는 약 3백 만대로서 모든 가정에 전화가 설치되어 있으며 송수신 상태는 매우 좋은 편이나 요금은 비싼 편이다. 그러나 통신시장이 개방됨으로써 통신업체간 매년 요금이 대폭 인하되고 있으므로 향후 더욱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2005. 9)

94. 노동여건

<인력>

독일의 노동력은 아주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다른 국가의 기준으로 볼 때 독일 노동자의 훈련수준과 노동생산성은 매우 높다. 비교적 높은 실업률은 숙련된 기술력을 갖춘 노동력을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를 위하여 투입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 <임금>

독일 남성 근로자의 2004년 기준으로 월평균 급여는 2,978 유로이다. 많은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인력은 이보다 덜 받고 있으나, 숙련 노동자의 월 평균 급여는 3,546유로 정도이며 초과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더 받을 수 있다. 평균적으로 독일에서 독자적으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영어를 쓰고 말할 수 있는 경력을 갖춘 비서직의 경우 약 월 2,500 유로를 주어야 하며, 중간 관리자와 전문적으로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와 엔지니어들은 처음에는 3,000 유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많은 외국인 자회사의 일반 관리자의 경우에는 대략 월 5,000유로에서 6,000유로 정도를 받고 있다. 동부 독일의 경우 중간급 이상의 관리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은 서부독일의 75% 수준이다. 통독전에는 구동독 지역의 노동자는 구서독 노동자 월급의 40% 정도를 받았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협약에 따라 조만간 양 지역의 노동자 임금은 같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제는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다.

### <상여금>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연 100%이며, 연말에 지급하므로 13번째 급여라는 통칭으로 불리운다. 이 밖에 여름 휴가 기간에 휴가비(Ur laubsgeld)가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 <외국인의 고용>

독일에서 일자리를 얻기를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은 노동 및 거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른 EU 국가의 국민은 그들이 일하려는 직업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독일에서의 거주허가서 한 장으로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가는 그들을 독일시민과 동등하게 취급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독일로 일단 들어와 있는 경우에도 이것은 적용이 되며, 처음에는 5년짜리 허가서를 발급해 준다. 이 기간이 종료되면 영구허가서가 발급될 수 있다.

EU 이외의 국가 외국인인 그들의 본국에 소재하고 있는 독일 영사관에서 독일로 입국하기 전에 임시 체류허가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우선 3개월짜리를 발급해 주는데 입국 후부터는 1년 단위로 갱신해 준다. 노동허가는 고용주를 경유하여 신청하며, 발급된 노동허가는 통상 1년 동안 유효하다.

노동허가는 근로자와 고용주 양자에게 모두 적용되며, 고용관계가 변할 때는 재신청하여야 한다. 노동허가 신청은 현지 노동청에 하는데 동 분야의 독일 국내 실업률이 높은 경우에는 노동허가 취득이 어렵다. 그러나 외국인 소유의 지점 및 자회사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모기업으로부터 파견된 비독일인 직원에 대해서는 일정수의 노동허가를 입수할 수 있다.

\* 자료원: 연방 고용주협회 홈페이지([www.bda.online.de](http://www.bda.online.de), 2005. 9)  
    고속노조 홈페이지([www.dgb.de](http://www.dgb.de), 2005. 9)

## 95. 사회보장제도

### <현지인 사회보장>

독일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협상을 통해 합의된 임금이외에 법적으로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에 지불되는 비용은 임금 부대 비용이라고 불리며 독일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동 비용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종류로는 의료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이 있으며, 산재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에 대해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각각 50%를 분담해야 한다.

한편,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Agenda 2010을 통해 실업급여 기간 단축, 실업수당과 연금제도의 통합, 건강보험 제도 개혁을 통해 정부의 재정 건전화는 물론 기업의 세부담 감소를 위한 각종 정책이 입안되고 있다.

###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독일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간 협정에 의거, 가입여부가 정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10월 양국간 사회보장세 면제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으므로 주재상사의 경우 이종으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자료원: Tatsache ueber Deutschland(2005. 9)

## 96. 현지 생활여건

### <생필품 조달>

생필품은 체인점 (IDEA, Tengelmann, Aldi, Schlecker, Fegro, Real)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공산품 가격은 모두 정찰제이나, 지역에 따라 조금씩 물가차이가 있다. 규모가 큰 백화점이나 시내 대형 매장 외에는 신용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Real, Metro, Fegro 등 Cash & Carry 대형 유통점에서는 일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현금이나 직불카드 등을 이용해야 한다. 독일은 상점개폐법에 따라 백화점 등 일반상점의 일요일 영업을 하지 않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 <한국식품 조달여건>

프랑크푸르트, 뒤셀도르프, 베를린, 뮌헨 등은 주재원 및 교포가 많아 한국식품점이 다수 있으며 인스턴트 식품, 생선, 채소, 떡, 식품회사 가공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웬만한 식품은 거의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한국 2-3배이다.

(광성식품 : 069-733515, 한양유통 : 06101-542176, 한독식품 : 06171-54091)

한국인이 많지 않은 지역의 경우 비정기적으로 한국식품을 배달 판매하는 교포로부터 구입하거나 직접 한국식품점이 있는 곳으로 한번씩 쇼핑을 가서 구입하기도 한다.

### <레저여건>

작은 도시라 할지라도 대부분 축구장, 스포츠센터, 수영장, 테니스장 등 체육 시설을 갖추고 있어 스포츠 활동을 하기에 좋다. 주말에 가까운 숲이나 공원에서 산책, 피크닉, 자전거 타기 등을 할 수 있으며, 캠핑 장소가 많아 캠핑하기에도 좋다.

지역마다 수영장 등 스포츠 센터가 설립되어 있고 동호인 모임이 활발하여 모든 종류의 운동을 할 수 있다. 골프장도 다수 산재해 있으나 핸디캡 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등 이용이 까다롭고 요금도 비싸다  
(그린피 : 40-50 유로)

여행시에도 각 지역마다 Camping장 시설이 잘되어 있어, 안내책자 및 지도를 사전에 준비하면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주택 임차여건>

주택 임차료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s/m당 80-100유로 선에서 이루어진다. 임차료에는 관리비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임차료(Kaltmiete)가 있고, 관리비가 포함된 포괄 임차료(Warmmiete)가 있는데, 순수임차료가 정해져 있는 반면, 포괄 임차료는 관리비를 월 얼마로 할 것인가를 임대인과 정해야 한다.

주택 중개수수료는 월 순수임차료의 2개월치를 지불해야 하며, 보증금은 월 순수임차료의 3개월치를 예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01.9.1일부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주택 계약기간을 별도 명시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다.

### <치안상태>

치안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주간외출과 야간 외출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으나 현지인들은 대부분 저녁 퇴근 후에는 외출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 지내는 편이다.

외국인들의 유입으로 좀도둑이 많아져 단독주택 1층의 경우 문단속을 잘하는 것이 좋다.

신나치주의자들의 외국인에 대한 테러가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주로 터키인들과 동구 난민들에 대한 것이었으며 현재는 별로 표면화 된 것은 없다.

화재, 범죄, 응급환자 등 비상시 신고 전화번호는 전 독일 공통적으로 110번이다.

\*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2005. 9)

## 97. 이주정착가이드/이주.정착가이드

### <집구하기>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거 희망지역의 부동산 업자를 접촉하여 물건을 물색하는 것이 좋으며, 프랑크푸르트에는 영어소통 가능 독일 부동산 뿐만 아니라 교포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소가 다수 있다.

한국 주재원 및 교민이 많이 살고 있는 프랑크푸르트의 경우 대부분 시내보다는 주변환경이 좋고 입주가 용이한 인근 위성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비록 작은 도시일지라도 재판 편의시설이 전부 갖추어져 있어 생활이 편리하다. 단, 위성도시들은 택시, 승용차 이외에 대중교통 수단이 매우 희귀한 경우가 있으므로 도심의 전철 노선 집중지역이 무난하다. 또한 프랑크푸르트 근방 및 주변 교외에서는 집을 구하기가 어렵거나 비싸 집을 구하는데 수 주일은 걸리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독일내 주택 임차료는 위치, 노후정도, furnished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한데 보통 s/m당 15유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결국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방 4개짜리 (거실 및 침실 3)가 필요한데 면적으로는 대략 110-120s/m가 되고 월 임차료는 관리비 포함 1,400 - 1,800유로 수준이 된다.

대부분의 집은 중앙난방이 가능하지만 부엌설비가 없는 집이 많다. 집세는 매달 지불해야 한다. 대부분의 집주인은 Dauerauftrag이라는 제도를 선호하는데, 이것은 자동적으로 은행구좌에서 집세가 빠져나가는 제도이다.

2001.9월부터 독일 주택 임대차 계약법에 의거,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기간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단, 계약을 해지코자 할 때에는 해지 통고일로 부터 3개월의 여유기간을 주어야 하므로 귀임시기가 되면, 이 계약해지 기간에 유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입주시 보통 월 임차료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Gesetzliche Mietkaution이라 명기된 예금 통장에 입금, 주인에게 맡기는데 임차해약 또는 계약만료 시 돌려 받아야 하나 통상 주인이 임대 기간중 임차인이 주택 또는 가구 등에 입힌 손상에 대한 수리 또는 보상으로 손상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다.

이 경우 한국과 다른 현지 관습을 이해 못하거나 손상 보상금액 산정에 있어서의 의견 충돌로 자주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입주시 가구상태, 집기상태, 주택상태를 주인과 면밀히 검사, 서로 확인, 필요시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다. 또 세입자 공제 단체인 Deutscher Mieterbund에 가입해 두면 세입자로서의 권익 신장에 용이하다.

<행정절차>

\* 거주신고 : Anmeldung

주거지가 정해지면 주재원 및 가족은 관할시청에 소정양식에 의거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 이 주민등록신고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국적, 본적, 가족관계(기혼여부), 종교관계, 취업여부 등 전반적인 인적사항을 기록하게 된다. 이 신고서는 각 1부가 외국인 관서 등 상급관청에 송부되어 독일 생활중 이 기록에 의하여 모든 권리 및 의무행사를 하게 됨으로 기록에 신중을 요한다. 특히 종교 관계란에 종교(기독교)가 있는 것으로 진술하면 소득세의 9% (헛센주인 경우)를 종교세로 납부하게 됨으로 재삼 고려해야 한다.

(체류허가 및 노동허가 : Aufenthaltserlaubnis & Arbeitsgenehmigung)

2005년 1월부터 한독정부간의 비자면제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비자는 한국의 주한독일대사관에서 비자를 사전 취득하는 경우와 독일 현지의 외국인청에서 발급을 받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원칙적으로는 독일 현지 주거 외국인청에 발급받으면 되나, 주재원의 경우 세금 및 임금관련 절차가 복잡하여 한국의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것도 권장할 만한 하다.

체류허가는 외국인관청(Auslaenderamt)에서, 노동허가는 노동청(Arbeitsamt)에서 각각 관장한다. 주재원은 노동허가를 근거로, 주재원의 가족은 가족동거권(Familienzusammenfuehrung)을 근거로 체류허가를 받게 된다.

비자는 과거에는(2005년 이전) 한국의 독일대사관에 신청, 교부받았으나, 현재는 독일에도착하여 교부받게 되어있다.

비자신청서(Antrag auf Erteilung einer Aufenthaltserlaubnis)는 27개 항목으로 체재 예정기간, 체류지, 종사업무 내용, 수입원 등을 기입토록 되어 있다. 신청에서 허가증 교부까지의 기간은 업무내용, 신분, 체재지역, 신청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나 전혀 새로운 업무로 처음 들어가는 경우 3-4개월이 소요된다.

외국인이 피고용자로 독일에 체재할 경우 노동허가증이 필요한데 노동 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독일 입국후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 거주지 노동청에 제출해서 취득할 수 있다. 노동허가증도 체류허가와 같이 정기적인 갱신이 필요한 데,매년마다 노동청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 세금카드 : Lohnsteuerkarte

독일에서 취업하는 모든 직장인은 거주지 관할시청으로부터 세금카드를 발급받게 되며 이 세금 카드에 의하여 회사는 매월 직원의 소득세를 해당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 관할시청은 매 연말경에 익년도 세금카드를 집주소로 우송해 주는데 행정적인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으며 이때에는 Einwohnermeldeamt에 가서 발급수속을 해야 한다.

<구좌개설>

구좌를 개설할 경우 여권과 거주등록증(Anmeldungsbescheinigung)이 필요하다. 1일 현금 인출액은 1,000유로로 제한되어 있으며, 거액을 인출할 경우는 3일 전에 은행에 미리 통지하고 은행 창구에서 인출해야 한다.

은행에 따라 구좌유지 수수료가 다소 틀리나 Deutsche Bank, Commerzbank, Dresdner Bank 등 큰 은행중에서 사무실이나 자택 근처에 지점이 위치한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할 때는 6개월이상 정기적으로 은행을 통한 수입이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전화 가설>

전화가설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류를 거주지역의 전화국에 제출해야 한다. 전화번호는 새번호를 신청할 수도 있고 이전 사람의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도 있다.

<비품구입>

독일의 전기규격은 50Hz, 230V로 대부분의 한국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나, 모터가 들어간 일부 제품(세탁기, 냉장고, 헤어 드라이어 등)은 높은 전압으로 고장이 날 우려가 높다. 또한 TV와 비디오레코는 우리나라의 NTSC방식과는 달리 PAL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멀티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가전제품은 가전제품 양판점 또는 디스카운터 스토어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디서 구입해도 신품의 경우 A/S에는 문제가 없다.

가구는 IKEA 등 대형점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 우선 카탈로그를 살펴본 후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좋다. IKEA 가구는 중저가이나 조립식이므로 구입 후 본인이 직접 집에서 조립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수수료를 내고 조립을 의뢰할 수도 있다.

기타 가벼운 공기구 및 집안에 필요한 집기는 Baumarkt나 대형 양판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2005. 9)

98. 자녀 교육여건

<인터내셔널 스쿨>

독일 전역에 약 20여개의 인터내셔널 스쿨이 있으나, 프랑크푸르트 등 한국인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2개교만 있어 입학정원 초과로 입학이 어려운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 입학 : 영어로 된 최종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한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건강기록부도 함께 제출하면 좋음).

- 학업 : 1학년-5학년 (초등부), 6학년-12학년 (중.고등부)
- 학비 : 기부금 (입학시 2,000유로, 그후 매년 1,500유로를 납부, 누적액 5,000유로)  
등록금 500유로  
연간 11,000 - 14,000 유로의 수업료

<현지 교육체계>

연령별 입학가능 현지학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나이    | 학년   | 졸업시험             |
|-----------------------------|-------|------|------------------|
| Kindergarten                | 3~6   |      |                  |
| Vorschule<br>(Kindergarten) | 5~6/7 |      |                  |
| Grundschule                 | 6~10  | 1~4  |                  |
| Hauptschule                 | 11~16 | 5~10 | Hauptschule 졸업시험 |
| Realschule                  | 11~17 | 5~11 | Mittlere Reife   |
| Gymnasium (Type 1)          | 11~19 | 5~13 | Abitur           |
| Gymnasium (Type 2)          | 11~18 | 5~12 | Fachabitur       |

| 구분                                       | 입학조건                    | 최소수업학기 | 학위  |
|--|-------------------------|--------|---|
| Fachhochschule                           | Fachabitur 또는<br>Abitur | 6학기    | Diplom 전공 (FH)                              |
| Hochschule,<br>Universitaet,<br>Akademie | 시험합격자                   | 8학기    | Diplom전공(U)<br>M.A<br>(교직이수자들에게는<br>학위가 없음) |

- 입학 : 독일어로 된 재학증명서(건강기록부 첨부하면 좋음)를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확인 받아 거주지역 학교에 신청하면 자리가 있을 시 쉽게 입학 가능하다
- 학비 : 유치원은 월 100유로정도이나 Grundschule부터 대학교육까지는 전액무료이다.

\*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2005. 9)

99. 진출기업/삼성 SDI 독일법인 : Samsung SDI Germany GmbH

<기본정보>

City : Berlin  
 Add : Ostend Strasse 1-14, 12459 Berlin  
 Tel : 49-30-5305-3908  
 Fax : 49-30-685-9281  
 Pres : 김동식(상무)

<주요현황>

업 종 : 제조, 판매업  
취급분야 : TV 브라운관  
진출형태 : 현지법인(생산)  
진출년도 : 1992년  
종업원현황 : 13(본사파견), 990(현지채용)  
설립자본금 : US\$25백만  
연간매출액 : US\$220백만  
합 작 선 : 단독투자  
합작비율 : 100%

<모기업>

모기업명칭 : 삼성SDI(주)  
Add :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대경빌딩  
Tel : 02-751-3355  
Fax : 02-727-3117  
Pres : 김순태

100. 진출기업/삼성코닝독일현지법인:SamsungCorning  
Deutschland GmbH

<기본정보>

City : Tschernitz  
Add : Spremberger Strasse 4, D-03130, Tschernitz  
Tel : 49-35600-34417  
Fax : 49-35600-34302  
Pres : 이공선(상무)

<주요현황>

업 종 : 제조, 판매업  
취급분야 : TV 브라운관 유리, PC모니터 유리  
진출형태 : 현지법인(생산, 영업)  
진출년도 : 1994년  
종업원현황 : 13(본사파견), 706(현지채용)  
설립자본금 : US\$2,230백만  
연간매출액 : US\$137백만  
합 작 선 : 단독투자  
합작비율 : 100%

<주요모기업>

모기업명칭 : 삼성코닝(주)  
Add : 서울 강남구 대치동 글라스타워  
Tel : 02-3457-9638  
Fax : 02-3457-9539  
Pres : 박영구

101. 진출기업/금호 타이어(주) : Kumho Europe GmbH

<기본정보>

City : Frankfurt/M.  
Add : Sonnemannstrasse 5, 60314 Frankfurt/M.  
Tel : 49-69-9433180  
Fax : 49-69-490069  
Pres : 윤영두(상무)

<주요현황>

업종 : 일반무역  
취급분야 : 타이어  
진출형태 : 현지법인  
진출년도 : 1977년  
종업원현황 : 9(본사파견), 23(현지채용)  
설립자본금 : DM 2백만  
연간매출액 : DM 250백만  
합작선 : 단독투자  
합작비율 : 100%

<모기업>

모기업명칭 : 금호타이어(주)  
Add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10-1 아시아나 빌딩  
Tel : 02-758-1114  
Fax : 02-758-1390  
Pres : 신형인

## 102. 진출기업/대우 인터네셔널 (주) : Daewoo Handels GmbH

### <기본정보>

City : Frankfurt/M  
Add : Im Atzelnest 3, 61352 Bad Homburg  
Tel : 49-6172-279590  
Fax : 49-6172-27959-99  
Pres : K.W.Chang. 장경욱 상무

### <주요현황>

업 종 : 종합무역  
취급분야 : 철강, 비철, 화학, 기계, 전자, 섬유, 물자, 자동차부품  
진출형태 : 현지법인  
진출년도 : 1972년  
종업원현황 : 5(본사파견), 10(현지채용)  
설립자본금 : 20백만유로  
연간매출액 : 504백만유로  
합 작 선 : 단독투자  
합작비율 : 100%

### <주요 모기업>

모기업명칭 : (주) 대우 인터내셔널  
Add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41번지  
Tel : 02-759-2114  
Fax : 02-753-9489  
Pres : 이태용

## 103. 진출기업/대우전자독일판매법인:DaewooElectronics Deutschland GmbH

### <기본정보>

City : Butzbach  
Add : Otto-Hahn-Strasse 21, 35510, Butzbach  
Tel : 49-6033-969110  
Fax : 49-6033-9691917  
Pres : J. H. Won, 원중호 이사

<주요현황>

업 종 : 무역업  
취급분야 : 전기, 전자제품  
진출형태 : 현지법인  
진출년도 : 1992년  
종업원현황 : 3(본사파견), 40(현지채용)  
설립자본금 : -  
연간매출액 : -  
합 작 선 : 단독투자  
합작비율 : 100%

<주요모기업>

모기업명칭 : 대우전자(주)  
Add : 서울 마포구 아현동 686  
Tel : 02-360-7114  
Fax : 02-360-7867  
Pres : 장기형

104. 진출기업/LG전자독일판매법인 : LG Electronics Deutschland GmbH

<기본정보>

City : Willich  
Add : Jakob-Kaiser Strasse 12, 47877 Willich  
Tel : 49-2154-4920  
Fax : 49-2154-428799  
Pres : B.H. Park, 박병호이사

<주요현황>

업 종 : 무역업  
취급분야 : 전기, 전자제품 및 부품  
진출형태 : 현지법인  
진출년도 : 1976  
종업원현황 : 13(본사파견), 160(현지채용)  
설립자본금 : -  
연간매출액 : -  
합 작 선 : 단독투자  
합작비율 : 100%

<주요모기업>

모기업명칭 : LG 전자 (주)  
Add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LG트윈빌딩  
Tel : 02-3777-1114  
Fax : 02-3777-5335  
Pres : 구분준

105. 진출기업/대한항공프랑크푸르트지점 : Korean Air Frankfurt Office

<기본정보>

City : Frankfurt/M.  
Add : Kaiserstrasse 10, 60329 Frankfurt/M.  
Tel : 49-69-13811232  
Fax : 49-69-13811299  
Pres : I. S. Kim, 김인섭부장

<주요현황>

업 종 : 서비스  
취급분야 : 항공운수업  
진출형태 : 지점  
진출년도 : 1973  
종업원현황 : 6(본사파견), 20(현지채용)  
설립자본금 : -  
연간매출액 : -  
합 작 선 : 단독투자  
합작비율 : -

<주요모기업>

모기업명칭 : (주) 대한항공  
Add :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0 대한항공빌딩  
Tel : 02-656-7114  
Fax : 02-656-7268  
Pres : 심이택

## 106. 진출기업/(주)삼성물산 독일법인; Samsung Deutschland GmbH

### <기본정보>

City : Schwalbach  
Add : Am Kronberger Hang 6, 65824 Schwalbach  
Tel : 49-6196-665000  
Fax : 49-6196-665011  
Pres : K. D. Kim 김관동 전무

### <주요현황>

업종 : 금속, 철강, 전자, 기계, 화학, 섬유 등 수출입 무역  
취급분야 : 무역  
진출형태 : 현지법인  
진출년도 : 1975  
종업원현황 : 13(본사파견), 42(현지채용)  
설립자본금 : -  
연간매출액 : -  
합작선 : 단독투자  
합작비율 : -

### <주요모기업>

모기업명칭 : (주)삼성물산  
Add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 삼성플라자 빌딩  
Tel : 02-2145-2114  
Fax : 02-2145-3114  
Pres : 배종렬

## 107. 진출기업/현대자동차 유럽법인 (주) : Hyundai Motor Europe GmbH

### <기본정보>

City : Ruesselsheim  
Add : Hyundai Platz. Marie Curie Str 2, 65428 Ruesselsheim  
Tel : 49-6142-78990  
Fax : 49-6142-7899200  
Pres : 오영근(이사)

<주요현황>

업 종 : 자동차  
취급분야 : 무역  
진출형태 : 현지법인  
진출년도 : 2000  
종업원현황 : 23(본사파견), 11(현지채용)  
설립자본금 : -  
연간매출액 : -  
합 작 선 : 단독투자  
합작비율 : -

<주요모기업>

모기업 명칭 : (주) 현대자동차  
Add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Tel : 02-3464-1114  
Fax : 02-3464-3477  
Pres : 정몽구

108. 진출기업/포스코 유럽사무소 : POSCO Europe Office

<기본정보>

City : Duesseldorf  
Add : Georg-Glock-Str. 14, 40474 Duesseldorf  
Tel : 49-211-435300  
Fax : 49-211-4353030  
Pres : 권오준 소장

<주요현황>

업 종 : 철강  
취급분야 : 연구 및 기술개발  
진출형태 : 연구소  
진출년도 : 1995  
종업원현황 : 9(본사파견), 2(현지채용)  
설립자본금 : -  
연간매출액 : -  
합 작 선 : 단독투자  
합작비율 : -

<모기업>

모기업 명칭 : (주) 포스코  
 Add :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Tel : 054-220-0114  
 Fax : 054-220-6000  
 Pres : 이구택

109. 주요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 2001    | 2002    | 2003    | 2004    |
|---------------|---------|---------|---------|---------|
| GDP (십억유로)    | 2073.7  | 2120.4  | 2129.2  | 2207.2  |
| 경제성장률 (%)     | 2.2     | 0.2     | 0       | 1.6     |
| 인플레이션 (%)     | 1.1     | 0.7     | 0.2     | 1.6     |
| 실업률 (%)       | 9.4     | 9.8     | 10.5    | 10.6    |
| 수출 (백만유로)     | 638,268 | 651,320 | 664,455 | 733,456 |
| 수입 (백만유로)     | 542,774 | 518,532 | 534,534 | 577,375 |
| 무역수지 (백만유로)   | 95,494  | 132,788 | 129,921 | 156,081 |
| 환율 (US\$/EUR) | 0.89255 | 0.94159 | 1.12754 | 1.24079 |

\* 자료원: 독일 연방통계청 ([www.destatis.de](http://www.destatis.de), 2005. 9)  
 연방은행 ([www.bundesbank.de](http://www.bundesbank.de), 2005. 9)

110. 대외거래지표

(단위 : 백만유로)

| 구분   | 2002       | 2003       | 2004       |
|------|------------|------------|------------|
| 자본수지 | (-) 42,825 | (-) 46,284 | (-) 99,769 |
| 경상수지 | 48,155     | 45,249     | 83,967     |
| 무역수지 | 132,788    | 129,921    | 156,081    |
| 수출   | 651,320    | 664,455    | 733,456    |
| 수입   | 518,532    | 534,534    | 577,375    |

\* 자료원: 독일 연방은행 ([www.bundesbank.de](http://www.bundesbank.de), 2005. 9)  
 독일 연방통계청 ([www.destatis.de](http://www.destatis.de), 2005. 9)

### 111.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

<수 출>

(단위: 백만유로)

| 수출대상국           | 2001     | 2002     | 2003     | 2004     |
|-----------------|----------|----------|----------|----------|
| 1. France       | 69,600.5 | 68,720.8 | 69,024.8 | 75,300.9 |
| 2. USA          | 67,823.9 | 68,263.1 | 61,653.6 | 64,802.3 |
| 3 . Britain     | 52,763.8 | 53,760.9 | 55,596.9 | 61,057.9 |
| 4. Italy        | 47,119.0 | 47,334.9 | 48,414.3 | 52,441.5 |
| 5. Nether lands | 40,01.1  | 40,462.9 | 42,218.8 | 45,491.3 |
| 6. Belgium      | 32,269.6 | 31,096.4 | 35,310.1 | 41,164.3 |
| 7. Austria      | 33,486.1 | 33,862.6 | 35,857.0 | 39,434.3 |
| 8. Spain        | 27,840.9 | 29,435.9 | 32,364.0 | 36,809.8 |
| 9. Switzerland  | 27,489.3 | 26,702.3 | 26,008.9 | 27,952.5 |
| 10. China       | 12,118.1 | 14,570.7 | 18,264.5 | 20,995.5 |

<수 입>

(단위: 백만유로)

| 수입대상국           | 2001     | 2002     | 2003     | 2004     |
|-----------------|----------|----------|----------|----------|
| 1. France       | 49,742.7 | 48,200.1 | 48,544.6 | 52,203.8 |
| 2. Nether lands | 43,233.3 | 40,751.1 | 42,301.5 | 47,864.7 |
| 3. USA          | 45,981.7 | 40,375.8 | 39,231.0 | 40,264.7 |
| 4. Italy        | 35,279.8 | 33,482.1 | 34,258.7 | 34,963.5 |
| 5. Britain      | 37,259.1 | 33,075.5 | 31,711.5 | 34,313.3 |
| 6. China        | 19,941.7 | 21,338.5 | 25,681.4 | 32,455.5 |
| 7. Belgium      | 26,735.1 | 24,665.8 | 24,148.9 | 28,499.6 |
| 8. Austria      | 20,663.6 | 21,046.6 | 21,452.6 | 24,236.6 |
| 9. Switzerland  | 19,752.6 | 19,461.4 | 19,683.8 | 21,414.6 |
| 10. Japan       | 22,910.2 | 19,896.4 | 19,092.6 | 21,093.8 |

\* 자료원: 연방통계청([www.destatis.de](http://www.destatis.de), 2005. 9)

## 112.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 통계

### <수 출>

(단위: 백만유로)

| 주요수출품             | 2001    | 2002    | 2003    | 2004    |
|-------------------|---------|---------|---------|---------|
| 29류(유기화학제품)       | 12,332  | 15,280  | 15,406  | 14,650  |
| 30류(의료용품)         | 12,612  | 13,477  | 16,714  | 14,506  |
| 38류(기타화학제품)       | 7,847   | 9,444   | 9,125   | 9,268   |
| 39류(플라스틱과 제품)     | 21,882  | 27,144  | 26,575  | 27,414  |
| 48류(종이류 및 판지)     | 10,413  | 13,722  | 13,092  | 13,796  |
| 72류(철강)           | 9,669   | 12,960  | 11,920  | 12,058  |
| 73류(철강의 제품)       | 9,190   | 11,222  | 11,679  | 12,155  |
| 84류(기계류 및 부분품)    | 92,225  | 112,484 | 114,664 | 116,601 |
| 85류(전기기기 및 부분품)   | 54,598  | 73,127  | 72,095  | 69,906  |
| 87류(철도차량 및 부분품)   | 85,115  | 100,075 | 109,114 | 116,394 |
| 88류(항공기와 우주선)     | 13,002  | 16,190  | 19,139  | 17,670  |
| 90류(광학, 영화, 의료기기) | 18,875  | 22,787  | 24,413  | 25,457  |
| 99류(기타 잡품)        | 30,633  | 18,430  | 40,332  | 43,017  |
| 기 타               | 124,751 | 151,139 | 153,065 | 155,414 |
| 총 계               | 503,144 | 597,480 | 637,333 | 648,306 |

### <수 입>

(단위: 백만유로)

| 주요수입품            | 2001    | 2002    | 2003    | 2004    |
|------------------|---------|---------|---------|---------|
| 27류(광물성연료 등)     | 24,815  | 47,469  | 46,875  | 42,231  |
| 29류(유기화합물)       | 11,137  | 15,122  | 18,958  | 12,760  |
| 39류(플라스틱 및 제품)   | 12,910  | 16,554  | 15,145  | 14,691  |
| 48류(종이류와 판지 등)   | 7,730   | 10,083  | 9,717   | 9,898   |
| 61류(편물제 의류 등)    | 7,824   | 9,095   | 8,270   | 8,096   |
| 62류(제61류 이외의 의류) | 10,488  | 11,461  | 11,316  | 10,720  |
| 72류(철강)          | 7,899   | 11,248  | 9,771   | 9,345   |
| 73류(철강 제품)       | 6,975   | 8,373   | 7,984   | 7,686   |
| 84류(기계류 및 부분품)   | 61,733  | 78,801  | 75,273  | 72,420  |
| 85류(전기기기 및 부분품)  | 46,440  | 66,435  | 63,144  | 58,352  |
| 87류(철도 및 부분품)    | 40,733  | 44,489  | 45,162  | 47,057  |
| 90류(광학, 영화 등)    | 12,190  | 15,805  | 16,170  | 15,231  |
| 94류(가구 및 침구)     | 7,728   | 9,272   | 8,796   | 8,644   |
| 99류(기타 잡품)       | 44,877  | 29,527  | 51,843  | 47,391  |
| 기타               | 132,694 | 164,610 | 161,849 | 157,540 |
| 총 계              | 436,171 | 538,343 | 550,273 | 522,062 |

\* 자료원: 독일 연방통계 연감(2005. 9)

### 113.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대독일 주요 수출입 상품

<대독일 주요 수출 상품>

(단위 : 천불, %)

| 순위 | 코드  | 품목명      | 2003      |       | 2004      |       |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1  | 831 | 반도체      | 1,696,861 | 30.7  | 2,126,441 | 25.3  |
| 2  | 812 | 무선통신기기   | 480,128   | 62.0  | 949,016   | 72.8  |
| 3  | 741 | 자동차      | 792,667   | 43.8  | 966,577   | 21.9  |
| 4  | 813 | 컴퓨터      | 425,025   | 96.9  | 831,029   | 95.5  |
| 5  | 821 | 영상기기     | 185,920   | 21.3  | 287,267   | 107.9 |
| 6  | 836 | 평판 디스플레이 | 149,269   | 29.6  | 258,689   | 72.9  |
| 7  | 746 | 선박해양 구조물 | 356,130   | 209.7 | 646,917   | 81.5  |
| 8  | 320 | 고무제품     | 113,781   | -41.7 | 144,149   | 26.6  |
| 9  | 441 | 의류       | 140,871   | 38.9  | 55,488    | 19.9  |
| 10 | 742 | 자동차부품    | 81,775    | 9.2   | 114,714   | 39.9  |

<대독일 주요 수입 상품>

(단위 : 천불, %)

| 순위 | 코드         | 품목명      | 2003      |       | 2004      |       |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1  | <u>831</u> | 반도체      | 1,696,861 | 30.7  | 3,032,441 | 48.8  |
| 2  | <u>812</u> | 무선통신기기   | 480,128   | 62.0  | 949,016   | 72.8  |
| 3  | <u>741</u> | 자동차      | 792,667   | 43.8  | 383,577   | 145.8 |
| 4  | <u>813</u> | 컴퓨터      | 425,025   | 96.9  | 339,029   | 15.3  |
| 5  | <u>821</u> | 영상기기     | 185,920   | 21.3  | 297,267   | 96.1  |
| 6  | <u>836</u> | 평판 디스플레이 | 149,269   | 29.6  | 144,689   | 98.1  |
| 7  | <u>746</u> | 선박해양 구조물 | 356,130   | 209.7 | 123,917   | 724.8 |
| 8  | <u>320</u> | 고무제품     | 113,781   | -41.7 | 99,149    | -50.2 |
| 9  | <u>441</u> | 의류       | 140,871   | 38.9  | 55,488    | 19.9  |
| 10 | <u>742</u> | 자동차부품    | 81,775    | 9.2   | 42,714    | -0.8  |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http://www.kita.net), 2005. 9)

### 114.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대독일 연도별 수출입 규모

<수출 규모>

(단위 : 천불, %)

| 연도   | 금액        | 증가율   | 월  | 2003      |      | 2004      |      |
|------|-----------|-------|----|-----------|------|-----------|------|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1993 | 3,592,794 | 24.9  | 1  | 371,340   | 14.4 | 573,402   | 54.4 |
| 1994 | 4,313,496 | 20.1  | 2  | 798,015   | 14.3 | 1,161,624 | 45.6 |
| 1995 | 5,965,217 | 38.3  | 3  | 1,234,829 | 7.5  | 1,764,556 | 42.9 |
| 1996 | 4,705,163 | -21.1 | 4  | 1,670,424 | 14.3 | 2,421,838 | 45.0 |
| 1997 | 4,753,272 | 1     | 5  | 2,038,596 | 17.9 | 3,033,165 | 48.8 |
| 1998 | 4,008,780 | -15.7 | 6  | 2,474,087 | 20.2 | 3,676,604 | 48.6 |
| 1999 | 4,184,876 | 4.4   | 7  | 2,935,054 | 23.2 | 4,457,401 | 51.9 |
| 2000 | 5,153,833 | 23.2  | 8  | 3,368,659 | 24.4 | 5,072,398 | 50.6 |
| 2001 | 4,321,766 | -16.1 | 9  | 3,863,755 | 25.1 | 5,792,943 | 49.9 |
| 2002 | 4,287,214 | -0.8  | 10 | 4,450,973 | 28.5 | 6,649,265 | 49.4 |
| 2003 | 5,603,330 | 30.7  | 11 | 5,040,310 | 29.3 | 7,539,218 | 49.6 |
| 2004 | 8,334,243 | 48.7  | 12 | 5,603,330 | 30.7 | 7,950,321 | 41.2 |

<수입 규모>

(단위 : 천불, %)

| 연도   | 금액        | 증가율   | 월  | 2003      |      | 2004      |      |
|------|-----------|-------|----|-----------|------|-----------|------|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1993 | 3,954,711 | 5.7   | 1  | 499,299   | 25.8 | 634,896   | 27.2 |
| 1994 | 5,159,380 | 30.5  | 2  | 980,577   | 31.5 | 1,242,647 | 26.7 |
| 1995 | 6,583,844 | 27.6  | 3  | 1,532,626 | 34.6 | 1,983,613 | 29.4 |
| 1996 | 7,239,188 | 10    | 4  | 2,114,948 | 36.3 | 2,715,877 | 28.4 |
| 1997 | 5,824,013 | -19.5 | 5  | 2,672,590 | 32.3 | 3,364,861 | 25.9 |
| 1998 | 3,345,343 | -42.6 | 6  | 3,251,221 | 31.9 | 4,084,882 | 25.6 |
| 1999 | 3,825,983 | 14.4  | 7  | 3,811,454 | 28.6 | 4,775,975 | 25.3 |
| 2000 | 4,624,655 | 20.9  | 8  | 4,331,169 | 23.7 | 5,506,203 | 27.1 |
| 2001 | 4,473,417 | -3.3  | 9  | 4,904,031 | 24.4 | 6,163,377 | 25.7 |
| 2002 | 5,472,379 | 22.3  | 10 | 5,523,438 | 24.9 | 6,900,739 | 24.9 |
| 2003 | 6,821,739 | 24.7  | 11 | 6,085,915 | 24.0 | 7,656,456 | 25.8 |
| 2004 | 8,523,341 | 42.3  | 12 | 6,821,739 | 24.7 | 8,213,182 | 27.8 |

\* 자료원: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http://www.kita.net), 2005. 6)

### 115. 대외 투자진출 통계/대외투자진출

<국가별 투자규모 (FDI)>

(단위 : 백만 유로)

| 투자대상국 | 2002    | 2003    | 2004    |
|-------|---------|---------|---------|
| 프랑스   | -4,200  | -4,390  | -8,668  |
| 이태리   | 2,726   | -130    | -1,173  |
| 룩셈부르크 | -9,320  | 2,987   | -2,135  |
| 네델란드  | -1,000  | 36,479  | 11,302  |
| 오스트리아 | -500    | 404     | -753    |
| 스페인   | -700    | -1,191  | -369    |
| 영국    | 1,800   | -12,212 | -18,168 |
| 스위스   | 40      | 237     | 1,775   |
| 미국    | 2,650   | -51,559 | 832     |
| 중국    | -100    | -659    | -650    |
| 한국    | -1,738  | -317    | -130    |
| E U   | -7,867  | 14,468  | -22,625 |
| 총계    | -54,045 | -47,023 | -26,070 |

\* 자료원: 독일연방은행 홈페이지 ([www.bundesbank.de](http://www.bundesbank.de), 2005. 9)

### 116.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국별투자유치

<국가별 투자유치(FDI)>

(단위 : 백만 유로)

| 투자대상국 | 2002   | 2003   | 2004   |
|-------|--------|--------|--------|
| 프랑스   | -4,034 | -339   | -3,298 |
| 아일랜드  | 110    | -596   | 2,118  |
| 이태리   | 341    | 3,367  | 430    |
| 룩셈부르크 | 98,486 | 10,904 | 1,753  |
| 네델란드  | 35,201 | -154   | 18,643 |
| 오스트리아 | 2,426  | 584    | -39    |
| 포르투갈  | 65     | -175   | -35    |
| 스페인   | 1,923  | -686   | 1,928  |
| 덴마크   | 1,043  | 1,286  | 1,288  |
| 그리스   | 22     | 22     | 227    |

|     |         |        |        |
|-----|---------|--------|--------|
| 스웨덴 | 3,180   | 1,982  | 1,688  |
| 영국  | 55,266  | 700    | 9,192  |
| 스위스 | -1,807  | -2,879 | -313   |
| 일본  | 760     | -213   | -42    |
| 미국  | -1,126  | 4,350  | 1,107  |
| 중국  | 78      | 217    | -163   |
| 홍콩  | 38      | 18     | -96    |
| 싱가폴 | 355     | -186   | -118   |
| 한국  | 29      | -181   | -26    |
| 대만  | 10      | -98    | 144    |
| EU  | 206,100 | 30,051 | 35,484 |
| 총계  | 211,786 | 37,903 | 40,414 |

\* 자료원: 독일연방은행 홈페이지([www.bundesbank.de](http://www.bundesbank.de), 2005. 9)

### 117. 우리나라와의투자교류통계/한-독일간투자교류통계 (진출 및 유치)

#### <우리나라 유치>

(단위 : US\$백만, 건수)

| 2002 |     | 2003 |     | 2004 |     | 2005(3월까지)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68   | 284 | 68   | 370 | 95   | 487 | 29         | 341 |

#### <우리나라 진출>

(단위 : US\$백만, 건수)

| 2001 |    | 2002 |    | 2003 |    | 2004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11   | 28 | 18   | 65 | 24   | 86 | 22   | 45 |

\* 자료원: 산자부 외국인투자 유치 동향자료(2005. 9)

### 118. 물가금융지표

| 지 표                  | 2001  | 2002  | 2003  | 2004  |
|----------------------|-------|-------|-------|-------|
| 도매물가지수(1995=100)     | 106.7 | 108.4 | 109.9 | 110.9 |
| 소비자물가지수(2000=100)    | 103.4 | 104.4 | 106.1 | 110.1 |
| 물가상승율 (%)            | 1.9   | 2.5   | 1.6   | 1.1   |
| 연평균환율(U\$/EUR)       | 0.92  | 0.90  | 0.94  | 1.13  |
| 금리(Eur ibor, 3개월, %) | 4.4   | 4.2   | 3.5   | 3.8   |

2005년도 물가상승관련 연초에는 1.7%정도 물가상승을 예상했으나, 카트리나 등의 여파로 유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9월중 주요경제연구기관에서 2%정도로 상향조정된 상태임

\* 자료원 : 독일연방 통계연감(2005. 9) 및 무역관 자체조사

### 119. 노동통계

| 지 수                | 2002   | 2003   | 2004   |
|--------------------|--------|--------|--------|
| 고용인구(1,000명)       | 38,752 | 38,917 | 38,688 |
| 실업율(%)             | 9.6    | 9.4    | 9.8    |
| 월평균임금 (제조업)        | 2,665  | 2,733  | 2,816  |
| 임금상승률(1995.10=100) | 108.9  | 110.5  | 112.0  |
| 주당 평균 근로시간 (제조업)   | 38.2   | 38.0   | 37.9   |

\* 참조: 2005년 8월 현재 실업률은 11.4%임

\* 자료원: 독일 연방 통계연감(2005. 9)

독일 연방통계청 경제 및 통계자료(2005. 9)